

제29회 기독교학문학회 자료집 순서

---

# SNS & CNS

일 시 : 2012. 11. 10.(토) 10:00 - 18:00  
장 소 : 명지대학교 서울캠퍼스(인문캠퍼스)  
주 관 : 기독교학문연구회(학회),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주 최 : 기독교학문연구회(학회), 로고스경영학회, 문화선교연구원  
연락처 : 02-754-8004(대표전화), 02-3272-4967(학회)  
이메일 : [gihakyun@daum.net](mailto:gihakyun@daum.net), [info@worldview.or.kr](mailto:info@worldview.or.kr)

1. 초대의 글 .....	1
2. 진행시간표 .....	2
3. 분과별 발표 계획 .....	3
4. 대학원생 발표 계획 .....	6
5. 주제 발표 원고 .....	7
6. 분과별 발표 원고 .....	26
7. 대학원생 발표 요약본 .....	106
8. 주최단체 소개 .....	137
9. 학회 참가 이수증 .....	140

## 초대의 글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세상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면 관계를 뜯히게 만들어서 더욱 멀어지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상호교류를 더욱 돈독하게 함으로써 ‘일촌관계’를 확산시키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SNS의 확산은 사회문화적 흐름일 뿐만 아니라 학술적·신앙적 관심사입니다. 이대로 흘러가도 될 것인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CNS’(Christian Network Service)는 인터넷이라는 시대적 산물을 활용한 기독교적 ‘관계 회복’의 유익한 매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을 ‘CNS’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나라 안에서 ‘CNS’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류의 학문은 수천년 동안 무수한 오류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걸음을 내딛어 왔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또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학문연구회는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학문을 연구함으로써 신앙과 학문의 소통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29회 기독교학문학회는 <SNS와 CNS>를 주제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논의해온 저출산 고령화 문제, 생명윤리의 문제, 청년 실업문제, 청소년 교육의 대안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현안들 못지않게 민감하고도 중요한 과제이기에 기독교 지식인 모두를 기쁘게 축복하면서 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 정희영  
학술대회 준비위원장 김태황

## 진행시간표

09:30 - 10:00	등록 1
10:00 - 12:00	대학원생 세션 논문 발표 _ 경상관 2층, 3층 * 대학원생 4개 분과 / 15편
12:00 - 13:00	오찬 / 등록 2
13:00 - 13:20	개회 및 시상 _ 방목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 ※ 사회 : 김태황 (기독교학문연구회 학술대회 준비위원장/ 명지대 교수)  ※ 축사 및 기도 : 구제홍 (명지대 교목실장)  ※ 개회인사 : 정희영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총신대 교수) * <새로남 우수논문상> 시상  ※ 광고 손병덕 (기독교학문연구회 총무/ 총신대 교수)
13:20 - 14:40	주제강연 및 논평 _ 방목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 ※ 주제발표 1 : 강진구 (고신대 교수) “SNS 사회와 한국교회의 미래”  ※ 주제발표 2 : 김용찬 (연세대 교수) “SNS=social+networking+service?” : SNS 현상에 대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들”  ※ 종합논찬 :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14:40 - 18:00	분과별 논문 발표 _ 경상관 2층, 3층 * 8개 분과 / 36편
18:00 - 19:00	저녁만찬 _ 학생회관 2층 교수식당

## 제29회 기독교학문학회 분과별 발표

대학원생 논문발표 10:00 - 12:00 : 경서관 2, 3층

교수/일반분과발표 14:40 - 18:00 : 경서관 2, 3층

\*해당 강의실의 위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교수 / 일반 분과 (경서관 2,3층)

분과	발표자	논문 제목	사회자	논찬자
1분과: 경제/경영1  경서관 2층 4215	김형철 (백석대)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위한 전략적 접근	임병진 (영남대)	김동환 (호서대)
	신호균·김영애 (금오공대)	CSR 실천 중소기업의 기독교영 핵심원리의 적용		임병학 (부산외대)
	최무진 (계명대)	지식경영 교육의 기독교적 접근방법		박정운 (영남대)
	박정운 (영남대)	복음적 경영론의 정립과 기업의 적용		신호균 (금오공대)
	김한경 (대구대)	행복교육경영론의 이해와 향후과제		노명호 (호서대)
	이병원 (경희사이버대)	호텔REITs 투자이익의 차이가 REITs 투자 요인에 미치는 영향		김형철 (백석대)
	임병진 (영남대)	한국의 행복지수와 국민소득에 미친 상호영향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태순 (서울사이버대)
2분과: 경제/경영2  경서관 2층 4217	최현정 (백석대)	한국 여성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 (Work-Family Balance)에 관한 연구	황의서 (서울시립대)	신성휘 (서울시립대)
	김형길 (제주대)	교회마케팅의 성경적 배경과 교회성장예의 활용방안		이규현 (한남대)
	황의서 (서울시립대)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윤리		김홍섭 (인천대)
	조병남 (숙명여대)	세계요한의 리더십을 통해 살펴본 21C 리더의 역할		노혜숙 (숙명여대)

분과	발표자	논문 제목	사회자	논찬자
3분과: 교육  경서관 3층 4315	이창국 (주님의교회 목사)	교회의 열매란 무엇인가? 기독교생활공동체의 부활을 위한 성경적 변증	김정효 (이화여대)	장갑덕 (카이스트교회)
	안영혁 (총신대 강사)	기독교인의 전통적 생활과 SNS의 교육목적적 결합에 관한 연구		강명희 (이화여대)
	이은실 (한동대)	기독교대학 정체성을 위한 교수개발의 방향		정한호 (총신대)
	김성원 (총신대 강사)	어린이용 하나님 개념 측정도구 개발		조혜정 (총신대)
	정희정 (총신대 강사)	마음이론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김정희 (평택대)
4분과: 문학/예술  경서관 2층 4217	김경철 (고신대)	T. S. 엘리엇의 에어리얼 시편에 나타난 역사적 죽음	정정호 (중앙대)	정정호 (중앙대)
	김동욱 (백석대)	기독교 신앙과의 관점에서 살펴 본 일본 화(和)의 문화		최경국 (명지대)
	장영창 (경희대 강사)	복잡계 이론을 활용한 박이도 시인의 언행과 시적 형상화 분석		류호열 (건국대)
	서성록 (안동대)	반고흐의 <감자먹는 사람들> 연구		서영희 (홍익대)
	안용준 (목원대 겸임교수)	뒤러의 요한계시록 판화에 나타난 미학적 의미 분석		금사랑 (사외찬미교회)
	심상용 (동덕여대)	현대 미술과 창조적 독창성의 기독교적 정의		조규희 (서울대)
	강상우 (고구려대 겸임교수)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 : 필요성, 근거 그리고 방법을 중심으로		양혜원 (총신대)
백은령·전동일 (총신대 장애인개발원)	기독교 노인의 삶의 질 연구 : 장애연수를 중심으로	이은미 (서울신대)		
이근영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연구소 책임연구원)	태화복지재단 사업기관 지원사업 '섬김과 나눔' 소개 :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중심으로	이정주 (분당우리복지재단 상임이사)		

분과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자	논찬자
6분과: 상담/심리 경상관 3층 4325	박신배 (그리스도대)	성서의 창조신앙과 생애 형성	민장배 (성결대)	이일우 (원광대)
	박혜전 (고신대)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자기정체성에 관한 연구		김영아 (서울기독대)
	안 석 (서울기독대)	상담심리치료의 영성적 차원에 관한 고찰 : D. Benner를 중심으로		최범선 (한영신학대)
7분과: 세계관 경상관 3층 4327	추태화 (안양대)	개화기 기독교소설과 기독교 세계관	송태현 (이화여대)	김경완 (승실대)
	박양식 (한신대)	종교와 사회갈등 : 타보르파 운동과 토마스 뤼저의 난을 중심으로		이경직 (백석대)
	정기목 (장신대)	사이버 공간의 인간과 성서적 관점		김근주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8분과: 철학 경상관 2층 4319	김종민 (고신대)	교회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양성만 (우석대)	이영수 (고신대)
	최용준 (한동대)	학문, 신앙 그리고 기독교대학 : 헨드릭 반 리센의 사상을 중심으로		최태연 (백석대)
	신상형 (안동대)	전기 비트겐슈타인을 통한 기독교 철학의 모색		장성민 (총신대)
	이창호 (장신대 강사)	기독교시인의 공적 담론 참여에 관한 윤리적 탐색		이동춘 (장신대)

■ 대학원생 분과 (경상관 2, 3층)

분과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자	논찬자
1분과: 교육1 경상관 2층 4215	변우진 (아세아연합신학대)	공립학교 기독교사를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분석 및 요구분석	정희영 (총신대)	정희영 (총신대)
	유희진 (총신대)	X세대와 N세대의 SNS(CNS) 인식 및 활용 대한 연구		
	박현경김현경연혜민 (성균관대)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 그림책으로 바라보기		
	김태영 (고신대)	현대 한국기독교교회 정체성의 역사적 고찰		
2분과: 교육2 경상관 2층 4217	Vender Deolito Vistar, Jr, (고신대)	God, You, and Me : The Communicative Nature and Purpose of Language	손병덕 (총신대)	정한호 (총신대)
	Lasuh Wolo (고신대)	Luke's theology of missions :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usanto Agus (고신대)	Redeeming Science Teaching from a Biblical Perspective : Teaching Evolutionary Studies to Grade 7 in Indonesian Christian Schools		
	정문선 (성균관대)	허스트의 사회적 실재로서의 종교교육		
3분과: 복지/체육 경상관 2층 4219	박민선 (서울대)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범죄의 심리적 메커니즘분석: 가정폭력에서의 소통방식과 폭력 양상을 중심으로	김태황 (명지대)	양혜원 (총신대)
이주희 (숙명여대)	플라스틱 예술관을 통한 무용예술의 이해			
4분과: 세계관/ 신학/문화 경상관 2층 4217	박관수 (도서출판 동연)	기술주의와 기독교 세계관	조성표 (경북대)	장성민 (총신대)
조인숙 (국민대)	동성에 관한 갈등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이원석 (중앙대)	픽업아티스트의 세계를 통해 본 현대인의 자아 재구성		

## 주제발표 1

## SNS사회와 한국교회의 미래

강진구 (고신대학교 컴퓨터영상선교학과 교수)

## 주 제 발 표

## 1. SNS사회와 한국교회의 미래

## 2. SNS = Social + Network + Service?

: SNS 현상에 대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들

## I. 교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징조들

한국의 가수 사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의 유튜브 조회수가 2012년 11월 2일 자로 6억1천900만건을 돌파함으로써 역대 유튜브 조회수 2위를 기록했다.<sup>1)</sup> 전 세계인들을 말춤 열풍으로 몰아넣은 이 뮤직비디오의 성공 원인으로는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높은 리듬과 멜로디, 코믹한 설정과 흥겨운 댄스 등 주목받기 쉽고 따라 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콘텐츠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콘텐츠의 강한 대중성과 더불어 UCC와 트위터(Twitter)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기술적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강남스타일의 세계적인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는데 사람들은 동의하고 있다.<sup>2)</sup> 사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YG Entertainment)에 따르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것도 아니었고, 단지 국내 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제작사의 마케팅 관행상 유튜브에 올린 것에 불과했다. 초기에 이 뮤직비디오를 본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즉 유튜브에 올라간 이 동영상은 수용자들의 자발적 홍보 덕분에 급속히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96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미국의 배우 겸 가수인 티페인(T-Pain)이 자신의 트위터에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공유하며 주목받았는가하면, 미국의 인기가수 저스틴 비버(Justin D. Bieber)를 발굴한 스쿠터 브라운(Scooter Braun)이 뮤직비디오를 트윗하면서 대중매체들이 관심을 갖고 보도하기 시작했다.<sup>3)</sup> 톱 크루즈와 휘트니 휴스턴 같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강남스타일을 본 소감을 올리는 일은 이 스타들을 좋아하는 수많은 팬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고 뮤직비디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원동력이었다.

사이의 강남 스타일이 일으킨 사회현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변화에 새로운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의식과 행동에 어떤 변화를 생성시켰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 '강남 스타일'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트윗은 스마트폰이라는 모바일 문화가 만들어낸 소통의 양식이며, 뮤직 비디오 '강남 스타일'을 단지 수동적으로 듣고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재창조하는 '커버댄스(coverdance)'와 '플래시몹(flash mob)'을 통해 유튜브에 올리고 즐기는 참여적인 문화의식은 모두 새로운 미디어 세상이 만들어낸 결과들인 것이다.

2012년 8월 21일을 시점으로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돌파했다.<sup>4)</sup> 이같은 숫자는 스마트폰 가입자 2천만 명을 넘어선지 불과 10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에 달성한 놀라운 기록이

1) '로페즈도 제쳤다'...강남스타일' 유튜브 조회수 역대 '2위' 등극, 스포츠서울닷컴, 2012.11.2, <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1100647.htm>

2) '강남스타일' 사이가 주시 시장도 흔들었다! 'B급 문화의 대반란?', 스포츠조선, 2012. 8.14,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208150100125640010519&servicedate=20120814>

3) '사이' 강남스타일에 '티페인도 빠졌다' 인기 어디까지?, 한국일보, 2012. 8.3, [http://reviewstar.hankooki.com/Article/ArticleView.php?WEB\\_GSN0=10055030](http://reviewstar.hankooki.com/Article/ArticleView.php?WEB_GSN0=10055030)

4) '오늘 스마트폰 가입자 3천만 명 돌파할 듯', 연합뉴스 2012년 8월 21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20/0200000000AKR20120820185100017.HTML?did=1179m>

다. 2009년 11월 국내 처음으로 아이폰이 도입된 이후로 스마트폰이 1천만 명을 돌파하는데 걸린 시간이 1년 4개월임을 생각할 때 스마트폰이 한국사회를 장악하는데 걸린 시간은 채 3년이 되지 않으며 그 속도 또한 대단히 빠르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SNS시대를 활짝 열어버린 스마트폰을 휴대폰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스마트폰이 란 휴대폰의 기능을 강화하고 외형을 새롭게 디자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는다면 앞으로 전개 될 새로운 미디어 사회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새로운 세대들을 교육하는데 적절한 지식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을 의미하며, 미디어가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인간이 바뀔 수 있다는 마셜 맥루한 식의 주장은 지금 당장 깊이 생각해 야할 커다란 도전 과제이기도 하다.

일반 휴대폰과 다른 스마트폰의 특성은 세 가지에 의해 이루어진다.<sup>5)</sup> 첫째는 일반 컴퓨터와 같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운영체제(OS)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이 운영체제 위에서 실행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인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Software)을 쉽게 올리고 또한 쉽게 받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일이고, 마지막으로 무선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어쩌면 우마차시대를 끝낸 자동차의 발명과 같이 인간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일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먹고 입고 그것을 뒀고 살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모든 일들을 스마트폰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이 빠르고 널리 한국사회에 보급된 사실에 대해서 경제적 관점<sup>6)</sup> 혹은 정치적 활용에만<sup>7)</sup> 관심이 있을 뿐 앞으로 스마트폰이 주도하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거나 기술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변화된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미비한 상태다. 가톨릭이나 교회마다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이들의 분신과도 같은 스마트폰이 이루어낸 인간의 의식과 행동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다는 사실은 한국교회가 미래에 대한 준비에 소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 'SNS사회와 교회의 미래'는 스마트폰이 새롭게 형성한 사회에서 태어나 성장한 세대가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룸으로써 교회가 SNS사회를 어떻게 준비하며 미래를 맞으면 좋을지를 다룰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가 새로운 사회와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본래 테크놀로지 결정론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글 또한 테크놀로지 결정론자로 분류되는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의 미디어의 변화에 따른 역사관에 근거해서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폰 사회와 그것이 만들어낸 SNS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세대의 특징을 연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신세대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마트폰 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세대론이 새로운 미디어와의 어떻게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미디어 테크놀로지

가 만드는 새로운 인간상에 대한 탐구가 보다 깊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미디어가 만들어낸 인간과 사회에 대해 맹목적인 긍정을 하기 보다는 성경적 시각에서 판단함으로써 교회가 스마트폰 세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방법론적인 제안을 시도할 것이다.

## 본론

### II. 네트워크 사회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나카다 히데오와 다카하시 히로시가 만든 영화 '링(Ring)'은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리메이크할 만큼 큰 주목을 끌었던 대표적인 일본의 공포영화다. 역올하게 죽은 소녀 사다코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1주일 안에 죽는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여주인공은 이 비디오테이프를 본 아들을 살리기 위한 결사적인 모성을 보여주었다. 이 비디오테이프 속에는 우물에서 기어 나오는 귀신의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 TV모니터 밖으로 흐느적거리며 현실의 세계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관객이 받았던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한 소녀가 역올하게 죽어 우물 속에 방치되었다는 원혼의 아우보다도 더 끔찍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는 젊은 관객들에게 비디오테이프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미디어였고, 귀신과 원한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가 단지 비디오테이프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이 전염될 수 있다는 독특한 설정에 몸을 떨었던 것이다.

시미즈 다카시 감독의 '주온(呪怨)' 시리즈 역시 영화 '링' 시리즈처럼 끔찍한 전염성을 동반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집주인이 원한을 품고 숨진 집을 매개체로 이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목숨을 잃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역시 '링' 처럼 검은고양이를 끌어안고 2층 벽장에 갇혀있는 소년의 등장이란 점에서 어린 희생자를 설정시키고, 원한을 갖게된 주인공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비디오를 보거나 집을 다녀갔다는 단순한 접촉 내지 접촉에 의해 죽음이 감염된다는 무차별적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링'과 '주온'의 다른 점이란 다만 전염의 매체역할이 비디오 테이프에서 집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링〉에 이어서 개봉한 '착신아리(着信アリ)' 시리즈에 가면 이제 일본귀신영화의 코드는 분명해진 다. 첫째는 항상 사람들이 접하는 일상적 매개체 즉 미디어를 통해 죽음이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으며, 둘째는 죽음의 전염이 그 매개체에 접속된 사람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의 SNS 사회의 특성과도 연결된다는 점이다. 미이케 다카시 감독의 '착신아리'는 휴대폰을 통해 죽음의 메시지를 미리 전달받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의 주인들이 똑 같은 죽음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불특정다수를 향한 죽음의 공포가 휴대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스며들게 되는 매우 독특한 영화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한마디로 현대 전자미디어가 가장 발달한 사회에서 느끼는 잠재된 공포를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하다. 가똥녀 사건을 비롯해서, '신상털기'와, '타진요 사건' 등은 항상 손쉽게 정보를 포착하고 전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시대가 낳은 1인 미디어 권력의 가공할 위력을 보여주었다. 정보통신이 결합된 디지털의 특성상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중의 이목을 끄는 정보들은 끊임없는 복사를 통해 확대 재생산 되며, 진실이 밝혀졌어도 인터넷에서 그 오류는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떠다닐 수 있다. 우리는 영화 '링'에서 귀신 사다코가 TV모니터 밖으로 기어 나오는 이미지의 상징성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미디어속에 머물러 있었던 정보들이 현실 세계로 나아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실제의 삶을 봉기시켜버릴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과 SNS의 위력에 대한 판단은 긍정과 부정 모두 존재한다. 2011년 2월 이집트 무바라크 대

5)두산세계대백과사전 엔사이버 www.encyber.com

6) 한국연료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의 대부분을 경제적 관점에 치중하고 있다. 삼성과 LG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세계에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보이는가 하는 점은 마치 올림픽 메달수 경쟁 보도만큼이 언론의 큰 관심영역이다. 삼성전자가 3분기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5천630만 대 판매하면서 판매량 1위자리를 지켰다고 시장조사기관 IDC가 밝혔다. YTN은 최근 인터넷뉴스보도를 통해 삼성전자가 3분기에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23.7%를 차지하고 노키아가 18.7%로 뒤를 이었고, 애플은 15%로 3위, 그리고 LG전자가 4위를 이었다고 크게 보도한 바 있다.('삼성 스마트폰, 3분기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연합뉴스, 2012년 10월 26일)

http://www.ytn.co.kr/\_ln/0102\_201210261357268343

7)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자들은 경쟁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지지를 촉구했다. 스마트폰 가입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카카오 플러스'의 경우 선거법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자메시지 선거 운동은 발송 횟수나 내용 등에서 선거법의 규제를 받지만, 카카오톡은 전자우편으로 분류돼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대선 후보 카카오톡으로 모티즌과 소통', 전자신문 2012년 10.23).

http://www.etnews.com/news/contents/internet/2665218\_1488.html

통력의 30년 독재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 SNS 덕분이었다. 기존의 제도적인 인물들이 독재정치를 옹호하거나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이집트의 군중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대규모 정치 시위를 촉발한 일등 공신으로 페이스북을 꼽은 것이다.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이집트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모은 끝에 행동으로 나설 수 있었다.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의 붕괴에 영향을 준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 역시 SNS가 일으킨 소통과 정보의 혁명에 기인한다. 2010년에서 2011년 까지 계속된 튀니지 민중들의 반(反)정부 투쟁에 불길을 당긴 것은 부패한 경찰의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기위해 분신자살한 청년의 죽음이었지만,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알리고 시민들을 거리의 혁명가로 나서게 만든 것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그리고 트위터였다. 튀니지 전역으로 확산된 시민들의 혁명으로 제인 엘아비디네 벤 알리 대통령이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함으로써 24년간 계속된 튀니지의 독재정권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

소셜 미디어의 발달이 가져 온 참여, 공유, 개방의 가치가 인간 의식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III. 세대론의 중심, 미디어<sup>8)</sup>

1990년대 초부터 일기 시작한 신세대론<sup>9)</sup>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문화를 향유하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며 발전해왔다. 88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정부는 세계를 향해 개방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sup>10)</sup>,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발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은 문화를 향유할 만한 경제적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동반하며 1980년 대 이전과는 다른 문화풍속도를 생성시키기 시작했다. “십대들의 대통령”이라 불리며 랩과 힙합, 록을 넘나들며 음악으로 가요계를 평정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은 신세대 문화가 기성세대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 문화적 사건이었다. 기성세대가 발라드와 트로트 가요를 즐겼던 반면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에 열광하는 세대는 개방적 세계관을 보여주며 서구의 젊은이들과 유사한 문화소비 형태를 보여주었다. 자신의 좋아하는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사회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것은 당시 기성세대들에게는 자신의 세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인간의 출현을 목격하는 일과 다름없었다.

매스컴들은 사회전문가들을 내세워 신세대 분석에 나섰다 서구의 기성세대와 다른 이질적인 특징을 보이며 마땅하게 정의할 용어가 없다는 뜻으로 사용한 ‘X세대’<sup>11)</sup>는 신세대를 용어로 정의내리기 시작한 첫 출발점이 되었다. 한국사회의 문화소비 주체로 등장한 신세대를 이해하고 이들을 규정지으려는 시도는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이것은 그만큼 한국의 사회문화가 지난 20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왔으며, 그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한국인이 성장해왔음을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

가장 대표적인 세대론의 중심에는 W세대론과 N세대론이 있다.

8) 이 장을 포함해서 내용의 일부는 2012년 11월 3일에 발표된 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인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세대 진단 및 과제’의 내용을 수정, 포함하고 있다.

9) ‘신세대’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석은 소장파 문화연구가들로 이루어진 현실문화연구회에서 1992년에 발간한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로 비롯되었다. 이때올로지 중심으로 활동한 운동권들의 엄숙주의와 금욕주의를 강요하는 자세를 비판하고 개인의 문화취향을 존중하는 전향적인 시각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10) 대한민국 정부는 1989년 1월 1일자로 해외여행자유화 조치를 발표했다. 그 전까지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외교관이거나 항공승무원, 대기업상사원 등 극히 소수의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었다.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이후 대학생들 사이에서 배낭여행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11) ‘X세대’는 1971년에서 1984년 사이에 출생한 연령층을 말하는 것으로 캐나다의 대중 작가 터글러스 쿠퍼랜드(1961~)가 1991년 출간한 데뷔작의 제목에서 유래한다. 이들은 베이비붐세대와는 달리 성(性)에 대해서 차별적 가치관을 두지 않고 사회공통의 문제보다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방법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동아일보사편집부(2004), 『현대사사용어사전』, 동아일보사:서울

W세대(World Cup Generation)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붉은악마 응원단을 앞세워 거리응원에 나선 젊은이들의 모습으로부터 신선한 충격을 받아 탄생한 신세대론이다. W세대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대로서 인식될 수 있는 이유는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W세대는 남북대치상황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레드 콤플렉스 탈피했고, 길거리에 나선 군중은 당연히 시위대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거부했는가 하면 태극기를 자기표현의 도구로서 패션에 활용함으로써 엄숙주의를 타파하는 등<sup>12)</sup> 기성세대가 과거 불편해했을 법한 일들을 개성있는 새로운 문화로 승화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인주의성향에 빠져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신세대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공동체를 이루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표현하는 세대로서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인의 자신감으로 무장한 개방적 세대의 특징을 보여주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N세대(Net Generation)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해서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디지털 문명 세대를 말한다.<sup>13)</sup>

1995년부터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어 한국인의 일상적인 삶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한 만큼 N세대들은 컴퓨터의 마우스를 광선검 처럼 사용하고, 휴대폰을 바지주머니에 넣고도 문자메시지를 자유롭게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을 갖췄다. 동네마다 PC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게임중독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N세대가 등장한 이후부터다.

그러나 N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능동적 참여성과 자기개방성으로 요약된다. 기성세대와 달리 인터넷의 쌍방향적 소통방식이 몸에 익은 세대인 까닭에 권위주의적인 지시와 명령 같은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에는 거부감을 갖지만,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주고받는 쌍방향적이며 평등적인 소통방식에는 대단히 능숙하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사이버상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손쉽게 대화하고 UCC로 자신을 드러내는 개방성과 모바일 기술이 인터넷과 연동하며 손쉬워진 참여문화의 속성은 새로운 세대의 특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일찍이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인 ‘골목대장 마빡이’로부터 최근 싸이의 ‘강남스타일 페러디’가 붐몰을 이루고 있는 현실에 이르러까지 N세대에게 UCC는 예전과는 생산과 소비의 일방향적 양태가 아닌 상호 교통하는 쌍방향적 소통과 생산구조를 누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일이다. 즉 과거에는 방송사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은 단지 소비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이제는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담당할 만큼 제작자로서의 기능도 인터넷 유저들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문화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하는 프로슈머(producer+consumer)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름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항상 미디어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세대가 2002년 월드컵의 거리응원을 계기로 탄생했다고 하지만, 모여서 응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형전광판으로 축구중계가 가능했었기 때문이었다. 시내 중심가 건물 옥상마다 자리 잡고 있는 대형전광판은 평소 상업광고를 내보내는 용도로 쓰였지만, 월드컵 때는 TV중계를 시청하는 모니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조직적인 거리응원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대형 모니터를 탑재한 트럭들이 인방의 TV역할을 하곤 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탄생시킨 거리응원문화는 이제 전세게인들에게 널리 퍼져서 활용되고 있고, 사람을 모이게 하고 응원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중심에는 위성통신기술을 접목한 대형시청각미디어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W세대의 특징을 부여받고 성장한 디지털 N세대 역시 거리 응원에 나서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는 면에서 이전과 다르다. 현실의 공간에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도 SNS를 적극 활용하여 응원을 계획하고 모이며 전략적인 응원문화를 생성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2010 남아공월드컵을 맞아 한국 대표팀 응원을 위해 출시된 응원 스마트폰 앱(App)은 스마트폰이 거리응원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보여준다. 예를들어 ‘필승! 코리아’라는 이름의 앱은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대~한민국’ 응원 소리가 울려 나온다. 특히 ‘나의 응원’ 기능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로 응원

12) “W세대, 고정관념은 가라”, 시사뉴스 2002.07.22,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881>

13) 동아일보사편집부(2004), 『현대사사용어사전』, 동아일보사:서울

구호를 녹음에서 쓸 수 있어서 목이 쉬도록 응원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이 내 대신 힘차게 응원해준다. 거기다 태극기 이미지와 야광봉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서 한밤중에 거리응원에 나서는데 이 보다 좋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스마트폰의 응원도구화가 보여주는 스마트폰의 끊임없는 변신과 다양한 활용도가 아니라, 스마트폰처럼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서서 어느 세계, 어느 누구와도 쉽게 친숙해질 수 있는 개방된 인간관계를 이루는 새로운 세대의 의식을 발견하게 된 일이다.

#### IV. 스마트폰 세대의 탄생

캐나다의 미디어 사상가인 마셜 맥루한은 미디어가 인간의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미디어를 인간의 확장(extension of man)이라고 생각했다.<sup>14)</sup> 즉 인간은 자신의 감각기관의 제한적인 기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미디어들을 개발해 왔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전화기는 가까운 사람들의 목소리밖에 듣지 못하는 귀의 기능을 확장시켜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까지 듣기 위한 수단이고, 텔레비전은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눈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인간이 발명한 미디어가 사실은 인간의 삶을 돕는 효과적인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움직임이고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미디어는 메시지(the medium is the message)' 이며 동시에 '미디어는 마사지(the medium is the massage)' 라는 주장을 했었다. '미디어는 메시지'란 맥루한의 명제는 미디어의 내용이란 그것을 전달하는 미디어의 기술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음을 말한다.<sup>15)</sup> 즉 미디어는 그것이 쏟아내는 내용물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앞서서 미디어의 특징이 고스란히 그것을 수용하는 인간의 삶을 주물러서 해당되는 미디어의 특징을 드러나게 만든다는 것이다.

책과 신문이라는 인쇄미디어가 중심인 시대에는 이성적이며 사고하는 인간 유형을 낳았다면, 영화와 텔레비전 같은 영상미디어의 시대에는 보다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능력이 발달한 인간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이러한 그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오늘날의 새로운 스마트폰 세대들에게 '멀티미디어적 인간'이란 새로운 명칭을 붙이고 그들의 삶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세대들이 애용하는 미디어는 그들의 부모세대가 사용하던 '모노미디어(monomedia)'와는 전혀 다른 '멀티미디어(multimedia)'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멀티미디어'의 사전적 의미는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정보를 문자·사진·동영상·소리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전달하는 다중매체(多重媒體)를 일컫는 것이지만, 이 안에는 여러 기능들이 한 곳에 모아져있을 뿐 만 아니라 이 기능들이 동시에 또는 연차적으로 계속 발휘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 라디오나 TV는 오직 라디오나 TV로서의 단선기능밖에 갖고 있지 못했지만, 오늘날의 컴퓨터는 라디오와 TV의 기능을 포함해서 신문과 잡지, 우편과 통신, 전축과 영화 등의 전반적인 미디어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 있을뿐 만 아니라 음악을 들으며 동시에 채팅을 하는 등의 동시다발적 행위를 가능케 만들고 있다.

이것은 전화와 스마트폰과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전화는 전형적인 모노미디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스마트폰은 멀티미디어의 성격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즉 일반 전화기는 절대

적으로 전화를 걸고 받는 한가지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화기능 외에 채팅과 쇼핑에서 게임과 영화감상, 정보의 획득과 대금 결제 등의 다양한 목적을 이루는데 편리하게 사용한다. 얼핏 보자면 스마트폰이란 단지 전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세대 간에서 이해되어지는 차이는 하늘과 땅 만크이나 간격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성세대에게 스마트폰은 개방된 휴대폰으로 단지 움직이면서 받을 수 있는 전화(기계)에 불과하지만 신세대들에게는 또 다른 자기 자신화한 존재(본신)에 가까운 것이다. 즉 스마트폰은 자신의 존재를 연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맥루한의 미디어 이해가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신세대들로서는 자신의 생존을 확인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사용하는 손발과 감각기관의 역할들의 일부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이 역할의 비중은 의심할 나위 없이 점차 커갈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어적 특징이란 인간 몸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다기능적 요소를 본 따 만든 것이지만, 그것은 어느새 우리 행동양식을 또한 멀티미디어화 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마셜 맥루한의 기술결정론은 그의 미디어 역사관을 통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변화를 인류 역사의 원동력으로 이해했다. 인류의 역사는 중심된 소통의 도구로 구분될 수 있는데 ①문자가 탄생하기 이전의 구어문화 ②고대 그리스의 호머 이후 2000년 간 지속된 문자시대 ③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이 발명된 1500년에서 1900년까지의 인쇄시대, 그리고 ④1900년에서 지금까지의 전자 미디어 시대 등의 네 단계로 구분했다.<sup>16)</sup>

맥루한의 미디어 역사관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미디어가 있었다. 우리가 과거를 알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미디어 덕택이다. 이러한 미디어의 발전은 미디어 자체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종교 영역을 포함한 사회전반과 인간 의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우리가 유아들의 양육과 그들의 미래를 논할 때는 반드시 그 시대의 중심 미디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왜냐하면 미디어의 본질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까닭에 어떤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의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디어가 무엇을 전달하는가 하는 내용적인 면 이전에 미디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식 자체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명제는 스마트폰 사회가 만들어낸 인간들의 모습 안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스마트폰과 SNS사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의식구조, 즉 새로운 미디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을 우리는 'PANTS 증후군'<sup>17)</sup>에서 찾을 수 있다.

'PANTS'란 Personal(개인화), Amusement(향락), Natural(자연추구), Turns-Border(벽이 없음), Service(서비스 중시)의 약자들을 일컫는 말의 앞 글자를 따서 사용하는 조어지만, 이를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이 만들어 낸 SNS사회에 접목 시킬 때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데도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 〈표1〉 PANTS증후군과 미디어 관련성

16) 강준만(1994), 앞의 책, 125쪽

17) 신세대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PANTS증후군'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부분하다.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을 쓴 돈 랩스콧을 용어의 시원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의 저서에서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대신 시인 하용백이 1997년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많은 신세대를 논하는 사람들이 이를 재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섭, 『신세대 문학, 그리고 새로운 글쓰기』, 오마이뉴스, 2000. 4.2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078](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078)

기독교계에서 'PANTS증후군'을 언급한 기록으로는 이성희 목사의 책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안에 수록된 글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 수 있다. 이 책은 1997년에 초판이 인쇄되었고, 머리말을 쓴 날자가 1995년으로 되어 있어서 돈 랩스콧의 책(1997)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성희(1997),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서울:대한기독교서회, 92-93쪽 참조.

14) 1964년 처음 출간된 맥루한의 책의 원제목은 'Understanding Media: Extensions of Man'으로 그의 미디어 사상의 출발점이 바로 '미디어를 인간의 확장'이라고 보는 시각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문학적 비유로 받아들일 때 가장 잘 이해된다는 점에서 출간 당시부터 식자층의 논란을 일으켰다. Haper's의 편집장을 지낸 미국의 저명한 비평가인 루이스 레퍼의 맥루한의 사상을 이해하는 글이 민음사간 한국판 번역서에 서문으로 실렸다. (Lapham, H. Lewis, '영원한 현재', 『미디어의 이해』, 김성기, 이한우 역, 민음사, 2002)

15) 강준만(1994), 『커뮤니케이션 사상가들』, 서울:한나래, 126쪽



신세대 특징	미디어 연관성	교회의 대안
Personal(개인주의적)	개인주의 및 신부족주의 경향	공동체교육 강화
Amusement(오락지향적)	재미중심가치	재미와 의미의 공유
Natural(자연적,충동적)	광고와 자극문화	느림과 기다림의 문화
Trans-border(모호한 정체성)	크로스오버문화	창조론과 질서의 세계
Self loving(강한 자기에)	자기만족을 추구	아웃 사랑과 자기 희생

〈표1〉은 PANTS중후군이라 불리는 신세대의 특징이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와 어떻게 관련 지어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교회공동체 안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 1. Personal-개인주의적 경향과 신부족주의 경향의 공존

휴대폰은 전화기의 연장선에서 보자면 철저한 개인미디어이다. 우리는 자신의 휴대폰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다. 신세대들을 포함한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홀로 마주 대하며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하철과 쇼펜하우어의 수 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스마트폰을 든 사람은 여전히 혼자일 수밖에 없다. 인쇄매체가 서구사회에 끼친 개인주의문화는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일면 가속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거실에 함께 앉아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모두 자신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풍경은 가족공동체란 말을 무색케 만든다.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문화와의 경험이 적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어려서부터 휴대폰과 휴대폰 보다 더욱 다양한 놀이문화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노는 아이들이 기성세대 보다도 개인주의적 성향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으면서도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서 만큼은 나름대로의 응집력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전통적인 의미의 공동체, 즉 혈연중심의 종족이나 부족의 공동체성은 사라지고 있지만 대신 취향이나 삶의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들의 대중적 결집력이 순간순간 돋보이는 '신부족주의(Neo-Tribalism)'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질베르 뒤랑(Gilbert Durand)의 제자이자 현재 파리5대학 사회학과 교수인 미셸 마페졸리(M. Maffesoli)는 현시대가 거대담론이 상실되는 시대이면서도 어느 순간 명백히 대중적인 결집력을 드러내는 특징을 '신부족주의'란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한 적이 있다.<sup>18)</sup> 팬카페를 통해 동일한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교류한다던지, 프야구의 관중석에서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는 응집력은 바로 인터넷 네트워크가 만들어 낸 새로운 신부족주의인 것이다.

### 2. Amusement- 재미 중심적 가치관 소유

스마트폰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놀이를 통한 재미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뜻이 맞는 익명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소통에서 오는 즐거움도 있지만 음악과 카메라, 인터넷 게임 등을 통한 놀이문화를 일상화, 편리화 시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즐거움을 제공하는 오락의 기능이 일과 학습, 사회관계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 항상 오락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휴대폰을 몸에서 떼놓지 못하는 세대에게 학습은 재미있어야 하고, 좋은 사람이란 재미있는 사람이며, 즐겁지 않은 일은 당장 그만두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상이다.

18) Maffesoli, Michel (1996), The Time of the Tribes: The Decline of Individualism in Mass Society. London: Sage

따라서 신세대가 추구하는 가치란 오직 재미있는 것은 좋은 것이며, 재미없는 것은 철저히 외면될 뿐이다. 이것은 자칫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게임물의 선정성이나 폭력성, 채팅 중에 발생하는 욕설과 인신공격 등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재미의 논리에 빠져 윤리성을 자칫 상실할 수 있는 것이다. 재미가 없더라도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귀 기울이는 자세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인 것이다.

### 3. Natural- 자연성 증가와 인내력의 상실

오늘날 스마트폰은 터치 하나로 원하는 사람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선(線)이며 창(窓)이다. 단축 버튼 하나로 사람과 연결이 되고 나에게 관심있는 모든 사람과 실시간으로 동시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요술램프 같은 동화 속 마법의 도구와도 같다. 공중전화 앞에서 줄을 서다가 사용자의 통화가 길어지는 바람에 시비가 붙어서 싸웠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사회 어디서도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원하는 즉시 어디서나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와 현실은 그것을 사용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두 가지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첫째는 자연성의 증가다. 여기서 자연성이란 타인이나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본래의 모습이나 성향을 감추지 않고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와 관습에 매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강하다. 성실과 인내심과 같은 과거에 칭송 받던 덕목들이 신세대들의 자연적인 욕망 앞에서 별다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기다린다는 것에 대한 경험과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세대로서의 특성도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손 끝으로 편지를 쓰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사진을 찍고 현상소에 가서 필름을 맡기고 인화되기를 기다리는 과거의 문화는 사라져 버렸다. 약속 시간에 늦어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약속에 늦을 경우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도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다리는 입장에서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

과연 앞으로 스마트폰이 더욱 발전한 유티키퍼스 세상에서 기다림이란 것이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터넷과 휴대폰을 자유자재로 쓰고 있는 한국의 10대와 20대 신세대들의 자살률이 OECD국가 가운데 상위에 올라있는 것은 휴대폰과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의 미디어 상황과 무관치 않다. 휴대폰과 리모콘의 버튼을 누르고 컴퓨터 마우스 클릭이 곧 생활인 삶 속에서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담스러우면 인생을 리셋(reset)하고 TV채널 바꾸듯 목숨을 버리는 일이 손쉽게 인식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 4. Trans-border -크로스오버 혹은 탈경계화된 경향

오늘날 스마트폰을 통신기기로만 인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사실 무엇이냐 딱 정의내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사용할 수 있다. 통신기기로 동시에 오락이요 사무기기로 동시에 응원도구이기도 하다. 스마트폰의 정체를 말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스마트폰에서는 전화와 카메라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적인 편지와 공적인 발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단순한 기능의 융합은 사회문화에 대한 사고와 행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크로스오버의 문화는 이를 대표한다.

크로스오버란 서로 다른 영역을 넘나드는 것을 말한다. 경계가 무너진 것이다. 음악의 장르가 무너지듯이 신세대들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에도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놀이와 학습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가 하면,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의 명확한 구분과 역할이란 개념도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다. 미디어 전문가들이 예견하듯이 가까운 미래는 영화 '매트릭스'나 '토탈 리콜' 처럼 현실과 가상의 경계구분도 모호해질 것이다. 스마트폰은 포스트모던적인 문화와 어울리며 모든 것과 아무

것도 아닌 것 사이에서 새로운 신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sup>19)</sup>

#### 5. Self loving- 자기만족적이며 자기중심적 사랑

스마트폰은 자기만족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향이 짙다. 내가 원한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연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타인의 전화나 메시지를 받는 일에서는 태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상대방이 누군지 불문명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전화일 경우 우리는 쉽게 거부할 수 있다. 할 수 없이 전화를 받거나 어쩔 수 없이 통화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항상 나 중심으로 스마트폰은 사용된다.

게임은 저주기 위해 하지 않는다. 낮은 점수나 레벨에 만족을 얻으며 게임을 하는 사람은 없다. 자신이 이기고 만족할 때 까지 게임하기를 쉬지 않는다.

인증샷을 찍고 자신의 모습을 수시로 찍는 셀카문화는 자신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디지털시대의 표현방식인 셈이다.

맥루한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디지털 미디어가 새로운 세상과 인간을 만드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까닭이다. 스마트폰을 장난감처럼 유아들 손에 쥐어주는 세상에서 미래의 주역들이 보여줄 특성들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대안이 필요한 것도 미디어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임을 아는 까닭이다.

## V. 새로운 자세를 요구받는 미래교회

지구상에 나타난 미디어는 새로운 것이 출현했다고 해서 묶은 것들이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전자영상매체가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필사본의 문화가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다.<sup>20)</sup> 디지털 미디어가 움직이는 사회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아날로그의 특별함은 교회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수의 책 '디지털'은 아날로그문화와 디지털문화 가운데 하나를 강조하는 극단성을 배제하고 세대간의 통합과 진정한 인간이 숨 쉬는 네트워크로 가는 길을 제시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미 2천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디지털 혁명 가운데서 미래로 가는 길에 방황하는 현대인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성육신 사상이 야말로 구속사에 나타난 디지털의 실천인 셈이다.

하나님은 우주 어디에나 계신 만유의 주시다. 마치 시공의 초월해서 소통과 활동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특성은 '유비쿼터스' 사회의 실현을 통해서 보다 발전될 것이다. 그런데 이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라틴어 'ubique'를 어원으로 하는 영어의 형용사로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편재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썼던 말이다. 즉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금의 스마트 시대는 유비쿼터스적인 의미의 실천인 셈이다.<sup>21)</sup>

19)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교회에 출석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은 신앙의 모든 것이라 부를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중계되는 예배 실황은 모바일문화가 전개되면서 주일성수의 의미를 바꾸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 과거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농담 삼아 쓴 아무것도 아닌 글 하나가 현실에서 누군가에게는 정치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0) 개인교에서 나타나는 '정경필사문화'는 노트에 친구와 성경 말씀을 필사함으로써 신앙성장을 도모하려는 신앙행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21) SNS기술에 대한 기독교적 안목이 필요하다. SNS는 없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존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유용성과 위험성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김영환 외, 1999)245, 247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성육신의 의미란 바로 아날로그의 가치를 새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사는 세상을 향해 정보나 신호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일이야말로 아날로그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성육신의 아날로그적 특성은 앞에서 언급한 신세대와 미디어와의 다섯 가지 관련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몸수 취하신 행동들이야말로 디지털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대안으로 실행되어야 할 교육적 지침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첫째는 제자양육과 더불어 공동체를 형성케 하신 일이다. 현대 교회는 개인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지체를 이루는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교회의 본래 모습이다.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 사이버상의 인간관계의 가치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사회 속에서 깊이있고 두터운 사귀의 사회적 관계 가치를 조성해야하는 일의 중요성을 뜻한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양한 사역과 더불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속의 의미를 가르쳤다. 성만찬은 아날로그적 행위였으며 그것은 제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으며,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믿고 따르게 하는 소통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sup>22)</sup> 의미있는 아날로그적 행동은 디지털 세대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3년이었지만 30년 간의 삶을 통해 준비하며 기다렸다. 모든 것은 단 번에 이루는 것이 가능했지만, 참고 견디며 인내하였다. 예수의 성품을 본받기 원하는 현대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제자들 역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기도하고 기다림의 훈련은 디지털 문명 가운데서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역이다.

넷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있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질서 가운데 혼돈은 물러가버리고 만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와 질서를 결코 부인하신 적이 없다.

다섯째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기 희생은 말로만 하지 않고 몸소 실천한 사항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정보와 되어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지만, 그 말씀은 아날로그적 실천을 요구한다.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를 정보화 하는 디지털 작업과 예수님의 삶을 사는 아날로그적 행동 모두 그리스도인 디지털로적 삶에서 필요한 일들인 것이다.

## 결론

## VI. 움직이는 교회가 희망이다

성경적으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성도를 뜻한다.<sup>23)</sup> 오늘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생활방식을 보면 예배당 건물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단 몇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움직인다.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움직이는 교회(성도들)가 성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하며 살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사람은 혼자가 아님을 깨달을 수

22) 김진원 목사(영락교회는 "가상현실의 도전과 교회의 준비"에서 교회의 대응전략으로 (1)성례전의 강화 (2)공동체식의 강조 (3)새로운 신학의 정립 (4)적극 활용 (5)인재 양성 (6)가상현실 저작물의 생산과 보급 (7)신학 교육을 들었다.(김영환 외, 1999)

23)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전6:19)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아닌 교회 공동체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성도로 이해하는 것이 교회론의 시작이다. 이승구 (2012),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나눔과 섬김, 57-61쪽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은 몇시간 씩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그렇다고 친밀함을 느끼거나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sup>24)</sup> 이 점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미래가 요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공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움직이는 공동체, 거룩한 모바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디즈니의 만화영화로 더욱 유명한 '아기 돼지 삼형제' 속에 담긴 문화의식을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엄마돼지의 권유에 따라 집을 나와 독립하려는 세 마리의 아기돼지들이 각자 자신이 살 집을 짓게 된다. 놀기만 좋아하는 첫째 돼지는 근처에 있는 짚을 모아서 금방 집을 지을 수 있었다. 둘째 돼지 역시 나뭇가지를 주워서 서둘러 집을 짓고는 첫째 돼지와 어울려 춤을 추며 놀았다. 그러나 셋째 돼지는 행들이 노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벽돌로 공을 들여 집을 짓는 중이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었지만 셋째 돼지의 집은 튼튼해졌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늑대가 나타나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의 집을 입으로 불어 날려 보낼 수 있었지만, 셋째 돼지만큼은 실패하고 굴뚝으로 들어가려다 오�히려 펄펄 끓는 솥가마 속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동화책을 읽은 아이들은 당연히 셋째 돼지를 통해 인생의 교훈을 배우게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험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게으름을 피우며 놀기 좋아하다가는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개미와 베짚이' 식의 교훈도 얻을 수 있다. 그에 비해서 늑대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다 큰 돼지도 아닌 어린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 호시탐탐 주변을 맴돌고 있는 입으로 거센 바람을 불러일으켜 웬만한 집들은 모두 날려 보내는 늑대란 야생과 야만을 상징한다. 늑대가 벽돌집마저도 숨을 헐떡이며 입으로 계속 부는 것은 또한 무지함의 소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동화가 지닌 문화의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전형적인 농사를 짓거나 공장을 지어 열심히 무언가를 생산해 내는 농경사회 혹은 산업사회의 사회가 지닌 의식을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안착의 심리를 반영한다. 안정된 어딘가에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바람에도 거뜰히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적이지는 못하다. 창조는 만족과 안락함 가운데서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불만스럽고 불안한 것이 있어야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는 폐쇄적인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세 마리 아기돼지들은 늑대를 겪은 이후로 웬만해선 낯선 동물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이 없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아기돼지들이 집밖을 나서서 새로운 곳으로 모험을 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늑대의 이기적인 탐심마저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오늘날 정보화 시대 속에서 아기돼지와 늑대를 풀어놓는다면 늑대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늑대에게는 신속한 이동성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리적인 바른 선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겸비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말이다.

정보화 시대에는 산업시대의 미덕과 악덕을 뒤집어 생각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장점이 영원한 장점이 될 수 없고 단점 또한 제거해야할 부분이기보다는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으로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튼튼한 예배당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에 익숙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에서 우리가 이동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있다.

24) MIT에서 과학기술과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세리 터클은 SNS사회에서 외로워 지는 사람들의 존재를 파악했다. 커뮤니티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친밀함 속에 새로운 고독이 있고, 고독 속에 새로운 친구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적인 교회의 발상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Turkle, Sherry (2012), 『외로워지는 사람들』, Alone Together, 이은주 역, 서울:청림출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sup>25)</sup>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9:35)

성서학자들은 예수의 공생애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둘째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으며', 그리고 셋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치유의 사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두루 다니셨기' 때문이다. 예수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셨던 분이 아니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당시 유대인의 편견도 거부하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기 까지 하셨다.

예수 사역의 초점이 두루 다녔다는 것 자체에 맞춰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가 두루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경험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성경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은 '두루 다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고 있지 않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그리고 매스미디어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새로운 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법은 오직 걸어서 방문하고 들려주는 일인 만큼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면 '두루다니신 예수'는 바로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기 초한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sup>26)</sup>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하나는 특정 지역이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다는 점에서 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성(廣域性)이다. 예수 한 사람이 온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의 특징은 오늘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더 넓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 또한 스승인 예수처럼 그렇게 두루 다녔다는 사실이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눅9:6)

성경이 역사를 초월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점에서 '두루 다님'의 가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더욱 디지털 유목민 문화가 주목받고 있는 시대에 교회가 새로운 세대를 수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지식이 있다.

첫째는 유목문화란 근본적으로 개방형의 열린사회라는 사실이다. 광야나 초원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뜨뜻뜨뜻 만나는 여행객이나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는 정보는 필수적이다. 항상 새로운 환경을 대해야 하는 유목민들에게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풀이 있는지를 알아두어야만 한다. 또한 이동 중에 만난 새로운 집단과도 잘 어울릴 줄 알 필요가 있다. 나와 다르다고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항시 다른 사람들의 말과 문화에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열린 사고야말로 유목민 생활에는 꼭 필요했던 것이다. 성(城)을 쌓고 문을 걸어둔 채 살아가는 민족에게 문화의 보존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법이다.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서 오랑캐의 침입을 막아보려 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근까지도 중국문화의 폐쇄성만을 키워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로마는 길을 닦았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서구문명의 기초를 제공하며 지금까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의 한 축이 되었다는

25) 신약 성경에는 '두루 다니신' 예수의 행적을 언급하는 구절이 두 번 더 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막6:6)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4:23)

26) 1996년 11월, 대한민국 최초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의 이름은 뜻밖에도 두루넷(Thrunet 스루넷)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유목문화는 네트워크가 살아있는 시스템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유목 사회에서 혼자만 잘 살겠다는 유아독존식의 생존방법은 대단히 위험하다. 서로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연계체계가 있어야 한다. 중국이 만리장성의 폐쇄적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세계의 중심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전세계에 흩어진 화교들 간에 네트워크가 잘 구성된 까닭이다. 이는 유대인도 마찬가지였고 칭기스칸의 몽골제국 역시 다르지 않았다.

오늘날 언제 어디서든지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필요한 일들을 볼 수 있다는 SNS의 모바일 시대는 신유목민족적 삶의 또 다른 모습이다. SNS 사회의 현대인들의 손에는 양떼를 치는 지팡이 대신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을 뿐이다. 이들의 생존전략 역시 개방향의 열린사고와 다른 사람과 연계된 네트워크에 달려있다. 이들은 고정된 건물과 사무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다. 끝없이 새로운 희망과 행복의 초원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적용할 때가 온 듯하다.

참고문헌

강준만(1994), 『커뮤니케이션 사상가들』, 서울:한나레  
 \_\_\_\_\_(2004), 『대중매체의 이론과 사상』, 서울:개마고원  
 김교, 정연교(2006), 『백루언을 읽는다』, 서울:궁리  
 김성도(2008), 『호모 모빌리쿠스』, 서울:삼경경제연구소  
 김영환 외(1999), 『사이버문화와 기독교문화전략』, 서울:결단출판사  
 김재연(2010), 『소셜 웹이다』, 서울:네시간  
 김종래(2005), 『유목민 이야기』, 서울:칼럼들  
 김찬호(2008), 『휴대폰이 말한다: 모바일 통신의 문화인류학』,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송태현(2005), 『이미지와 상징』, 서울:라이트 하우스  
 양윤직(2011), 『TGF 스토리』,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유근원(2005), 『인터넷 게임, 우리 아이 해치는 끈질긴 유혹』, 서울:배영교육  
 이상호, 김선진(2011), 『디지털 미디어 스마트 혁명』, 서울:(주)엠에스미디어  
 이성희(1997),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서울:대한기독교서회  
 이승구(2012),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나눔과 꿈  
 이어령(2006), 『디지털그』, 서울:생각의 나무  
 최인식(1996), 『미래 교회와 미래 신학』, 서울:대한기독교서회  
 \_\_\_\_\_(2001), 『예수, 그리고 사이버세계』, 서울:대한기독교서회  
 최창섭(1993), 『교회커뮤니케이션』, 서울:성바오로출판사  
 황상민(2008), 『디지털 괴짜가 미래소비를 결정한다』, 서울:미래의 창  
 Babin, Pierre (1993), 『종교 커뮤니케이션의 세시대』, *The New Era in Religious communication*, 유영난 역, 왜관:분도출판사  
 \_\_\_\_\_(2000), 『디지털 시대의 종교』, *www.internet.God*, 이영숙 번역, 서울:한경PC라인(주)  
 Koch, Christoph (2010), 『아날로그로 살아보기』, *Ich bin dann mal offline*, 김정민 역, 서울:올리시즈  
 Maffesoli, Michel (1996), *The Time of the Tribes: The Decline of Individualism in Mass Society*, London: Sage.  
 McLuhan, Marshall (1997), 『미디어의 이해』, *Understanding Media*, 박정규 역,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McLuhan, Stephanie, Staines David 편저 (2007), 『매클루언의 이해: 그의 강연과 대답』, *Understanding Me: Lectures and Interviews*, 김정태 역,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Reynolds, Glenn (2008), 『다윗의 군대 세상을 정복하다』, *An Army of David*, 광미경 역, 서울:베이스캠프미디어(주)  
 Tapscott, Don (2009), 『디지털 네이티브』, *Grown Up Digital: How the Net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이진원 역, 서울:비즈니스북스  
 Turkle, Sherry (2012), 『외로워지는 사람들』, *Alone Together*, 이은주 역, 서울:청림출판

주제발표 2

SNS = Social + Network + Service?  
: SNS 현상에 대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들

김용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서론

새로운 매체(가령 영화, TV, 인터넷 등등)가 등장할 때 마다 기독교 공동체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여 왔다. 첫 번째는 그러한 매체가 가치를 폐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반응이다. TV, 영화, 음반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한 기독교계의 다양한 부정적 반응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 공동체는 그 매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사실 뉴미디어가 등장할 때 마다 그것들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집단 중 하나가 기독교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많은 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유럽에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그것으로 제일 먼저 인쇄했던 책들 중 하나는 42줄 성경이었다. 최근의 예로는 19세기 말부터 이어온 찰스 피니, 디엘 무디, 빌리 그래함, 제리 포웰 등 미국 부흥사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당시의 "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마케팅 기법들을 누구 보다 먼저 수용하여 전도 사업에 활용했다.

Social Network Service라고 불리는 사회연결망서비스에 대해서도 역시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공존하고 있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SNS의 폐해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것이고, 다른 한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전도나 조직 관리 등의 목적에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본 글에서는 우리가 SNS라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SNS라는 현상의 본질은 무엇인지, SNS라는 현상에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논해 보고자 한다.

Social network services란 무엇인가?

SNS는 (1) 네트워크화된 컴퓨터망을 기술적 토대로 삼아, (2) 이용자들의 사회관계망 속에서 (3) 스스로 혹은 함께 콘텐츠를 생산, 공유, 이용하는 것을 가능케하는 웹서비스의 하나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뉴스와, 정보, 오락적 콘텐츠 등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로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던 Web 1.0 시대에서 벗어나,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의 관계가 쌍방향적으로 바뀌게 되는 Web 2.0 시대를 대표하는 웹 서비스가 SNS인 것이다. 웹이라는 것 자체가 쌍방향적이고 분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웹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화될 기술적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초기의 웹서비스는 일방향적이고 수동적인 대중을 상징하고 운영되는 기존의 대중매체적 성격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이 되면서 웹이 원래부터 지니고 있던 쌍방향적 성격을 활성화시키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boyd & Ellison, 2007). 첫째는 자기 프로필을 작성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다. 두 번째는, 자기 친구 리스트를 공개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SNS 상에서는 ‘공개된 관계 전시’ (boyd, 2006)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SNS의 효시는 1998년 만들어진 Sixdegre.com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기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고, 자기 친구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는 첫번째 서비스였던 것이다. 김은미, 이동후, 임영호, 정일권(2011)은 SNS의 진화를 3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1기 (1999-2002)는 오프라인 인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인맥관리형 서비스가 주된 서비스였던 시기다. 한국의 아이러브스쿨과 미국의 클래스메이트가 이 시기의 대표적인 SNS였다고 할 수 있다. 2기 (2003-2007년)는 보다 개방적으로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본격적 의미의 사회연결망서비스가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시기이다.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싸이월드가 등장한 것이 이 때이다. 3기 (2007년 이후)는 트위터나 미투데이같이 마이크로블로그형 SNS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그런데 사실 “SNS적”인 현상이 1990년대 말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그 원시적인 형태는 훨씬 전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해 해서 그것의 사회경제적 이용 패턴이 정해지기 전에는 사회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사람들에 의해 그것들이 쓰였던 예가 많다. 그러한 예 중 하나가 아마추어 무선라디오통신 (HAM) 일 것이다. 20세기 초 라디오 기술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해야할지 아직 모를 때 라디오 스펙트럼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 사람들은 주로 미국 아이비 리그 학교를 다니고 있던 대학생들이었다(Douglas, 1987). 이들은 무선라디오 통신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고, 대화하며 원시적인 형태의 사회연결망서비스의 모습을 보였다. SNS적 현상의 원류는 20세기 초 훨씬 이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로마제국이 자랑하는 도로망은 군대이동, 물자교역, 사람들의 여행 등을 용이하게 하는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였다. 그런데 이러한 도로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개인적, 공적 메시지들과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전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망으로서도 역할을 했다. 사도바울은 로마의 도로를 따라 전도여행을 수행하고, 또 인편으로 자신의 서신을 로마 제국 곳곳의 교회에 보내곤 했다. 그의 편지들은 아주 원시적 형태의 SNS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편지는 한 사람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돌려가며 읽었을 것이다. 또 필사작업을 통해 복사본이 돌기도 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퍼다나르느” 혹은 “리트윗” 하는 속도는 매우 느렸다. 또 그의 편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서 (즉 오늘날 SNS의 프로필), 자기의 사회적 연결망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앞에서 언급했던 SNS의 특징, 프로필과 친구목록을 공개하는 것과 인맥상통하는 데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뉴스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재미나 휴식을 위해서일 것이다. 이러한 이용 동기가 SNS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매체 (가령 TV나 신문)와 비교했을 때 SNS만이 고유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동기도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전에도 뉴스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재미나 휴식을 위해서, 또 주위 사람들과 얘기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TV를 보고, 신문을 읽었기 때문이다. SNS가 다른 매체와 다른 점은 다양한 동기들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혼합된 형식으로 충족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추구나 오락 추구는 각각이 구별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늘 관계 형성과 유지라는 동기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관계 속에서 뉴스와 정보를 얻고, 관계 속에서 오락과 휴식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을 SNS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SNS=Social + Network + Service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성하는 세 단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현재 진행중인 새로운 매체 환경과 사회 환경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SNS의 본질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왜, 지금 “소셜” 일까?

2012년 현재 다양한 유형의 “소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필두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셜게임, 소셜TV, 소셜커머스, 소셜뉴스, 소셜컨텐츠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정보와 뉴스를 받기 보다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공유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의 경험”을 제공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라는 말은 1994년경부터 이미 벌써 쓰이기 시작했다. 웹이 갖고 있던 사회적 성격을 벌써부터 간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웹브라우저가 일반에게 도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터넷을 이용자의 참여, 공유, 관계 맺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소셜이라는 말이 미디어 환경을 규정하는 주요한 수식어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쌍방향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관계 맺기와 그 관계를 통한 협력과 공유의 욕구가 분출될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이 만들어져 온 것이다.

둘째는, 원래부터 미디어 컨텐츠 수용은 사회적이었고 그러한 원류적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발현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시기에 문화적 컨텐츠의 소비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대중매체가 지배하던 20세기에서도 미디어 소비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20세기 후반에 와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단말기의 가격이 하락하고,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미디어 소비가 지극히 개인적 경험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미디어 콘텐츠 소비 자체에 있어서 공동체성을 경험하고 하는 욕구가 앞에서 언급한 기술적 조건과 만나면서 “소셜” 미디어적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셋째, 소셜이 갖고 있는 긍정적 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온 것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사회학과 연구들은 “소셜”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을 다양한 이론과 개념을 통해 밝혀왔다. 사회적 자본, 사회적 지원, 집합적 효능감 등의 개념이 그것이다. 최근의 미디어 환경은 미디어 이용과 사회적 자본 간에 밀접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미디어 수용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자원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김용찬, 심홍진, 김유정, 신인영, & 손해영, 2012).

즉 최근의 소셜 미디어 현상은, 참여와 공유를 가능케 하는 기술적 조건의 구비, 미디어 수용에 있어서 공동체성을 다시 확보하고 하는 욕구, 그리고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생산적인 성격이 절묘하게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1) 왜 소셜 네트워크일까?

SNS 현상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 네트워크의 문제를 다루는 세 학자의 견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시적, 거시적 구조가 어떻게 네트워크화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Barry Wellman이라는 캐나다의 사회학자는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이라는 개념을 통해 한 개인이 맺는 관계의 망, 그리고 그 개인이 “소유”하고 관계를 맺는 커뮤니티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Wellman et al., 2003). 종래에는 같은 커뮤니티에 속한다는 말은 장소, 시간,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동체라는 것이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된다. 공동체가 먼저 있고 거기에 개인이 속하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 커뮤니티 수단이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서 연결되는 사람들(주로 지역적 거리와 상관없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바탕으로 개인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는 ‘개인 커뮤니티’(personal community)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있는 사람들(예를들어 가

죽, 이웃, 직장 동료)도 서로 매우 다른 커뮤니티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두번째는 현재 미국의 USC에서 가르치고 있는 Manuel Castells가 제시하는 “네트워크 사회” 라는 개념이다. Castells는 네트워크의 논리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생산영역, 경험, 권력, 문화, 미디어—을 관통하고 있다고 분석한다(Castells, 2000). 즉 우리 시대의 기본적인 기능(예를들어 정치, 미디어 등등)과 과정들(정치 참여, 상거래, 대인간 관계 등)이 모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지배와 권력의 모습은 이러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되게 된다. 상호 연결된 node로서의 네트워크는 열린 구조를 갖고 있다. 서로간의 코드(즉, 가치관, 언어, 문화, 규칙 등)가 비슷하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면서 확장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 의해 재구성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네트워크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권력 관계를 만드는 핵심적 요소이다. 먼저 각 개인, 조직, 지역 등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권력에 공유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Castells, 2009). Castells는 이런 유형의 권력을 networking 권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네트워크를 따라 흐름(flow)에 동참할 때는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에 들어가 그 안에서의 권력을 함께 나눌 수 있지만, 그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개인, 조직, 지역 등은 고정되고, 파편화된 장소의 공간(space of place)에 갇히고 만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두번째 종류의 권력은 네트워크 자체가 갖고 있는 권력이다. 특정 네트워크에 개인, 조직, 지역이 속하게 되면 그 네트워크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Castells는 이를 Network 권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셋째로는, Castells가 networked 권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개인, 조직, 지역 등의 개체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때 나타나는 집단적 힘으로서의 권력이다. 마지막으로 Castells가 network-making 권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는 네트워크의 성격을 바꾼다든지, 혹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끼리의 다리 혹은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얻게 되는 권력을 가리킨다.

세번째는 벤클러의 “네트워크정보경제 (networked information economy)” 라는 개념이다(Benkler, 2006). 벤클러는 산업정보경제(industrial information economy)와 네트워크정보경제를 구분한다. 산업정보경제는 집중화 (concentration)과 상업화(commercialization)를 기반으로 한다. 매스미디어가 그렇듯이 문화적 상품은 대개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도 일방향적으로 흐른다. 콘텐츠의 초기 생산 비용은 얼마 아니하게 비싸고, 그러한 콘텐츠를 분배하는데 드는 한계 비용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산업정보경제는 대규모의 수용자를 필요로 한다(수용자가 늘어날수록 영예에 가까운 한계 비용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네트워크정보경제는 정보, 문화,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책임지는 자본구조의 탈집중화를 특징으로 한다. 콘텐츠 생산이 상업적 이윤추구를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적(socially driven)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콘텐츠의 생산은 소수의 전문적 프로듀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용자들이 의해서 이루어진다. 네트워크정보경제에서 필요한 인프라는 서로 연결된 컴퓨터 망일 뿐이다. 이렇게 연결된 컴퓨터 망에서 생산되는 가장 중요한 생산물은 의미와 커뮤니케이션이다. 즉 상업적, 시장적 관계에서, 비시장적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개별 주체들은 전에 누리지 못했던 힘(Castells가 networked power라고 이름붙인)을 경험하게 된다.

앞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사람들이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도, 권력이 만들어지고 행사되는 것도, 정보와 콘텐츠가 생산, 유통, 소비되는 것도 모두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 내에서 개인들은 이제 수동적이고 파편화된(대중사회적 개념의) 개인들이 더 이상 아니다. 새로운 방식의 비시장적 협력과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조건을 바탕으로(Rheingold, 2002) 개인들은 가공할 힘을 지닌 새로운 집단으로 탄생하고 있다. 사람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협력과 공유의 본능을 끌어내고, 함께 모여 일을 할 때마다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무임승차와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김용찬, 심홍진, et al., 2012). 거듭제곱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즉 소수 참여자들의 막대한 헌신과 대다수의 최소한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 구조와, 기술의 발전으로 참여 자체가 손쉬워짐으로써 공유, 협력, 참여를 위한 거래 비용이 최소화되어가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놀라운 협력 프로젝트들이 등

장하고 있다 (Shirky, 2008). 위키피디아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집단지성의 움직임 그리고 아마존의 Mechanical Turk와 같은 크라우드소싱 등이 그 예이다.

## 2) 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일까?

SNS는 새로운 “소셜” 현상과 네트워크 사회의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SNS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들은 더 힘이 세지고, 더 창조적인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 SNS는 개인들의 자발적이고, 비시장적인 참여와 공유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SNS가 자본주의의 이윤추구적인 동기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윤추구의 동기를 갖고 있는 기업 측면에서 보면 SNS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 첫째는 SNS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통로로 SNS를 활용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클라우드 소싱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값싼 노동력을 끌어모아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이다. 세번째는 SNS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비자들의 감성 및 행동 패턴의 내용이 들어있는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로서의 개인들의 힘도 커졌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업들의 역량도 더 커지고, 더 폭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역량이 증가한 소비자들의 힘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다.

이상으로 SNS를 구성하는 세 가지 키워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각각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 지속되어온 산업과 시대를 졸업하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한 새로운 정보 환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내에서는 “개인”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사소한 일상 얘기에서, 심각한 정치적 담론, 혹은 Youtube에 올려 사람들의 주목을 끌 정도의 프로페셔널한 내용을 다 포함하는)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그렇게 서로 연결된 개인들의 자발적 공유와 참여로 새로운 방식의 집단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밑으로부터의 혁명”(예를들면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같은)을 용이하게 하고, 위키피디아와 같은 어마어마한 공동 자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나 정부의 “위로부터의” 통제 역시 새로운 자원으로 접어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 결론: 우리가 던져야 할 몇 가지 질문들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단순히 SNS 현상의 부정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무시할 수도 있고, 혹은 SNS를 어떻게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SNS 현상을 둘러싸고 만들어지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들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마치면서 세 가지 쟁점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시대의 개인주의(individualism)에 대한 문제이다. 그동안 개인주의와 집단주의(collectivism)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왔다. 하지만 앞에서 간략하게 기술한 네트워크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더 이상 대립항을 만들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제 개인들이 자기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고 의미 있는 참여를 하면서도 개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역량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사회적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김용찬, 손해영, 심홍진, & 임지영, 2012). 다시 말해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오히려 개인으로서의 역량(empowerment)이 극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즉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타적인 개인주



이라는 개념도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변화 모습을 읽어내는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를 이처럼 개인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변모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방식의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성격을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첫번째 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에 대한 문제이다. 이제 개인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는 공동체를 구축하는 기술적, 사회적 토대도 변화하고 있다. 공동체의 붕괴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있지만,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기술적 토대와 사회적 인프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도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는 우리 머리 속에 프로토타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마을”로서의 공동체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인간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가 점점 더 가능하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성격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불평등의 문제이다. 네트워크 사회를 주장하는 Castells도 네트워크 사회는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극대화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Castells, 2000), SNS를 통해 새로운 역할을 지닌 개인들과 그 개인들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방식의 집단 형식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한 개인/집단 역할을 경험하고 그것으로부터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SNS 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 불평등(혹은 SNS 격차)의 문제는 기존의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의 문제 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원들 (특히 오늘날엔 자발적 협력과 공유를 가능케 하는 기술적 자원) 대부분이 SNS와 같은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생산/유통된다면 거기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겪는 불평등의 폐해는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Benkler, Y. (2006).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boyd, d. (2006). Friends, Friendster, and MySpace Top 8: Writing community into being on social networking sites. First Monday, 11(12).  
 boyd, d., & Ellison, N. B.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Castells, M. (2000).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 ed.). Malden, MA: Blackwell.  
 Castells, M. (2009). Communication 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ouglas, S. (1987). Inventing American Broadcasting, 1899-1922.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Rheingold, H. (2002).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transforming cultures and communities in the age of instant access. Cambridge, MA: Basic Books.  
 Shirky, C. (2008). Here comes everybody: The power of organizing without organizations. New York: The Penguin Press.  
 Wellman, B., Quan-Haase, A., Boase, J., Chen, W., Hampton, K., de Diaz, I. I., & Miyata, K. (2003). The social affordances of the Internet for network individualism.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8(3).  
 김용찬, 손해영, 심홍진, & 임지영. (2012). 뉴미디어 이용과 환경 통계감 인식: 스마트폰과 SNS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9(2).  
 김용찬, 심홍진, 김유경, 신인영, & 손해영. (201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공유행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6(3).  
 김은미, 이동후, 임영호, & 정일권. (2011). SNS혁명의 신화와 실제: '토크, 플레이, 러브'의 진화: 나남.

# 제1분과 : 경제 / 경영1

1분과. 경제/경영1 발표

##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위한 전략적 접근

김형철 (백석대학교 교수)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백석대학교 경영학부

- I. 문제 제기
- II. 가계부채의 수준과 원인
- III. 디레버리징 전략
- IV. 전략적 접근
- V. 결론

**I. 문제 제기**

- 저성장과 고실업, 부채주의, 뉴노멀(new normal)
  - Carmen M. Reinhart, 2012 : 부채비율이 GDP의 90% 달했던 경우, 경제성장률 평균 3.5%에서 2.3%로 하락
- 심민식, 2012 : 저성장은 과잉투자가성에 따른
  - John Mauldin & Jonathan Tepper, 2011: 과다부채는 미국,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저성장 주체에 빠지게 함.
- 모딜리아니-밀러 MM이론
  - 가계비율, 세금, 과소비, 정보비대칭, 기업과 투자자의 자입금과 차이 없다는 가정들의 현실적 문제
- 과도한 부채 : 부정적

**II. 가계부채의 수준과 원인**

경제 주체별 GDP대비 부채수준 추이 (단위: %)

구분	2000년	2004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가계	48	66	78	81	80
기업	93	78	107	110	104
정부	11	18	27	30	31
총 부채	152	162	212	221	215

**채무수준 임계치**

기준: 부채비율 및 채권리무위험 전액 GDP

구분	임계치(%)		부채수준
	WEF	Cecchetti	
가계	75	85	< 92
기업	80	90	< 107
정부	90	85	> 33

**주요국 GDP대비 부채수준 (단위: %)**

구분	2010년			
	가계	기업	정부	계
미국	95	76	97	268
일본	82	161	213	456
독일	64	100	77	241
영국	106	126	89	322
프랑스	69	155	97	321
이탈리아	53	128	129	310
호주	113	80	41	235
그리스	66	65	132	262
포르투갈	106	153	107	366
스페인	91	193	72	356
가중평균	90	113	104	306
총 부채 (2009-2010년)	18	12	31	61

출처: Coulter et al. (2012), "The Real Effect of Debt: US Working Paper" /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

**가계부채의 원인**

- ◆ 주택담보대출
  - 주택대출 잔액 391.3조 원(전체 가계부채의 61%)
  - 가계부채규모 증가
    - 1999년~2010년 연평균 13%의 증가(경제성장률 7.3%)
    - 주택시장 회복기 연평균 10.7%의 증가; 집담대출 관련 등대금 대출
  -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수준 46.4% (미국, 영국, 일본 등 25~40%)
  - 가계부채 급증과 주택가격과 밀접한 관계
    - 집값 7% 하락 시 : 부실대출증가액 14조 원, 과실위험 증가액 19만 4천
    - 집값 25% 하락 시 : 부실대출증가액 31조 원, 채무부담 증가액 43만 7천
- ◆ 생계비 대출
  - 2011년 자영업자의 평균 연 소득 5,040만 원.
  - 대출리금 상환액 1,082만 원(년 평균 1년 생활비 연간 421만원, 월 약 30만원)

1분과. 경제/경영1 발표

지식경영 교육의 기독교적 접근방법

최무진(계명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논문초록

국내 다수의 경영학 또는 경영정보학 관련 학과들은 '지식경영'을 독립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경영정보, 인사조직, 경영전략 관련 과목들은 '지식경영'이라는 주제에 소정의 시간을 할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경영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은 물론 기독교적 접근방법에 대해 연구가 시도된 바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방법에 있어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가 될 수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지식경영 교육은 고린도 전서 1:18~31과 예레미야 9:23~23에서 출발한다. 지식의 근원과 특성, 비즈니스에 있어 지식의 역할을 탐색하다 보면, 지식과 진리를 규정하신 하나님은 지식을 기업 현장에 적용할 때 겸손할 것을 권하고 있다. 즉 기업 현장에서 생성되고 활용되는 대부분 지식은 미려한 인간의 지식에 불과하며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바가 못 되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지식의 개념과 특성을 탐색하고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지식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깊은 담론을 얘기하기보다 경영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진실(truth)과 사실(reality)에 대한 실천적 담론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식을 데이터(data), 정보(information), 지식(knowledge), 지능(intelligence), 지혜(wisdom)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랑(love)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는 대상으로 보았다. 둘째, 본 논문은 지식의 종류, 즉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논의하기 위해 지식의 카테고리(범주)를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식경영에 필요한 단계들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지식경영, 기독교, 교육, 교수법

I. 서론

Nonaka(1994)가 기업경영에 있어 지식경영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역설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지식의 체계와 특성,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있어서의 역할을 연구해 왔다. 이러한 열기는 경영 현장에 물론 교육 현장에까지 파급되면서 데이터 가공을 통한 지식의 추출과 활용은 현대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지식이 경쟁력이란 사실은 오늘날 경영의 현장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인간의 뇌 속에 기억된 암묵지인 데이터, 경험, 통찰력은 기업이 간과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원이다. 정보담당원(CIO)은 이러한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하여 조직의 구성원이 이를 공유토록 하는 학습조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더구나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내부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다국적 기업 P&G가 R&D분야의 상당부분을 아웃소싱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들로부터 신제품 아이디어와 기존 상품 혁신 아이디어를 인터넷을 통해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소위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지식경영의 한 흐름이 되고 있다.

국내 다수의 경영학 또는 경영정보학 관련 학과들은 '지식경영'을 독립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경영정보, 인사조직, 경영전략 관련 과목들은 '지식경영'이라는 주제에 소정의 시간을 할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경영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은 물론 기독교적 접근방법에 대해 연구가 시도된 바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방법에 있어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가 될 수 있다.

지식경영은 연구자가 '경영정보학원론'과 'IT/IS운영과 정책'이라는 과목을 강의할 때 3~6시간을 할애하여 강의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 시간에 연구자는 지식이 기업 경영에 있어 갖는 의미와

### III. 디레버리징 전략

- 인플레이션전략:** 중앙은행이 돈을 부채를 찍어서 줄 수 있다. 조달비용이 낮은 재정자금 대규모 투입, 발권력 동원을 통해 유동성 공급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립, 국제 만기구조가 장기인 경우는 추진이 가능하며, 정부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채택이 어려움.
- 성장전략:** GDP규모를 확대하여 상환능력 높이고 부채비율 축소  
연구 및 산업구조에 비추어 성장 잠재력 충분, 독자적인 통화까지 조절능력
- 간접전략:** 재정지출 억제하여 정부부채증가율을 GDP성장률 이내로 유지  
부채축소과정에서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음.
- 채무재조정 :** 사적인 구제제도(개인워크아웃, 크리 워크아웃) 100만 명  
반적인 구제제도(개인회생, 파산) 2012년 상승 반전 현상

<미국> 오기치 채무조정지원프로그램(최저 2% 이자), 주택소유 및 자산보호법  
<채위기, 이스라엘 박싱> 최전 제도

### 디레버리징 유형별 특징 비교

유형	진행 기간 (년)	규모 (%GDP대비 부채감소액)	사례
간접	6~7	40	한국('98), 미국('33), 핀란드('91)
성장	6	44	미국('38)
채무재조정	6	46	아르헨티나('02), 러시아('97), 멕시코('82)
인플레이션	7	93	칠레('84), 스페인('76)

출처: Reinhart & Rogoff(2003), Vol.4, p.200

### IV. 전략적 접근

성장전략: 재정확대로 원리리합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  
안을 펼칠 때: 가정이 생기지 않더라도 금융의 과잉을 살릴 수 있음  
간접전략: 성장동력이 확보되지 않는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  
채무재조정: 소득원별 차별화

카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 카버드본드란? 주택저당대출, 공공부담, 선박대출 등을 담보로 한 유동화채권
- 카버드본드의 특징: 이중상환구조, 자산의 부내거래, 담보자산의 교체, 자금조달의 경감 등

- 발행자 - 발행금융기관의 신용도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채권 발행, 자금리로 필요자금 조달 가능
- 투자자 - 원리금상환이 가능하며 투자기회 확대 효과

### IV. 전략적 접근

딜리시장의 조성

- 1단계: 주택 필링 프로그램
- 2단계: 신약 후 임대(trust & lease back)
- 3단계: 일부 매각 후 임대
- 4단계: 매각 후 임대(sale & lease back)
- 5단계: 은행권이 배드뱅크 설립.

악성주택담보채권 구입 후 하우스 푸어 채무재조정



경영 현장에서 창출되고 공유된 지식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경영정보학 전공 학생들에게 주로 교수한다. 현재 수업자료는 1~2주 분량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목적과 수요에 따라 한 한기 과목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더욱 많은 교육 자료와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필요해진다.

기독교인으로서 지식경영 교육은 고린도 전서 1:18~31과 에레미아 9:23-23에서 출발할 수 있다. 지식의 근원과 특성, 비즈니스에 있어 지식의 역할을 탐색하다 보면, 지식과 진리를 규정하신 하나님은 지식을 기업 현장에 적용할 때 겸손할 것을 권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 생성되고 활용되는 대부분 지식은 미련한 인간의 지식에 불과하며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 더구나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 사람의 지식의 수명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지식의 개념과 특성을 탐색하고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지식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깊은 담론을 얘기하기보다 경영 현상이 필요로 하는 진실(truth)과 사실(reality)에 대한 실천적 담론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식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식을 데이터(data), 정보(information), 지식(knowledge), 지능(intelligence), 지혜(wisdom)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랑(love)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는 대상으로 보았다. 이 발전과정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형질의 지식들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증진에 기여하는 요소들이 될 것이다. 둘째, 본 논문은 지식의 종류, 즉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논의하기 위해 지식의 카테고리(범주)를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식경영에 필요한 여러 단계를 제시하였다.

-중략-

V. 결론

본 연구는 경영정보학(MIS)에서 논의해온 일반적인 지식경영의 수준을 넘어 기독교적 신앙과 성경을 기반으로 지식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Chewning(2003)은 지식,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전개하였는데, 그의 논의는 경영, 특히 지식경영에 적용할 여지가 더 많이 남아 있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는 이런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혁신 과정을 교육하는 방법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적용하는 일은 이전에 별로 시도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의 과정이 경로의존성(Arthur, 1989)27), 의도적 일탈, 지적 설계를 고려한 성경적 관점에서 가르쳐질 수도 있다. 혁신이란 현대의 기업조직이 지속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는 지식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혁신과 이를 촉진하는 지식경영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일이 더욱 필요하다.

Huff(2000)는 21세기에 있어 경영학 교육자가 직면하고 있는 특별한 도전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난 100년간 경영대학과 커리큘럼은 구체적인 학문적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지만 미래에는 보다 응용적 경영교육에 초점을 뒤흔어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Huff는 이러한 현상을 실용성과 학문성이라는 양 극단을 주기적으로 오가는 시계추 이론(pendulum effect)으로 설명하고 있다. Huff는 교육자의 핵심역량을 지식생성으로 보고, 경영학 교육자는 궁극적으로 중도적 입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경영학 교육자는 단순한 훈련(training)을 넘은 교육을 지향하되, 지식의 속성과 사용, 지식자산의 관리를 이해함에 있어 기업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과 교육기관은 각자의 고유 기능들이 있다. 본 논문은 기독교 교수들이 지식경영을 가르칠 때 보다 풍부한 교육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선한 목적들을 위해 지식을 선용하는 방법을 확장된 지식과 지식경영의 관점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다.

27) path dependence. 주어진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과거의 조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결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이론

1분과. 경제/경영1 발표

복음적 경영론의 정립과 기업의 적용

박정윤\*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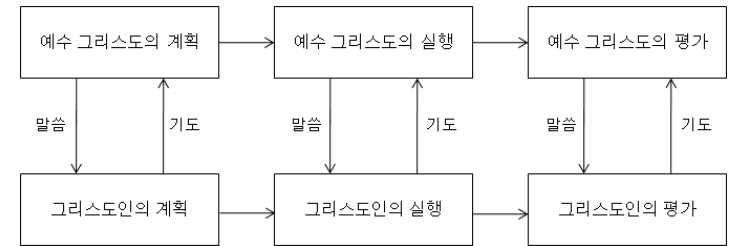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복음에 합당한 경영을 하고자 하는 기독교경영인들을 위해 복음과 경영을 통합한 복음적 경영론을 정립하고, 이것을 기업조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정리하여 복음적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II. 복음의 콘텐츠와 이에 대한 바른 이해

복음의 개념을 파악하고 복음의 콘텐츠로 오중복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오중복음은 중생의 복음, 성령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말하는데, 이는 기독교 신앙의 전과정을 설명해 주는 핵심 주제가 된다.

III. 복음적 경영론

전통적인 경영모형으로 브라운의 경영모형과 큰썩을 비롯한 몇 경영학자들의 경영과정모형을 설명한 후에 복음적 경영모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림 2> 복음적 경영모형

이어서 복음적 경영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면서 핵심원리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찾았다. 복음적 경영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다.

누가복음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 를 중심으로 복음적 경영원리를 몇 가지 찾아 정리하였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이다. 둘째,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셋째,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재물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의 관점에서 선용해야 한다. 여섯째, 부자는 가난한 자의 빛을 탐강해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지기는 재물 외에도 복음, 재능, 그리고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한다.

\*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교수, jypark@yumail.ac.kr

IV. 복음적 기업경영

4.1 복음적 기업목표

복음적 기업목표를 궁극적 목표와 파생적 목표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성취함으로써 가능하다. 파생적 경영목표로의 예로 회사 종업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인식을 하고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탁월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최상의 서비스를 추구하는 것도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파생적 목표가 될 수 있다.

4.2 투자정책

투자정책은 기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수행할 사명 또는 비전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비전이 세워지면 이것에 기초하여 어떤 사업 또는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통해서 이웃을 해롭게 하는 사업은 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포지티브 스크리닝을 통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 이웃의 필요를 가장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사업이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투자규모를 결정할 때는 작은 규모에서 시작하여 시장상황을 살펴가며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가진 것이 적었지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점차 부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청지기로서 경영자는 축복의 복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4.3 자본조달정책

성경에서는 빚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될수록 부채사용을 억제하는 자본조달정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의 자본비용이 자기자본비용보다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부업체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경우).

4.4 배당정책

우리가 주주를 자본제공자로 본다면 기업이 채권자에게 이자를 약정한 대로 지급하고 원금을 만기에 상환해야 하듯이 주주에게는 배당을 적절한 규모로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지기로서 경영자는 주주를 위해 기업경영을 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 고객, 공급처, 지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정하여야 한다.

1분과. 경제/경영1 발표

행복교육 경영론의 이해와 향후 과제

김 한경<sup>29)</sup>

행복교육 경영론이란 무엇인가? 행복과 교육과 경영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융합학문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결합한다고 하면 행복을 중심으로 결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과 혹은 경영을 중심으로 결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의 물론 행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행복한 인간 교육활동을 우선 가치로 하여 행복은 능력이고 습관이므로 교육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에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서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본고에서는 행복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서 긍정심리학적 측면에서 행복을 살펴보고 동시에 행복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특히 행복관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알아보겠다. 또 행복이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뇌 속에서의 정보 즉 전달은 신경세포의 전기신호로 시냅스에 전달되고, 시냅스에서는 화학신호로 바뀐다. 신경전달물질은 그것을 분비하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파악된 신경전달물질은 50종류 정도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케팔린린과 엔도르핀에 대해서 주로 알아 보고 행, 불행의 원인인 스트레스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행복과 경영을 관계 짓고 또 현행 행복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게 되겠다. 행복 교과서 개념 안에 실제 행복 교육활동이 포함되므로 행복교육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도 있다고 하겠다. 행복을 중심으로 교육과 경영을 교차점으로 해서 바람직한 행복교육을 설명함과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 행복교육의 교육과정을 설명함과 아울러 문제점을 파악해서 향후의 과제를 제시함에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과거 경제제일주의 시대에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더 행복해진다고 믿었다. 그리고 성공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와 행복의 상관관계는 어느 소득수준까지는 비례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상관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비근한 예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경제적으로는 단군 이래 가장 풍성한 시대일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결코 단군 이래 최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나 행정은 여전히 “국부를 늘리는 것이 행복의 유일한 지름길”인 것으로 믿고 이에 집착하고 있다.

성경에도 있듯이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마틴 셀리그만(M. Seligman)이 주장한 바와 같이 행복감의 결정요소(긍정적 정서, 몰입, 긍정적 인간관계,

긍정적 의미감, 성취감)에 비중을 두고 삶을 영위해야 하겠다. 행복도 능력이고 행복 할 때 공부와 학습이 촉진된다고 할 수 있다.

행복교육 경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최적화하도록 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에는 고진감래형의 학습을 주장하였다면 미래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성취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고 습관화 되도록 행복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복교육에 대한 교사, 교수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아울러 행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식변화와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행복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학마다 교육청 단위로 행복 연구센터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 되어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행복 교육 경영론을 알기 쉽게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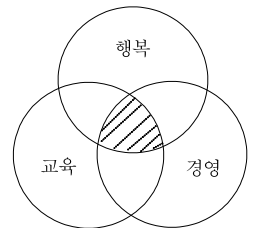


그림 <표1>

29) 대구대학교 교양과정부 외래교수 khk1815@hanmail.net

# 제2분과 : 경제 / 경영2

2분과. 경제/경영2 발표

## 한국 여성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에 관한 연구

최현정 (백석대학교 교수)

### 한국 여성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Work-Family Balance)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호텔경영전공  
최현정

### 연구의 배경

월트뷰 2012년 4월호

- “성경, 여성에 대해 말하다” (홍신대학교 김희자교수)

상징에 등장하는 여성의 중요성

- 여성(아내)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벧전 3:7)
-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4복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성들을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장사 지낼 때,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할 때

### 연구의 배경

발표 제298호 "남녀고용평등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2007년, 12월 23일)
-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
-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

여성 근로자

- 전년도보다 4.2% 증가 → 남성 근로자의 증가율(2.5%)을 상회 (통계청, 2011)
- 직장과 가정의 부딪으로 직장여성의 생활만족도 낮음 (한영란, 2012)
- 속박산업의 여성근로자 비율 41.8% (통계청, 2011)

### 연구 주요 변수

주요 용어

-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
  - 일-가정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사이에서 충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낳음
  - 일-가정 방향: 직무/가정-일 방향 갈등
- 일-가정 지원(work-family facilitation)
  - 직장과 가정 사이의 상호 긍정적인 영향
  - 일-가정 방향: 직무/가정-일 방향 지원
- 일-가정 균형(work-family balance)
  - 직장과 가정 두 영역에서 동일하게 만족스러운 상태
  - 일과 가정의 균형(work-family balance)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수행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게 한다(Hobson, 2008).
- 여성근로자(female employee)

### 연구의 목적

로컬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방향 갈등과 가정-일 방향 갈등의 정도를 비교할 것이다.

로컬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방향 지원과 가정-일 방향 지원의 정도를 비교할 것이다.

로컬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가정 갈등의 요인을 규명할 것이다.

로컬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가정 지원의 요인을 밝힐 것이다.

### 연구 가설

가설 1. 한국 여성 근로자는 가정-일 방향 갈등보다 일-가정 방향 갈등을 더 높게 경험할 것이다.

가설 2. 한국 여성 근로자는 일-가정 방향 지원보다 가정-일 방향 지원을 더 높게 경험할 것이다.

가설 3. 로컬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갈등은 일-가정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로컬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지원은 일-가정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변수의 측정 방법

일-가정 갈등

- Netermeyer Boles & McMurtlan (1996)이 개발한 10문항(일-가정 방향 갈등 5문항 / 가정-일 방향 갈등 5문항)

일-가정 지원

- Graywacc & Marks(2000)이 개발한 8문항 (일-가정 방향 지원 4문항 / 가정-일 방향 지원 4문항)

일-가정 균형

- Valcour(2007)이 개발한 5문항

인구통계학적 변수

- 결혼여부, 연령, 학력, 직급, 근무부서, 근무년수, 고용형태, 자녀 수 (8가지)

###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의 수집

- 서울 특급 호텔 5개 + 대전 유성지역의 특급과 1급 호텔 4개 선정
- 비원본 표본추출방법(non-sampling error method)의 하나인 편의적 표본 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자기 기입방법
- 2012년 7월 1일 ~ 2012년 7월 30일 (총31일)
- 총320부 배포 / 277부 유효부본
- 149부(남성53.8%) / 128부(여성46.2%)

분석방법

- SPSS 18.0
-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T-검정, 다중회귀분석

###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성별	성비 (%)	평균	표준편차
연령	남성	50.0	30.83	10.83
	여성	49.9	30.37	10.83
	전체	100.0	30.60	10.83
직급	남성	50.0	3.83	1.83
	여성	49.9	3.83	1.83
	전체	100.0	3.83	1.83
연수	남성	50.0	16.41	4.41
	여성	49.9	16.41	4.41
	전체	100.0	16.41	4.41
근무부서	남성	50.0	3.83	1.83
	여성	49.9	3.83	1.83
	전체	100.0	3.83	1.83
고용형태	남성	50.0	3.83	1.83
	여성	49.9	3.83	1.83
	전체	100.0	3.83	1.83
연수	남성	50.0	3.83	1.83
	여성	49.9	3.83	1.83
	전체	100.0	3.83	1.83

###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신뢰도
일-가정 방향 갈등	0.91
가정-일 방향 갈등	0.91
일-가정 방향 지원	0.91
가정-일 방향 지원	0.91

요인분석 결과

변수	요인 1	요인 2
일-가정 방향 갈등	0.85	0.15
가정-일 방향 갈등	0.85	0.15
일-가정 방향 지원	0.15	0.85
가정-일 방향 지원	0.15	0.85

###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Variables	1. 일-가정 방향 갈등	2. 가정-일 방향 갈등	3. 일-가정 방향 지원	4. 가정-일 방향 지원	5. 일-가정 방향 균형
1	1				
2	0.92**	1			
3	0.06	0.25**	1		
4	0.04	-0.07	0.98**	1	
5	-0.35**	-0.245	0.23**	0.066	1
평균	3145	2104	3101	3459	3171
표준편차	0.882	0.899	0.745	0.749	0.761

\*\*p < 0.01

### 가설 검증 결과

가설 1. 한국 여성 근로자는 가정-일 방향 갈등보다 일-가정 방향 갈등을 더 높게 경험할 것이다. → 채택

<표 3> 일-가정 갈등의 T-검정

교차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일-가정 방향 갈등	3145	0.882	40.334	0.000
가정-일 방향 갈등	2104	0.899	31.255	0.000

### 가설 검증 결과

- 가설2. 한국 여성 근로자는 일-가정 방향 지원보다 가정-일 방향 지원을 더 높게 경험할 것이다. → 채택

<표 5> 일-가정 방향의 T 검증

요인	값	평균	표준편차	T	유의적률
일-가정 방향 지원	3.02	3.76	0.680	11.00	0.000
가정-일 방향 지원	3.60	3.75	0.222	0.000	0.000

### 가설 검증 결과

- 가설 3. 호텔 경영 근로자의 일-가정 방향 지원은 일-가정 균형의 긍정적이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호텔 경영 근로자의 일-가정 방향 지원은 일-가정 균형의 긍정적이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호텔 경영 근로자의 일-가정 방향 지원은 일-가정 균형의 긍정적이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 호텔 경영 근로자의 일-가정 방향 지원은 일-가정 균형의 긍정적이나 영향을 미칠 것이다.

Variables (Exact)	Hypothesis		Statistic		Probability >  Z	Observed Power
	Z	Pr >  Z	Z	Pr >  Z		
1	1.10	0.267	1.17	0.243		
2-7	4.16	0.000	4.01	0.000	0.75	1.00
가정-일 방향	3.02	0.000	3.18	0.000	0.99	1.00
일-가정 방향	3.02	0.000	3.00	0.000	1.00	1.00
가정-일 방향	3.60	0.000	3.52	0.000	1.00	1.00

2분과. 경제/경영2 논찬

## “한국 여성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Work-Family Balance)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평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신성희 교수

이 논문은 일-가정 사이의 갈등관계, 상호지원관계, 그리고 일-가정 관계로부터의 만족도(일-가정 균형) 등 3자간의 연관관계를 설문조사에 기초한 계량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론은 일-가정 갈등관계, 지원관계, 그리고 갈등 및 지원 관계가 일-가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논문의 동기, 논문의 방법론, 결과 등이 잘 정리된 좋은 논문으로 판단된다. 몇 가지 비판적 논평을 굳이 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분석 결과, 일-가정 방향 갈등과 가정-일 방향 지원이 심한 것은 우리 사회가 가정 보다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일 중심 사회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여진다. 분석 결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
2.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저자는 호텔의 경영진이 이러한 일-가정 방향 갈등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가정 방향 갈등의 감소가 호텔 경영 수익이나 매출을 높이는 경우에만 이러한 갈등을 감소시킬 유인이 있게 될 것이다. 일-가정 갈등, 일-가정 지원과 호텔 경영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표본으로 미혼과 기혼을 구분하지 않고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미혼과 기혼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도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

### 결론에 따른 시사점

#### 일-가정 방향 갈등, 가정-일 방향 갈등

- 호텔의 경영진과 지배인은 이점에 주목하고 여성 근로자들이 겪는 일-가정 방향 갈등이 경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을 고려해야 하겠다.
- 근무시간은 최대한 준수하고, 가정 내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행사 가 있을 시 근무 스케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배려.
- 직장과 가정이 최대한 정확히 분리되어야 하겠지만 회사가 직원들의 가정생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 결론에 따른 시사점

#### 일-가정 방향 지원, 가정-일 방향 지원

- 이는 직장으로부터 가정으로 전해지는 긍정적인 영향 보다는 가정으로부터 직장으로 전해지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직장에서의 출근은 생활이 가정으로도 보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회사는 더 많이 고민하고, 근로자가 힘과 열의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직원들을 위한 보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 또한 가정이 행복할수록 직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가정생활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과 관리자의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 예) 직원들의 가정 내 생활을 잘게 주며 휴가나, 가족들을 위한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등 가족들을 모두 책임질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으로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최대한 지켜줄 수 있도록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 결론에 따른 시사점

#### 일-가정 방향 갈등, 일-가정 방향 지원, 일-가정 균형

- 이론적으로 가정으로 전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많고, 이론적으로 가정으로 전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많고, 이론적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이 극대화 될 수 있다.
- 따라서 기업은 직원에서의 갈등과 만족도의 결함이 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다 넓게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 이론적으로 가정으로 전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많고, 이론적으로 가정으로 전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많고, 이론적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이 극대화 될 수 있다.
- 이론적으로 가정으로 전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많고, 이론적으로 가정으로 전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많고, 이론적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이 극대화 될 수 있다.

### 결론에 따른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호텔 여성 직원들의 일-가정 갈등 및 일-가정 지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일-가정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즐겁고 만족스러운 직장이 보다 행복한 가정을 완성하여 직장과 가정의 균형 잡힌 삶을 완성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아퀴나스의 경제윤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황의서 교수

### 생애

1225년 나폴리 근처에서, 램돌프경의 7째 아들로 태어남.  
 5살에 베네딕도 수도원에 보내짐.  
 1244년 도미니쿠스 수도회 수사가 됨.  
 1248-1252년: 독일 뮌헨 도미니쿠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에게 배움  
 - 필연의 형상을 특징으로 갖는 불완전한 기쁨의 학성-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의  
 저술으로부터 넘어선 것들; 물질, 물질은 형식  
 알베르투스는 '이 할아버지 형식은 자신의 물질로서 세계를 재를 것이다'  
 1252년 파리 신학교 입학 (1217년 설립)  
 1255/6년 박사학위 취득, 30세에 신학교수로 취임  
 1259년 이탈리아로 이주(로마에 신학원 설립)  
 1268-1272년 파리 신학교 교수직 복귀(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과 형이상학 연구)  
 1273년 미사도중 환상의 체험 이후 학문활동 중단.  
 1274년 49세로 사망.

대표적 저술: 신학대전(60권)

### 아퀴나스의 경제윤리

### 황 의 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 경제윤리

#### 1. 시장교환은 윤리적 행위

사랑과 필요를 서로 나누는 곳, 행위.  
 아리스토텔레스: 비례적 정의(투입노동량 비례)  
 아퀴나스: 교환적 정의(가치와 가격의 일치)  
 공정가격: 가치=가격  
 공정가격의 보장: 1) 제도적 접근; 50%이상 취할 경우, 반환을 법으로 제정.  
 2) 당사자의 도덕성 회복.  
 공정거래는 공정 보상 내포: 불량상품 보상.

#### 2. 정보윤리.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공개.

1. 모든 사람은 거래에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다.
2. 판매자는 정보를 정확히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의도적으로 결함을 비 공개한 거래는 취소될 수 있다.
4. 구매자가 자신의 실수로 구매 한 상품은 거래 취소대상이 아니다.
5. 비대칭 정보를 바탕으로 불균등한 이윤배분은 시장경제 윤리에 위해 된다.
6. 상품 결함을 보상하기 위한 가격인하는 공정가격 측면에서 용납될 수 있다.
7. 과대 광고는 배반적이지 않다.
8. 정보 제공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면 된다.

#### 3. 이자

근본적으로 비도덕적, 금지되어야 한다.  
 구역에 유대인들간의 돈 거래 기초.

#### 4. 위반과 태만

위반은 적극적으로 죄를 범함.  
 태만은 소극적, 수동적으로 죄를 범함.  
 부당한 가격내지는 거래임을 알고도 태만으로 인하여 이를 묵인하는 것은 큰 죄이다.  
 모든 경제인은 정의 수호를 위해서 부름 받음용기 필요.

#### 5. 영혼과 물질

아우구스티누스: 영과 육의 분리.  
 아퀴나스: 영과 육의 결합가능(예, 인간)  
 아리스토텔레스의 통합적 관점.  
 인간의 육은 흙으로 창조, 불완전,  
 영혼은 둘째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혼의 교류는 마치 불의 교류와 같다.  
 영혼 → 물질, 물질 → 영혼  
 불량식품 흡수는 영을 약화시킬 수 있음.  
 풍요는 교만한 마음과 영적 타락 가능.  
 경제행위(생산, 소비, 교환 등)는 영적 행위.  
 물질주의 → 물질만능주의 사회 경고.  
 영적 타락 가능성 높다

#### 6. 행복론

인생의 목표: 행복  
 에피쿠로스: 육체적 쾌락.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하나님과의 관계  
 이성적 행복과 지성적 행복 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  
 물질은 인생의 도구이고, 불완전한 행복 보장.  
 경제행위는 물질추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행복을 찾아야 한다.

#### 7. 공리주의, 목적론, 상황윤리

윤리적 삶은 동기, 과정, 결과를 모든 포함한다.  
 동기 - 목적론, 과정-상황윤리, 결과 -공리주의  
 선과 악에 대한 판단에서 인간의 인식한계, 최종 판단은 신의 영역.

#### 종합

1. 자유시장경제의 옹호자.  
 공정거래유지는 당사자들의 몫.
2. 시장 균형을 위한 국가 개입보다는 경제인들의 도덕성강조.
3. 경제윤리 실천의 두 요소:  
 내면적 도덕성 회복: 비싼(싼)가격보다 공정가격 지불.  
 외형적 도덕성 실행: 태만은 죄, 정의 실현 용기 필요.
4. 영혼과 물체의 결합성 인정하면서  
 물질주의 태동, 물질만능주의 사회 경고
5. 경제인에게는 물질 풍요와 함께 영혼관리도 필요.  
 이성적 욕구와 지성적 욕구 구분.

### '아퀴나스의 경제윤리(황의서)'의 논평

논찬자 : 김홍섭

이 논문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윤리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아퀴나스의 사상의 많은 부분을 어거스틴의 그것과 여러 각도에서 비교하면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아퀴나스는 시장거래의 기준가격으로 공정가격을 제안한다. 시장경제에서 상품의 가격과 가치가 일치할 때에 공정가격이 형성된다. 공정가격은 국가의 개입보다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도덕성에 따라서 유지된다. 모든 당사자들은 가장 싸게 사고, 가장 비싸게 사려는 마음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오늘의 가격(price)과 가치(value)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에서 생존부등식이 의미있게 이해된다. 즉 가치(value)>가격(price)>원가(cost) 일 때 기업은 생존가능하다고 평가된다. 즉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가 그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크다고 느낄 때 그 소비자는 만족하고 또 다시 그 제품을 사게 된다. 그리고 그 재화의 가격은 실제 원가 보다 높을 때 즉 정상이윤이 담보될 때 그 기업도 존속할 수 있다. 이런 오늘의 기본 경영, 경제 사상은 아퀴나스의 그것과 다르며, 아퀴나스의 논리가 오늘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기업은 존속,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퀴나스는 또한 공정한 거래는 합리적 선택과 공정한 계약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정보윤리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이는 재화의 생산과 재화에 포함된 바른 정보에 대한 제공은 중요하다. 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의 의무는 일차적으로 판매자에게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균등한 이윤배분은 시정되어야 한다.

그의 정보윤리에 대한 주장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아퀴나스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파는 것과 같이 부당하며, 와인을 팔면 그 마시는 즐거움도 함께 팔게 된다고 본다. 그는 돈을 파는 것은 이와 다르며, 마치 와인을 팔면서 그 마시는 것을 따로 파는 것과도 같다고 본다. 즉 와인을 주고서 다시 그 와인을 돌려받으면 그만이지, 추가로 더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같은 논리로 이자도 부당한 것이라고 본다.

그는 집의 경우 집을 빌려주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임대료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돈은 교환을 위한 매개체로 만들어진 것이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빌린 돈은 원금만 돌려주면 되며, 특히, 유대인들은 형제들끼리 이자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도 모두로부터 이자 받는 것을 스스로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아퀴나스의 논리는 후대 존 칼빈(J. Calvin)에 이르기 까지 이어져 중세 서구 경제의 중요 논거가 되었다.

아퀴나스가 주장하는 위반과 태만을 바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억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바른 지적이라 본다. 태만은 죄를 용납하는 것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것도 부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영혼과 물질이 서로 배타적이거나 무관한 것으로 보기보다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관점은 바르고 혁신적인 것이다. 타락한 물질관계는 타락한 영혼을 반영하는 것이다. 올바른 물질관계를 위하여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 그의 이런 사상은 매우 중요하고 기독교 경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는 경제행위를 동기, 과정, 결과로 구분하고, 죄성을 갖춘 인간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선과 악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인간의 경제행위의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며 그것은 인간의 최후 심판에 포함될 것이다.

이 논문은 많지 않은 아퀴나스 사상에 대한 연구로 향후 기독교 경제, 경영사상의 중요한 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의미있는 연구로 사료된다.

### 세례요한의 리더십을 통해 살펴본 21세기 리더의 역할

조병남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1. 리더십 패러다임의 변화

##### 21세기 새로운 리더십의 이해



#### 2. 리더십 연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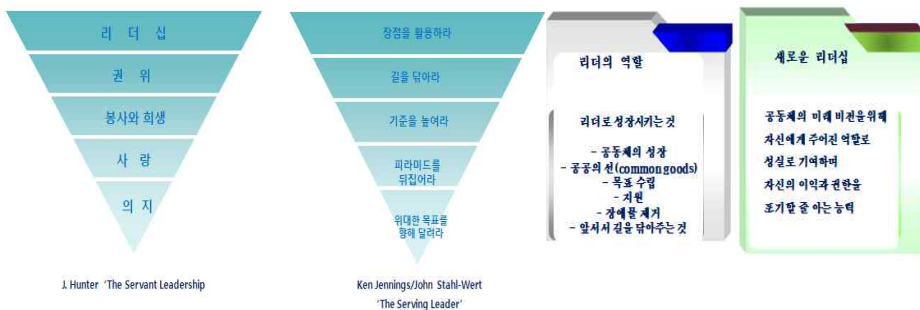
#### 3. 새로운 리더십의 개념



#### 보스와 리더 - John Maxwell,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보 스	리 더
직원을 부린다	그들을 리더한다
권위에 의존한다	선의를 의존한다
두려움을 일으킨다	열정을 일으킨다
'내가' 라고 말한다	'우리가' 라고 말한다
일이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일이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내가 가라'고 말한다	'함께 갑시다' 라고 말한다
실책의 책임을 묻는다	실책을 고쳐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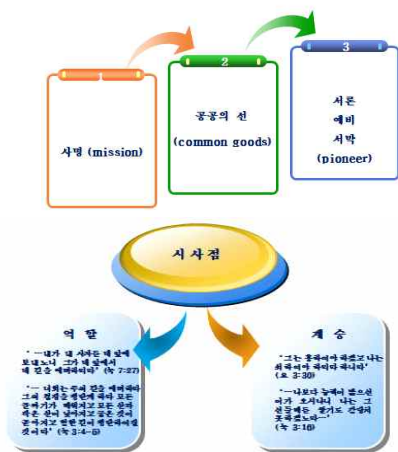
4. 새로운 리더십의 특징



리더십의 주요 요소와 성경 속 리더 - R. Woolfe

리더십의 주요 요소	성경 속 리더
1) 정직과 신실성	사무엘, 사도바울, 이사야
2) 목표의식에 대한 도전	모세, 히스기야, 에스더
3) 친절과 긍휼	예수, 다윗, 선한 사마리아인
4) 겸손	베드로, 욥
5) 커뮤니케이션	여호수아, 에스라, 누가
6) 탁월한 성과 경영	노아, 솔로몬, 에레미야
7) 팀 개발	느헤미야
8) 확신에 찬 용기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9) 정의 실현	야곱, 요셉
10) 리더십 개발 매카니즘	예수, 모세

새로운 리더십의 특징



# 제3분과 : 교육

3분과, 교육 발표

## 교회의 열매란 무엇인가? -기독교생활공동체의 부활을 위한 성경적 변증- 이창국(주님의 교회)

### I. 서론: 문제제기

- 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마 7:17,20)
- ② 열매란 무엇인가?
- ③ 통속적 의미: 진도
- ④ 성경적 의미: 삶, 행위 (내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마 7:24)

### II.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닭

- ① 내재적 이유(신학):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교리
- ② 외재적 이유(실제, 현실): 이 세상의 배척과 견제

### III.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한 까닭: 바울의 진단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외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외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롬 9:31-32)

### IV. 바울의 명제에 대한 두 가지 해석

- ① 1형식적 해석: 믿음과 행위는 양자택일적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둘 중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는 버려야만 하는 관계로 본다.
- ② 2형식적 해석: 믿음과 행위는, 믿음이 행위의 근원인 인과적 구조를 지닌 것으로, 행위가 잘못된 까닭은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므로, 단순히 행동만 고치려고 해석하는 소용이 없다고 본다.

### V. 성경의 입장

- ① 믿음과 행위의 분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약 2:26)
- ② 행위란 마음 속의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 15:18)

### VI.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성경적 처방

- ① 실제적 처방: 좀 더 노력하고 애써 보는 것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돌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눅 13:8)
- ② 근본적 처방: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심는 것 (그 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눅 13:9 /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렘 18:4)
- ③ 적용: 교회에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교회의 행위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성찰을 병행해야 한다.

**VII. 1형식적 해석이 가져오는 폐해**

- ①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집단이 되었다.(렘 5:2)
- ②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행위로로는 그분을 부인한다. (딤후 1:16)
- ③ 믿음이 우리 행위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주인노릇을 한다. (이적, 예언, 재물, 행복, 성공, 혈연, 지연, 학연, 세상학문, 세상적 가치관 등)
- ④ 행위만 문제 삼을 뿐, 속마음과 믿음을 검토하고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므로써, 참다운 회개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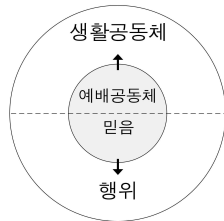
**VIII. 2형식적 해석의 유의**

- ① 믿음과 행위가 화해하고 소통이 되어, 그 정상적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믿음도 살고 행위도 사는 상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② 행위는, 믿음이라는 자신의 참된 주인을 되찾게 되어, 믿음에 그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그 열매를 더하여 가게 될 것이다.
- ③ 믿음은 행위의 검증을 통하여, 그 불확실하고 미숙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만들고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 ④ 결국,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요, 행위도 또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IX. 결론: 2형식적 해석의 도전**

- ① 교회는, 믿음의 영역 뿐 아니라 행위의 영역까지도 보살피고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새롭고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 ② 그동안 교회의 핵을 이루어 온 예배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을 보살피고 키워주고 전파하는 일에는 효율적이었지만,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일에는 적합한 조직이 아니었음을 시인해야 한다.
- ③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말씀과 법들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우리 행위를 지도하고 이 끌어가는 또 다른 공동체 즉 삶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 ④ 교회는 예배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되, 예배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며, 예배공동체 속에서 배운 믿음을 이 세상 속에서의 삶과 행위로 구현하고 발전시켜나가기도록 돕는 생활공동체의 수립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나 무	열 매
믿음	행위
하나님의 뜻과 법을 배워 앎	배우고 믿고 아는 바를 행함
예배, 신앙교육	삶, 일상생활
예배공동체	생활공동체



3분과. 교육 발표

**기독교대학 정체성을 위한 교수개발의 방향**

이 은 실 (한동대학교)

요약

이 글에서는 교육현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기독교수의 역할과 자질, 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들의 역량과 자질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향에서의 교수개발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기독교수는 가르침과 연구, 사회봉사와 변화주도자, 그리고 확고한 기독교수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신앙과 교육일반, 그리고 전문분야에 대해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수개발은 수업개발, 조직개발, 연구 전문성개발, 개인 성장의 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교수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 교수-학습에 대한 이해와 방법 개선, 교육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I. 서론

기독교대학은 기독교대학이라는 설립이념과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책무성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대학이다.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이 기독교대학의 전 영역, 즉 행정, 재정, 학생지도, 교육, 교수, 봉사 등에서 구현되려면 정체성 회복의 연구도 분야를 세분화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회복이 도움이 될 교수개발의 방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이 정체성 유지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수개발이라는 구체적 영역에 초점을 두고 기독교대학에서의 교수의 역할과 자질은 무엇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접근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탐색을 통해 얻어질 교수개발 방향에 대한 생각은 현재 기독교대학에서 교수개발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접근의 의미와 효과를 돌아보는데 유용한 기준의 역할을 하리라 본다.

II. 기독교수의 역할과 자질

1. 가르침과 연구

기독교 대학의 교수들에게 필요한 구별되어지는 역할과 자질이 있다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지식의 내용 뿐 아니라 지식을 보는 관점에 대한 고민과 연구이다. Mannoia(2000)는 이러한 복합적 역할을 '학자-교수(scholar-teachers)'라고 표현하며 기독교 대학의 교수는 학자로서 얻은 학문을 잘 가르치는 자임을 강조하였다.

2. 사회봉사와 변화주도자

교수의 역할과 자질은 기독교 대학의 교수는 그들 자신이 먼저 “문화의 순응자(conformist)가 아닌 ‘문화의 변혁자(transformist)’이며, 또한 자신과 같은 문화의 변혁자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3. 확고한 기독교수의 정체성 확립

위에서 언급한 가르침과 사회봉사와 변화 모두 기독교 대학 교수에게 필요한 중요한 역할과 갖추어야 할 자질이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학습된 행동패턴 또는 교수로서의 행해야 하는 규율을 지키듯 자성적 고찰이나 동의 없이 의무감으로 행하여지는 무의미한 몸짓에 그칠 수도 있다.

**III. 기독교수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개발의 영역**

**1. 기독교수가 갖추어야 할 역량**

기독교수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일까. 역할수행에 필요한 역량, 즉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 태도에 대해 몇 학자들이 말하는 기독교사의 역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VanDyk (2009)	Harris & Lumsden (2006)	Mannoia (2000)
기독교	기독교세계관	기독교신앙, 신앙과 학문 통합능력	통합능력
교육일반	교육에 대한 철학 교수학습 이해	가르치는 능력, 학생지도능력	교육비전 철학 fit, 학제적 통합능력, 이론실제 통합, 학생발달
전문분야	전문분야 지식	전문분야 실력	전문지식과 학제적 통합 실력

**2. 교수개발 (Faculty development)의 영역**

교수개발이라 할 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수준과 궁극적으로 대학의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 중 교수 개인의 자질과 역량 향상을 통해 접근하는 활동을 총칭한다.

영역	개념	프로그램 예
수업개발 Instructional development	교수법, 교과과정설계, 학습이해 등 교수자의 수업개선을 위한 지식 및 기술지원 영역	교수법이나 학습원리 관련 워크샵이나 세미나 매체 및 온라인활용
조직개발 Organizational development	대학의 철학과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교수가 대학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영역	교육과정연구, 학과 프로그램평가 학습성과 평가, 만족도 평가
(연구) 전문성개발 professional development	연구면에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영역	교육연구, 소그룹 커뮤니티, 소액연구비프로그램
개인성장 personal development	교수역할수행에 필요한 사회심리적 조건과 기술을 이해하고 익히는 영역	워크샵이나 세미나, 멘토링

**3. 교수개발의 기독교적 접근**

교수개발이라는 교육적 행위가 어떤 성격이 되어야 하는지 Larson(2009)은 파커 파머의 가르침에 대한 정의, “가르침은 진리애의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Palmer, 1983, p.69)을 인용하면서 교수개발의 영역에서는 “환대(hospitality)”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IV. 기독교 대학의 교수개발 프로그램의 유형**

**1.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교수개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기독교대학의 교수개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본문에서는 미 기독교대학의 연합체인 COCU의 정회원교 중 기독교기독교교육의 이념을 모범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미국의 켈빈대학, 휘튼대학, 바이올라대학교, 아주사퍼시픽대학교와 국내 백석대학교에서 이뤄지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 노력을 소개한다.

**2. 교수-학습에 대한 이해와 방법 개선을 위한 교수개발**

교수-학습에 대해 이해하고 교수법 기술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접근은 대다수 대학의 교수개발 프로그램 중 가장 보편적이다. 수업개선이라는 공동의 목적아래 학습에 대한 이해, 수업설계, 다양한 교수법, 학습평가, 교육매체 및 테크놀로지 활용방법 등이 구체적 내용이 된다. 프로그램 방식은 세미나나 워크샵, 강의활영분석과 일대일 수업개선 컨설팅, 초임교수와 경력교수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강의개선을 위한 소그룹 모임, 교수법 안내 자료집 출판 등 다양하다.

**3. 교육연구를 위한 교수개발**

교교육연구, 혹은 교수학습과 관련된 교육연구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활동을 학문의 한 분야로 규정하고, 어떻게 수업을 운영하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가르치는 이가 중심이 아닌 배우는 이가 중심이며, 잘 가르치는 기술을 위한 교수법이 아닌 배우는 학생들이 이해력과 학습 증진을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V. 결론**

**1.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교수개발을 위한 준비**

신앙과 학문의 통합과 관련된 국내외 대학의 프로그램 사례는 기독교 대학에서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자 할 때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 첫째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 프로그램은 비공식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의 소그룹 모임, 체계적 내용이 다루지는 수업형태의 구조화된 프로그램, 에세이 작성, 다양한 자료제공 등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학문분야별 신앙과 학문의 통합 사례 및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노력이 활발하며 자신의 학문분야와 신학분야의 전문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리더를 발굴하거나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수개발을 위한 총괄적 접근**

교수법 중심의 교수개발과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교수개발 활동은 앞서 살펴본 국내의 경우처럼 국내외의 각기 다른 기관이나 전문그룹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교수법 중심의 교수개발과 신앙과 학문의 통합 활동을 위한 교수개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각기 운영하는 경우 상호교류와 협력이 긴밀해야 한다.

**3. 학생지도를 위한 추가 교수개발 영역**

학생들의 성장을 이해하고 이들의 가치관을 명료화하도록 도와주며 인생 면에서의 성장을 돕는 학생지도는 중요한 교수개발의 영역이 되고 있다. 최근 대학교육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의미 명료화,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교수개발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야 하리라 본다.

**4. 교육연구의 활성화**

기독교대학에서의 교육연구는 특히 기독교수들이 수업현장에서 기울이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과 관련된 질문을 다루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독교수들의 교육연구가 축적될수록 각 학문분야별 통합 접근의 다양성 이해, 교수들 간의 자료 공유를 통해 통합의 노력이 시너지를 얻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5. 개별대학의 지원과 대학 간의 교류**

기독교대학 내에서 활발한 교수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하고 대학 구성원들이 그러한 정체성의 유지 계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개별 대학의 차원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대학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다.

3분과. 교육 논찬

## ‘기독교대학 정체성을 위한 교수개발의 방향’에 대한 논평

정한호(충신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유지와 회복을 위한 교수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두고 교수의 역할 및 자질,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접근방법을 탐색하였습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 교수-학습에 대한 이해와 방법의 개선, 교육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한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에서 시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프로그램 개발 방향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효과적인 방안이 모든 기독교대학에서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 기독교대학 산하 교수학습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한 단계 신장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교수개발을 탐색하기 위해, 미 기독교대학의 연합체인 OCCU의 정회원교 중 캘빈대학, 휘튼대학, 바이올라대학교, 아주사피서픽대학교, 그리고 국내 백석대학교의 사례를 언급하였다. 이 같은 사례는 앞으로 국내 기독교대학의 교수개발 프로그램의 발전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장로회신학대학교의 교수 대상 교육연구법 강좌, 교육연구비 지원, 교수학습관련 연구프로젝트,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연구논문지 발간사례는, 앞으로 기독교대학 교수학습센터(CTL)가 어떠한 방향으로 교수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유지와 회복을 위해 교수들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신장에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교수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언급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교수개발을 위한 준비, 교수개발을 위한 총괄적 접근, 학생지도를 위한 추가 교수개발 영역, 교육연구의 활성화, 개별대학의 지원 및 대학 간 교류’ 등과 같은 접근 방식은 각 기독교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교수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발표자도 언급하였듯이, “기독교대학에서의 교수프로그램 개발이 각 대학 독자적 뿐만아니라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실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교수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과 대학교육의 질” 에도 유용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각 대학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일반대학에서는 대학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교수의 연구역량신장과 더불어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각 일반대학에서는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개발센터(교수학습센터, 교수학습개발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석박사급 연구원을 충원하여, 교수멘토링, 수업컨설팅, 수업저작도구, 원격강의시스템 등과 같은 다양한 교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수개발정보의 공유 및 각종 교수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에 도움이 되는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각 대학의 교육개발센터가 중심이 되어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를 설립하고 연 2회에 걸쳐 교수개발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유·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에서 공유되는 정보 및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교수방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위한 교수개발의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위한 교수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의 설립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같은 기독교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설립의 당위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을 계기로 기독교대학 정체성을 위한 교수개발 방향을 효과적으로 정립하고 효과적인 교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독교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설립을 기대해본다.

3분과. 교육 발표

## 어린이용 하나님 개념 측정도구

김성원 (충신대학교)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하나님 개념 연구에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런데 국내 하나님 연구의 특징은 1)이론에 관한 철학적 연구가 주류, 2)뒤가 트인 주관식 문항을 사용, 3)소수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 4)양적연구는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어린이(유아)를 대상으로 할 하나님 개념의 양적연구는 소수가 있는데, 이 때 고등학생용으로 개발된 설문지(김난예, 2002)를 쉽게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외국의 척도(Dickie & Others, 1997)를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국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개발된 하나님 개념 측정도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5세부터 6학년까지 어린이의 하나님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어린이의 하나님 개념과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밝혀 기독교교육의 방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린이 하나님 개념 측정도구의 요인 및 예비문항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린이 하나님 개념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떠한가?

### II. 하나님 개념 측정도구의 이론적 배경

하나님 개념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관점, 발달적 이해, 방법론적 고려사항, 이미 개발된 측정도구를 소개하는 선행연구에 대해서 먼저 연구되어야 한다. 신학자들은 신론을 하나님의 속성(The attributes of the Trinitarian God)과 하나님의 하신 일(The essential works of God)로 구분한다(Erickson, 1998: 293, 413; Estep, 2008). Erickson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원적 사역으로서의 창조와 지속적 사역으로서의 섭리로 나누고,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하심으로 구분한다. Estep 역시 유사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비관계적 속성과 관계적 속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각 연령대에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개념을 소개한바 있다(Beers, 1986; Downs, 1994; Trent et al., 2000; LifeWay). 연구 원문에서는 Dickie와 동료들(1997), 김난예(2002), 김신옥(2003), 이영주(2007), Kim(2007, 2008a)에 의해 개발된 측정도구를 소개한다. 아울러 문화 비교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한국 어린이들의 하나님 개념의 특징을 소개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내용 타당도 검사를 통해 선정된 27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치원에서 6학년에 해당하는 어린이 6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study)를 하였다. 신뢰도 측정 후 선별된 25문항에 대한 본 연구에서 360명의 자료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이하에서는 연구절차 중 중요 단계만을 선택적으로 소개한다.

#### 1) 예비 문항 구성

측정하고자 하는 분야의 문헌고찰과 이미 개발된 측정도구를 기초로 필요로 하는 문항 수의 2배에 해당하는 문제를 작성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이해, 발달 이론, 방법론적 고려, 문화적 특성, 이미

제작된 하나님 개념 측정도구를 기초로 44문항을 제작하였다.

#### 2) 타당도 조사

내용 타당도 조사를 위해서 6~8명의 전문가를 초청한다(Yount, 2006: 12~13). 자문위원(panel members)은 조직신학, 기독교교육, 유아교육, 측정도구 개발 영역의 교수 또는 박사 6인과 초등학교 교사 경력 10년 이상과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 1인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들은 내용타당도를 평가하였는데, 문항과 측정 개념과의 관련성(relevance to the study)과 표현의 적절성(clarity of composition)(Yount, 2006)을 5점 평정척도로 평가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27개의 객관식 문항과 9개의 주관식 문항, 그리고 하나님 그리기가 선정되었다.

#### 3) 예비조사

하나님에 대한 어린이들의 개념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2012년 3월 11일부터 4월 8일까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 62명을 초청하여 예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했다.

#### 4) 신뢰도 조사와 문항 수정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결정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1차 검사에서 .60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내적 일치도를 낮추는 네 개의 문항이 제거되거나 수정되었다. 27개의 문항이 25개의 문항으로 수정되었으며, 2차 신뢰도 검사에서 Cronbach alpha 점수 .70을 얻었다. 신뢰도 검사를 통과한 25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오게 하신다; 2)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3)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4)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 시간에만 만날 수 있다; 5)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6)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7)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음식과 옷을 주신다; 8)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음식과 옷을 주신다; 9)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 10)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각했다; 11)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12)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13) 내가 캄캄한 곳에 숨으면 하나님은 나를 보실 수 없다; 14) 하나님은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15)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혼자 있을 때, 아플 때, 슬플 때) 나를 돌보아 주신다; 16)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고 자랑하고 싶은 분이시다; 17)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18)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 하나님은 내 마음 속의 생각(기쁨, 미움, 걱정)을 알고 계신다; 20)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죄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으신다; 21)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22)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23)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24) 하나님도 사람처럼 시간이 지나면 늙고 약해지신다; 25) 내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 5) 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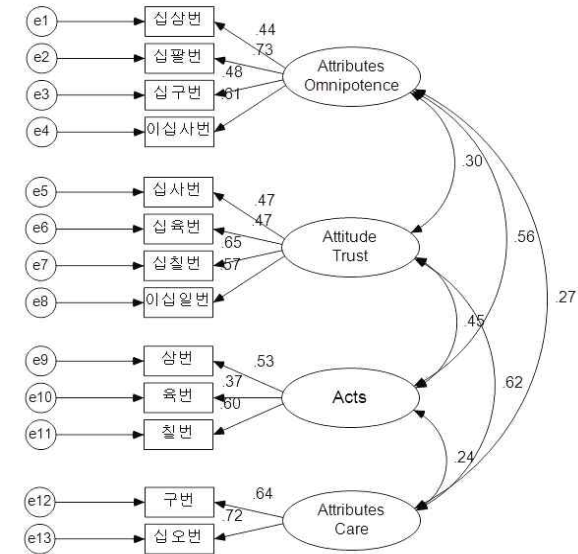
본 조사는 2012년 4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교회에 다니는 만5세~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열 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360명의 어린이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 6) 탐색적 요인분석

어린이용 하나님 개념 측정도구에 선정된 25개 문항의 구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회전에 있어서는 Kaiser의 정규화가 있는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선택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 1.0이상, 요인적재량이 .40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는 사회과학 분야의 요인과 문항 선택 기준(송지준, 2008: 73)에 의하여 8개의 요인으로 정리되었다: 1요인-하나님의 전능성(18번, 24번, 13번, 19번); 2요인-하나님의 돌보심(15번, 9번); 3요인-하나님이 하시는 일(11번, 14번, 8번); 4요인-하나님이 하시는 일II(3번, 6번, 7번); 5요인-구원(2번, 4번, 12번); 6요인-하나님에 대한 태도(21번, 16번, 17번); 7요인-하나님과 사람의 공통점/다른점(10번, 22번); 8요인-죄(23번, 20번). 각 요인에 대한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43에서 .81로 나타났으며 9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58.30%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확인적 요인분석

개발된 25개 문항을 선행이론에 근거하여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재확인 하였다. 최적의 모델과 모델적합도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정을 반복한 결과, 최종적으로 아래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4개로 요인이 축소되었으며 여기에는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어린이 하나님 개념 측정도구의 모델적합도는  $\chi^2=138.86(df=59, p<.001)$ , RMR=.014, GFI=.944, AGFI=.913, RMSEA=.061, CFI=.884, NFI=.819, IFI=.887로 기준치에 도달하는 지수와 도달하지 못하는 몇몇 지수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해 검증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해는 것인 가능한데(송지준, 2008: 245)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보다 축소된 경향은 있으나 요인구성이 거의 비슷하여 신뢰도 있는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3분과. 교육 논찬

## 〈논찬〉 김성원 박사의 “어린이용 하나님 개념 측정도구 개발”

논찬자: 조혜정(충신대학교)

김성원 박사의 연구 ‘어린이용 하나님 개념 측정도구 개발’에 대하여 논찬을 하기에 앞서 먼저 연구자가 쏟은 시간과 열정, 노고에 기독교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깊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누군가가 해야 할 무거운 과제를 연구자께서 적극적으로 실타래를 풀어준 것에 대해 안도감이며 동시에 같은 필드에서 일하는 동역자로서 갖게 되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보다 완성도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는 것이 논찬자의 임무이기에 본 논찬자는 아래와 같이 사족을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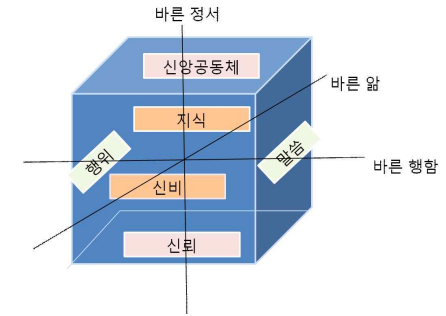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서.

서론에서 연구자는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다각적인 연구가 있었음을 살피면서 그 개념은 소수의 성인과 고등학생 이상의 연구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 개념의 측정도구 개발이 본 연구의 독특성이며 주된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구자께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서 이 연구 본연의 취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작 왜 하나님 개념 측정도구가 필요하며 이 도구개발로 가져오게 되는 교육적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개발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해 봅니다. 어린이용 하나님 개념 측정 도구 개발로 얻게 되는 파급효과와 교회학교 어린이에게 있어서 하나님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파악된 결과가 어린이를 비롯하여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혹은 부모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 신앙교육 차원에서 어떠한 교육적 단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시사 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여전히 궁금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연구자께서 독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명시하여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 2. 하나님 개념 측정도구의 이론적 배경

연구자는 p3에서 Trent의 연령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면서 이들 연령에 맞게 배워야 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알기’, ‘사랑하기’, ‘생활하기’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이는 미국 칼빈대학교 기독교교육 학자인 DeVries의 Faith(신앙)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림1>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Orthodoxy(바른 믿음), Orthopraxis(바른 행위)로 보았고 바른 믿음으로 지식과 신비, 바른 정서로 신뢰와 신앙공동체, 바른 행위로 행함과 말씀을 들어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알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사고만으로 부족하며 반드시 개인의 삶과 경험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집인적인 응답이기에 전인적 발달영역인 3가지 영역이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연구자가 제시하고 있는 7-9세에서 ‘알기’, ‘사랑하기’ 외에도 ‘생활하기’의 영역을 함께 다루어 주시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따라서 누락된 ‘생활하기’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림 1〉 믿음의 주사위<sup>30)</sup>

### 3. 연구방법에 대하여

1) 연구대상에 있어서 전체 대상(360명) 가운데 4학년 아동이 127명(35.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집단인 만5세 유아-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표하는 샘플로는 대상이 편향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만5세가 본 측정도구를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사용한 어휘와 문장이 무리가 있어 보이며 또한 만5세와 초등학교 6학년은 발달상 같은 도구로 측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 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검사 도구에 있어서 3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념이 모호하거나 소극적인 아이들인 경우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 또 연령에 따라서 중앙오류(2번에 집중됨)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2) 구성개념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 범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집중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범치 타당성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아울러 판별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림2>에서 잠재변수 간에 상관이 높은 문항이 일수록 판별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 Attitude Trust 와 Attributes care가 .62로 높은 편임을 감안할 때 우려되는 바가 있어 보입니다.

3) 연구결과에서 최종 개발된 문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록1>에서 1차 신뢰도 검사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오히려 최종 개발된 문항을 잠재변수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리라 여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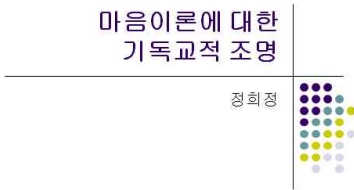
김성원 박사의 연구 ‘어린이용 하나님 개념 측정도구 개발’에 대하여 논찬을 하면서 다시한 번 느끼게 되는 바는 본 연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에는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시며 또한 이 분야에 오랫동안 축적된 지식과 관심, 그리고 열정이 있는 연구자였기에 가능한 연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옥고(玉稿)에 다시금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본 논찬을 줄이고자 합니다.

30) Robert C. DeVries, (2000). To the Heart of Teaching: The Catechetical Ministry of the Church, Manuscript. Calvin Theological Seminary.

3분과. 교육 발표

### 마음이론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정희정 (충신대학교)



• 인성교육에 대한 관점

- 인간교육
- 인격교육
- 심리교육

→ '마음'과 관련

• 유아기 인성발달의 덕목:

- 자기 자신을 배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
-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수용하게 하는 것
- 자기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이나 행동들 통제하고 조절능력을 함양시키는 것
-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함양시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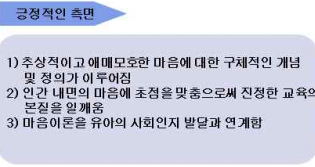
마음이론의 연구동향



마음이론의 개념

- 마음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언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 마음의 구성요소는 신념, 욕구, 정서, 의도 등과 같은 마음상태이다.

마음이론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부정적인 측면

- 마음의 본성과 위치를 고찰하지 못함
- 마음이론의 연구방향이 주로 타인과의 관계 측면에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쪽으로 이루어짐
- 인성 교육의 측면에서 마음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음

성경에 나타난 마음

- 당후 1: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 시 20:4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 고전 2: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 히 10: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결론

- 마음에 대한 이해는 일차적으로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간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마음의 분석적인 측면을 고찰해야 한다.
- 선함과 악함의 측면에서 감정을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자기 초월의 과정으로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마음의 변화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 나타난 마음

- 창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 창 6:6 "왕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 마음에 근심하시고"
- 골 3:26 "또 세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 눅 6:45 "선한 사람은 마음의 샘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샘은 악에서 악을 내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성경에 나타난 마음

마음	선한 마음	선한감정 선한욕구
	악한 마음	악한감정 악한욕구

삼상 2:35

"내가 나를 위하여 축성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니라"

↓

심리학에서는 개인적 욕구의 충족과 의제가 사회적 욕구에 의해 조절된다고 하는 자기초월의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면, 기독교 교육에서는 인간의 완전한 죄성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의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포기함으로써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를 이루게 된다.

## 3분과. 교육 논찬

## 논의: 마음이론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김정희 (평택대학교)

오늘날 고도 산업화로의 급성장은 물질적 풍요,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통적인 윤리관이나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따른 경쟁의식이 팽배해졌으며, 사회와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일탈 행위의 증가, 학교폭력의 증대, 집단 따돌림 현상, 사회 범죄 등의 도덕성 쇠퇴 현상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연령은 점점 더 하향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이러한 불안정한 사회의 모습으로 인해 인성교육이 필요하게 되었고,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상 교육기관이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함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함을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다(김준영, 2003; 이효정, 2004; 이병석, 2009; 박경옥, 2010).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관련 마음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인성교육의 틀 안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마음이론에 대한 긍정적 측면 및 부정적 측면에서의 평가와 함께 성격에 나타난 마음을 분석해봄으로써 마음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진 교육의 결과를 평가해봄으로써 향후 미래의 교육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교육의 형식이 아닌 내용에 초점을 둬서 교육을 통한 진정한 인간의 변화를 이끌어야 내야 한다는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라 여겨진다. 특히 기독교 교육의 측면에서 인간의 본질적 변화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성교육이란 결국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의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시한 본 연구는 향후 기독교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쉐릴에 의하면 인간 자아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본질이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때 인간 자아가 신적 자아에게 하는 응답의 본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자아의 심층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며, 이러한 자아의 변화를 돕는 것이 기독교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목적이란 말한다. 쉐릴은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로서 기능적 자아로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은 자신의 이기성에 사로잡혀 실존하는, 자아의 불행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존적 자아로 살아가면서 불안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간으로 하여금 본래의 기능적 자아의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중심과제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에서 가능하다(Sherrill, 1981).

따라서 마음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을 통해 마음을 선함과 악함의 측면에서 각각 감정과 욕구로 분석하고, 인간 본성의 변화를 이러한 욕구의 변화로 제시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기독교 교육학에서의 목표 및 구체적 방법까지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적 욕구-사회적 욕구-하나님께 대한 욕구의 구조는 일반 인성교육에서 말하는 성품의 변화 및 도덕성의 변화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욕구(desire)의 충족과 역제가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되어 심리학에서도 연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육학회(1998)에서도 인성교육의 목적이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일임을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인성의 소유자는 자신의 본능적 충동이나 감정 때문에 좌절하기 보다는 이를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승화시켜 표현할 줄 알며, 감정과 본능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건전한 인성의 소유자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유아들 또한 유아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에 대해 감정적인 균형을 갖도록 증세함으

로써 충동조절에서 자기반성, 나아가 조망능력을 갖게 되는 점진적 과정으로 나아가갈 필요가 있다(DeVries & Zan, 1994).

향후 기독교 교육의 측면에서 마음에 대한 더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 본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결론과 관련지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마음과 행동과의 연관성 속에서 교육의 대상자인 유아들의 마음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유아들이 4세 이후에 마음이론을 습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반해 그 이전 연령 유아들의 마음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심리학에서 4세 이전 유아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소위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음을 분석하는데 있어 심리학적 도구들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맞는 도구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어린 영아들의 마음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격에 나타난 마음의 구성요소로 감정과 욕구를 제시하였다. 성격 말씀을 분석하여 감정과 욕구, 특히 선함과 악함의 측면에서 이를 분석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마음의 구성요소를 신념, 욕구, 정서, 의도 등과 같은 마음상태로 분석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연구에서 마음의 구성요소를 감정과 욕구, 두 가지로만 분석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심리학에서 제시한 신념, 욕구, 정서, 의도 등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이며 이를 각각 분리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감정과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더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독교 교육에서의 마음이론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에서 개인적 욕구의 충족과 역제가 사회적 욕구에 의해 조절된다고 하는 자기조절의 과정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육에서는 인간의 완전한 죄성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의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포기함으로써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를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론이 더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한 인간이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화에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개인적 욕구-사회적 욕구-하나님께 대한 욕구의 단계로 구체화된다면 도덕성 발달 및 성화의 과정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들과 실증적인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결론의 타당성을 입증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제4분과 : 문학 / 예술

4분과. 문화/예술 발표

### 『에어리얼 시편들』(Ariel Poems)에 나타난 역설적 죽음

김경철(고신대)

엘리엇은 평생 “실재”(reality)의 세계를 추구한 시인이자 비평가이고 또한 철학자였다. 그가 일생동안 발표한 시나 평론, 또는 철학논문은 이 목표를 향해 살았던 시인의 자기 고백에 다름 아니다(Kimball). 그리고 그의 시는 스펜더(Spender)가 지적하듯이 『신곡』(Divine Comedy)구조처럼 지옥에서 연옥으로, 그리고 다시 천국으로 나아가는 시의 구조를 택하고 있다고 보아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 엘리엇이 자신의 죽음 직후 발표한 『에어리얼 시편들』에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색채가 초기시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고는 『에어리얼 시편들』에는 죽음에 대한 동경이 역설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 죽음에 대한 갈망은 다름 아닌 초월적 세계에서의 재생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에어리얼 시편들』에 속하는 4개의 시는 시간과 육체라는 이 일상세계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을 그리고 있으나 이런 영적 갈망은 쉽게 성취되지 않는데 이는 엘리엇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쓴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시를 쓰고 있기 때문이며(Murphy 51)이 것이 결국 엘리엇의 시와 신화 내지는 사상을 서로 상이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죽음에의 동경은 엘리엇이 개종을 선언하던 해에 발표한 『박사들의 여행』(Journey of the Magi)에서 명징하게 드러난다. 개종은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부정하고 돌아서는 일로서 어쩌면 죽음과도 같은 사건이었을 것이다. 엘리엇은 이 시에서 시의 내용을 성경 스토리의 전개형식과는 달리, 여행자가 귀국한 후 자신의 여정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단호하게 여행을 떠난 박사들은 곧 이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자신들이 떠난 과거의 아늑하고 유익적인 삶을 아쉬워한다(Gish 60). 이제 멀고 먼 나라에서 모든 어려운 조건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한 아이의 탄생을 찾아 나선 박사들의 목표는 “다 어리석은 것”이고 긴 여정이 결국 무로 끝날 지도 모른다는 애매함이 강하게 부각된다.

프랑스 시인 상-존 퍼스(saint-john Perse)의 경우처럼 이 시 『박사들의 여행』 역시 여행에 대한 상세한 기술보다는 “내면을 향한 영적인 추구”에 관심이 있다(Jain, 233).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에 대한 경배 그 자체가 여행의 목적인데 반해서 이 시에서는 그 먼 길을 걸은 목적이 점점 애매해지고 목적지에 도착할지도 불확실하고 또한 거기에 어떤 성취감도 없다. 예수의 탄생을 보러 출발한 여정이지만 탄생은 강조되지 않고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암시되고 있다.

여기서 엘리엇의 장기인 역설의 수사학은 유감없이 발휘된다. 여기서 시인은 의도적으로 중요한 “신적 사건이자 초자연적 주제를 일상화하고 있다(Johnson 70). 한편 이 시와 대비되는 『게런천』(Gerontion)은 비록 거부된 역사관점에서 쓰였지만 도리어 그 텍스트 내에는 강렬한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역설적으로 그와 대조되게 이 시 『박사들의 여행』에서는 명징한 그리스도 사건이 도리어 일상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엘리엇의 서술적 역설이 여실히 나타난다. 신앙의 부재를 다루는 시에서는 강렬한 신앙적 이미지가 등장하고 그 대신 제목에서부터 신앙을 표방하는 이 시에서는 도리어 신앙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시는 이야기를 할 듯 보이지만 역설적인 것은 시가 진행될수록 텍스트는 가상적 여행의 표면 위로 헤벌 뿐이고 이야기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이야기 대신 도리어 비인격적인 요소들만 나열되고 중국

에는 신적 사건의 그 자리에 도착하지만 실체인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무 실체 없이 ‘추상화’되어 버린다. 이 시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것은 탄생과 죽음이고 결국 시인의 개종이후의 작품인 이 텍스트는 기독교의 신적 탄생을 발견하려는 강렬한 추구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는 도리어 “죽음이 생명을 지배”하고 있다(Johnson 68-70). 결국 이 시는 “죽음에의 욕망”으로 결론지어지면서 이 시의 배경인 기독교 기원에 대한 “어떠한 문화적, 영적, 또는 종교적 의미”도 제시하지 않는다. 영적 사랑(spiritual eros)에 대한 표현을 기대하는 독자의 기대는 시적 자아가 느끼는 영적 죽음(spiritual thanatos)으로 구성된 예술적 결론과 충돌한다: “I should be glad of another death”. 이 죽음-소원은 『황무지』 서두에 등장하는 쿠마 무녀의 소원과 연결되고 엘리엇의 또 다른 시 『엘리엇씨의 주일 아침 예배』(Mr. Eliot's Sunday Morning Service)가 교회가 복음 메시지를 세속화하는 것에 반항하는 이 시의 분위기 속에서 “불신자의 신앙”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이 시 『박사들의 여행』은 신적 현현을 세속화시킴으로써 “신자의 불신앙”을 표현하고 있다(Johnson 70-71). 이리하여 『게런천』 Gerontion과는 달리 이 시에서는 엘리엇이 탄생과 죽음을 동일시함으로써 패러다임의 한 축인 탄생이 취소되고 결국 “나는 탄생과 죽음을 보았다 / 그러나 그들이 다르다고 생각했었다”는 표현을 통해 이 둘이 다르지 않음을 암시함으로써 이 차이의 생략은 “감각의 극단적 생략”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의미론적 림보”를 구성한다. 엘리엇은 이 시에서 하듯이 패러다임적인 대치어들의 차이를 허무는 일을 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다는 존슨의 말은 상당히 정확하다(Johnson 71).

결국 『박사들의 여행』은 원 텍스트의 내용을 비틀어 재복과는 달리 신앙인의 불신앙을 토로하는 시로서 결국 생명을 찾아가는 “신앙인”의 여정이 죽음에 향하고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막을 내린다.

늙은 시인이 생시에 메시지를 볼 것이라는 성경 예언대로 아기 예수를 안고 “nunc dimittis”를 노래하는 것을 저변에 깔고있는 이 시 『시므온을 위한 노래』(A Song for Simeon)는 당연히 ‘시몬의 노래’가 되어야하지만 엘리엇은 이 시 제목을 『시므온을 위한 노래』로 변형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서사와 역사의 간격”(narrative and historical distance)을 느끼게 만든다(Timmerman 117). 엘리엇은 계속해서 이 시에서 성경의 시므온을 황무지의 현대 거주인들로 변형시키고 시므온의 역사적인 자리는 옛날 예루살렘이면서 동시에 오늘날의 현대 구도자가 서있는 자리가 된다(Timmerman 120). 이제 이 고난의 행렬에 엘리엇도 포함되어 이 시의 밑바닥에는 엘리엇의 지나온 과거가 묻어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 순간에 이미지는 극적으로 십자가 처형으로 변형된다(Timmerman 121).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진 “빌라도의 징벌”과 예루살렘을 벗어나 처형장으로 향할 때 그리스도를 따라오던 “여인들의 슬픔과 통곡”, 그리고 십자가 처형장, 운명하시던 제9시, 그리고 갈보리를 가리키는 멸망의 산 전부는 십자가 처형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더욱 구체화한다.

『시므온을 위한 노래』에서 죽음이 주도하는 ‘환멸의 철학’은 이제 엘리엇의 가장 난해한 주제인 성육신과 만나면서 모든 의미와 가치를 한 가지 점을 행하여 나아간다(Gish 58-9). 『박사들의 여행』에서처럼 이 두 사건, 곧 “성육신과 십자가 처형”은 여기서도 포개지고 이와 동시에 “시간과 영원”이 포개진다. “성육신과 십자가 처형은 결합된 하나의 영적인 사건이 되어 시간을 구속하고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인식능력을 완전히 변화”시킨다(Timmerman 121). 성육신의 실체인 아기를 안고 그 실제 안에서 미래에 벌어질 놀라운 사건들을 동시에 보는 시므온에게는 그런 엄청난 순교와 최종적 비전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런 기회가 자신에게는 다가오지 않기를 간구한다.

『박사들의 여행』이나 이 시 『시므온을 위한 노래』는 “성육신과 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묘사하는 시로 보아 무방하다(Gish 59). 결국 자신이 “과거에 믿던 신앙을 부정함으로써 느끼는 소외감과 성육신의 신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은 결국 죽음을 통해 이런 곤란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열망”으로 나타난다(Jain 232).

『마리나』(Marina)는 시의 제목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페리클레스』(Pericles)를 연상시키는 시로서 엘리엇은 셰익스피어의 후기 작품들 안에서 일상 경험에서 느끼는 정서와는 다른 차원의 “일상을 초월한 정서와 감정의 세계”를 발견한다. 이 시를 통하여 엘리엇은 독자로 하여금 놀라움 가운데 의미

를 깨닫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계시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식”이기 때문이다 (Murphy 301). 시극 작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실제 세계로 고양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단지 희미하게 드러나는 어떤 은익된 그리고 신비한 패턴의 실제”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마리나』에서 엘리엇은 작품의 등장인물들을 새로운 차원의 실제 모습을 전달하는 매개물로 만들고 있다(Jain 242). 페리클레스로 하여금 “그가 추구하는 진리는 그가 보는 실제 그것이라는 단일한 가능성으로 인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딸 마리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결국 그로 하여금 “실재인 그 하나의 실제”(the one reality that is real)로 인도하고 그것은 “바로 거기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사람”(the one right there before his eyes)이다.

불확실한 질문을 한 다음 페리클레스가 그 질문의 의미를 계속 추구하자 그 와중에 비실재로 변형되고 다시 은혜로 인해 붕괴되는 것은 “딸이 아니라 죽음”이다(Murphy 302). 결국 이 시 『마리나』를 통하여 『에어리얼 시편들』에 중요 모티브로 등장하던 죽음은 초극되고 초월된다.

그가 죽음이라고 명명한 것들은 “이 세상에 대한 탐욕적 추구의 표지”였다. 페리클레스는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선다. 딸이 없을 때에는 세상과 그 모든 허영이 더 이상 자기에게 어떤 경우에서도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딸의 죽음 소식에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여기”라는 근시안에서 해방되자 서서히 시의 주인공 페리클레스는 “저기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 - 저기 있는 것, 자신의 딸이 된다”(what is there become just that - what is there, is daughter)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고 “세상을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려는 자신의 결단이 사랑을 상실한 견딜 수 없는 존재의 고통에서부터 그를 구원하는 것”이다(Murphy 302).

인식의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는 실체의 모습은 다분히 역설적이다. 덜 분명하다가 더 분명해지고 강하지 않다가 더 강해지는 실체의 모습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주신 것인가 아니면 빌려주신 것인가”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것으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에서 근원된 것으로 제인이 이 시의 “기독교적인 해석”을 주장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245). 이 리하여 쉽게 포착되지 않는 마리나의 모습에는 다시 영적인 의미가 덮여진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딸 마리나의 이 형태, 마리나의 생명은 자신을 초월한 세계에 살고 있기에 자신은 이 실체를 손에 잡기 위해 죽음도 불사한다. 워드(Ward)는 이 시가 “마리나의 죽음을 통한 새로운 초월”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표현이 마리나라고 정확히 주장하고 있다(164).

이 자태, 이 얼굴, 이 생명  
나를 초월한 시간 세계 속에 살기위해 살아있는; 나로 하여금  
이 생명을 위해 내 목숨을, 말 없는 그것을 위해 내 말을 버리게 하소서

낡은 선박에 비유되던 자신이 이제 눈앞의 딸을 마주하고 나서 그 딸과의 영속적인 삶을 위하여 죽음을 회구한다. 그러나 이제 그가 원하는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닌 초월적 세계에서의 재생을 위한 죽음이다. 달리 말하면 초월을 향한 자기소거(self-abnegation)로서의 죽음이다. 『에어리얼 시편들』의 전체 시에서 그 밑바닥에 흐르는 “환멸의 철학”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결합하여 시의 의미는 신학적이 되고 신학은 결국 엘리엇에게서 시로 나타난다. 시인 자신의 삶이 그러했듯이<sup>31)</sup> 엘리엇의 모든 시에서 긍정은 그리 쉽지 않다(Maxwell 191). 박사들에게 재생이 “어렵고 힘든 고뇌”였듯이 그리고 시므온에게는 “최종 비전”이 거부되고 애니물라(Animula) 아이의 순진함이 타락한 세상에 희생물이듯이 『에어리얼 시편들』의 대단원인 『마리나』에서도 극적인 인식의 순간은 다시 이어진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서 자기 앞에서 있는 이 극적인 순간에 페리클레스는 자기 딸을 향하여

“너를 낳은 그를 낳은 너”(Thou that beget' st him that did thee beget<sup>32)</sup>)라고 절규한다.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딸을 낳았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딸로 인해 자신이 새로이 태어난 것이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요한 1:15)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pre-existence)가 곧 그가 하나님임을 증거한다고 설파한 요한처럼 자기가 낳은 딸이 도리어 자신을 낳았다는 말을 통해 그는 영적 재생에 이른다. 결국 다시 살아 돌아온 딸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페리클레스는 영적인 재생에 이르는 것이다.

이제 딸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 재생한 페리클레스에게 있어서 이 사랑 앞에서 프롤로그에 나오는 페렌스(Ference)의 “무엇”(What)이라는 절규는 페리클레스의 환희로 변형된다. 이런 맥락에서 제인이 딸 마리나를 페리클레스의 “영적 재생의 매개물”로 보면서 “기독교적 해석”(241-245)을 주장한 것이나 윌슨 나이트(Wilson Knight)가 “재생의 주제”를 이야기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윌슨 나이트는 페리클레스를 분석하면서 “페리클레스 신화가... 그 신비적 진리 즉, 그리스도의 광야 유혹, 비극적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knight 24-30).

마리나의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 회복된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프롤로그에 나오는 헤큐리스 퓨렌스(Hercures Furens)의 극적 광기와 비극적 종말은 환희로 변형되고 이제 죽은 딸과의 극적인 조우의 현장에 딸 마리나를 부르는 티티새 소리가 들린다<sup>33)</sup>

32) Shakespeare, Pericles V. I

33) Jain은 프롤로그와 관련지어 계속적으로 Marina의 양면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엘리엇은 프롤로그의 내용을 시의 마지막에서의 목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31) 엘리엇 (Acroyd, Peter, p. 에인)



## 김경철 교수의 논문 『에어리얼 시편들』(Ariel Poems)에 나타난 역설적 죽음에 대한 논찬문

정성호(중앙대)

김경철 교수님의 논문은 20세기 최고의 영어권 시인의 한 사람인 T. S. Eliot(1888-1965)이 1927~1930년에 걸쳐 『에어리얼 시편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시 4편 중에서 주로 「박사들의 여행」(“Journey of the Magi”, 1927), 「시므온을 위한 노래」(“A Song of Simeon”, 1928), 「마리나」(“Marina”, 1930)의 3편을 골라 “엘리엇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역설적 죽음이란 주제로, 설득력 있는 해석이며 비평이다. 이 시들은 엘리엇이 1927년에 “나는 문학에 있어서는 고전주의자, 정치에 있어서는 입헌주의자, 종교에 있어서는 영국 성공회 교인이 되었다”고 선언한 후 발표한 시들이다. 김 교수는 엘리엇의 초기의 대표시인 “『황무지』(1922)에 암시되던 것이 점점 구체화되어서 나타난다고 전제하고 … 『에어리얼 시편들』에는 특히 죽음에 대한 동경 내지는 갈망이 역설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 죽음에 대한 갈망은 다른 아닌 초월적 세계에서의 재생 임을 지적하면서 「박사들의 여행」, 「시므온을 위한 노래」, 「마리나」를 엘리엇의 영적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꼼꼼히 읽고 위 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 흥미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김 교수의 결론은 “과거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초월적 삶을 추구하는 시인은 이제 『에어리얼의 시편들』에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역사성을 제거하는 대신 이를 시로 변형함으로써 … 전체시에서 그 밑바닥에 흐르는 환멸의 철학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결합하여 시의 의미는 신학적이 되고 신학은 결국 엘리엇에게서 시로 나타난다. … 『에어리얼 시편들』의 대단원인 「마리나」에서도 초월적 실재에 인식의 순간은 매우 극적으로 전개” 된다고 결론짓는다. 엘리엇의 시문학 전체에서도 일반적으로는 크게 주목 받지 못하는 시편들을 골라 새롭고도 중요한 의미를 찾아 해석한 김 교수의 깊이 있는 논문을 읽고 배운 바가 많다. 감사드린다.

논찬자는 김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사소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논문이 서두부분의 “엘리엇은 평생 “실재(reality)”의 세계를 추구한 시인이자 비평가이고 또한 철학자였다”에서 “실재”의 개념에 대한 부연설명을 듣고 싶고 또한 시인, 비평가, 철학자의 “실재”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다.

둘째, 엘리엇의 “개종” 문제가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1927년 개종선언은 그 이전의 Protestant에서 Anglo Catholicism으로 바꾼 것을 말하고 있는데 개종이전과 이후의 엘리엇의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셋째, 엘리엇 초기의 대표적인 장시 『황무지』(1922)에는 “고뇌에 찬 절규”에도 불구하고 이 시 『황무지』 어디에도 안정이나 평안이 없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는 안정을 제공할 제의 의식도, 평안을 가져다 줄 기도도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되어 있다. 그러나 『황무지』의 결론 부분에 힌두교의 경전에서 엘리엇이 인용한 3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알고 싶다.

넷째, 이 논문은 서론 말미에 『에어리얼의 시편들』에서 엘리엇의 “영적 갈망을 단순하게 성취되지” 않고 “결국 ‘선결자’로서 전후의 황해상을 토로하지만 그에게서 아직까지 어떤 해결책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적혀있는데 논문의 ‘나가는 말’에서는 “초월적 실재에 대한 인식의 순간은 매우 극적으로 전개된다”든가 “죽음을 통한 극적인 재생이 이루어진”다고 결론짓고 있다. 앞부분 진술과 결론의 진술에 약간 모순이 느껴진다. 이것이 “역설적 죽음”의 결과인가 알고 싶다.

다섯째, 『에어리얼 시편』에서 세 번째 시 “Animula”(1929)에 대해서는 김교수의 논문에서 직접 언급되어 있지만 마지막 시 “The Cultivation of Christmas Trees”는 1954년에 쓰여 추가된 것인데 이 논문에서 거의 언급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 기독교 선악과의 관점에서 바라 본 일본의 화(和) 문화

백성대학교 어문학부 김동욱

머리말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행복의 근원으로 부터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남자의 조상과 여자의 조상이 어느 먼 옛날에 한번 먹었다는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인류가 지금도 항상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현재진행형이다. 성경은 인류가 행복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진 이유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선악의 분별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양날의 칼인 것이다.

“옳은가 그른가, 선인가 악인가?”를 우선하는 것을 ‘정의형(正義型)’,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을 ‘화합형(和合型)’이라고 정의하였을 때, 일본 문화는 전형적인 ‘화합형’이라고 볼 수 있다. “赤信号もみんなと一緒なら恐くない(빨간 신호등도 모두 함께라면 무섭지 않다.)”라는 일본 속담은 아마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문화일 것이다. 옳고 그른 것(선악)보다 화합이 우선이라는 것이 다.

### 일본인의 종교관

일본 ‘화합형’ 문화는 종교 간의 충돌과 갈등 상황도 ‘和’의 문화를 바탕으로 절충과 타협으로 풀어나간다. 일본에는 미국 뉴욕처럼 911 테러를 일으키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도 노르웨이에서 청소년을 집단 학살하였던 기독교 원리주의자도 없다. 애초에 일본에는 종교 전쟁의 소지가 없다.

### 기독교의 ‘GOD’와 신사의 ‘가미(神)’

일본에 불교가 전해지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고유 신앙을 통틀어 신도(神道)라고 한다. 이것은 ‘일본 서기<sup>34)</sup>’에서 불교와 구별하는 뜻으로 쓰기 시작한 한자어이다. 기독교에서도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자를 ‘GOD’라고 부르며, 이를 번역해서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프란체스코 자비에르가 일본에 기독교를 전했을 때 처음에는 ‘GOD’를 ‘다이니치(大日)’라고 번역했다. 진언종의 최고 지배자가 다이니치 여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이니치라는 번역이 불교와 혼동되었기 때문에 도중에 다이니치 대신에 ‘텐슈(天主)’라고 부르기도 했다. 일본 기독교에서 ‘신’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1859년 일본에 와서 가나가와에 살았던 헤본(1815~1911)일 것이다. 메이지<sup>35)</sup> 초기 성서 번역에 종사한 위원들이 ‘GOD’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토론하다가 결말이 나지 않자 표결을 한 결과, ‘신’이 한 표 더 많았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에서도 ‘신’이란 말을 쓰기 시작 한 것이다.

메이지 시대 서양 서적을 번역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가미(神)’와 혼동을 피하려고, 어떤 사람은 ‘텐(天)’이라 번역하고, 또는 ‘조테이(上帝)’라던가 ‘마가미(眞神)’라고 번역했으며, 그 중에는 ‘텐노사마(天翁)’란 말을 만들어 낸 사람도 있었지만, 번역 성서가 일반적으로 쓰이게 됨에 따라 기독교에서도 ‘신’이란 말이 전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기독교의 신이 절대자이며 지배자인 것은 마치 목축민이 가축을 기르고 나서 죽이고 마는 사상과 같다. 일본에는 본래 이에 상응하는 개념은 없

34) 서기 720년경에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정식 역사서.

35) 명치(明治)시대 1868~1912

었으나, 일본의 ‘가미(神)’ 쪽에서 이 영향을 받아 절대자의 위치에 오르는 바람에 ‘가미(神)’란 말의 뜻이 옛날과 달라져 버렸다. 그러나 일본의 신사에는 여전히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가미(神)’가 모셔져 있다. 그 특색은 “모습이 모이지 않고 비상한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비상한 능력은 인간과는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대학교수와 학생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sup>36)</sup>

### 신도와 불교의 和

일본 불교는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천태종(天台宗)은 그 지역 수호신인 오오마쿠이신을 함께 모시고, 진언종(眞言宗)도 지역신인 니후쓰히메신을 함께 모셨다. 일본 불교가 이질적인 토착 종교인 신도(神道)를 수용하는 이론적인 근거는 법화경(法華經)에 있다. 즉 영원불멸의 부처를 진신(眞身)으로 하고, 그 진신이 직접 다가갈 수 없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가 가미(神)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법화경의 ‘여래수랑품’에 나오는 내용이다.<sup>37)</sup>

이것을 보다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일본 불교 특유의 본지수직설(本地垂迹說)인데, ‘가미(神)’를 부처의 가신(假神=垂迹)으로 보고 부처를 진신(眞身=本地)으로 본다. 그러므로 일반 민중이 가미(神)를 믿는 것은 곧 부처를 믿는 것이 되며, 또 부처를 믿는다는 것도 가미(神)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본지수직설에 근거하여 절 안에 신사가 세워지고, 신사의 경내 안에 불교 사찰이 세워졌다. 신사의 사제자와 불교 승려가 함께 거주하며 갖가지 의례를 공동으로 치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매월 1월 15일 이면 나라(奈良)에서는 와카쿠사야마(若草山)라는 산의 일부분을 태우는 종교 의례가 있는데, 처음 불을 점화하는 의례를 카스가대사(春日大社)라는 신도의 사제자와 흥복사(興福寺) 승려가 공동으로 집전한다.<sup>38)</sup> 또한 신사의 행사에 불교 승려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경을 하기도 하고, 유력한 신사에서는 불교의 불살생계에 바탕을 둔 방생회(放生會)를 함께 하기도 한다.<sup>39)</sup>

### 기독교와 국가 신도의 和

일본 메이지 정부는 당초 신도(神道)를 국교화하려 했다가 종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하였다. 그러자 ‘제교분리(祭教分離)’라는 우회로를 선택한다. ‘제교분리’란 신도 의례를 ‘국가의 제사’로 만들어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와 달리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나 기독교 등의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한편, 신도 의례는 국가의 제사 의식이므로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일본 국민인 이상 제사 의식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신사 참배에 대하여 기독교계의 반발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에국 열사를 제사지내는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공적인 의무에 관련된 것이고, 각자의 사적인 신앙과는 별개의 것이다.”라는 절충안으로 타협하게 되었다. 이러한 절충은 일본 정부와 기독교인 쌍방에 이점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종교와 대립하지 않고 신도(神道)만을 “대일본 제국 신민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로서 강요할 수 있었다. 또한 기독교인은 신사참배를 국민으로서의 공적 의무로 수행하는 한, 국가와 대립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sup>40)</sup>

그러나 이러한 절충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기독교계가 점점 비기독교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1941년 일본 개신교 교회는 34개 교파가 합동으로 일본 기독교단을 설립하고 “우리는 기독교 신자임과 동시에 일본 신민이며, 황국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제일로 한다.”라는 선서문을 공포한다. 이어 다음 해 일본 기독교단 대표인 도미타미쯔루(富田満)는 국가 신도의 본산인 이세신궁에 참배하며 아마테라스오미카미에게 일본 기독교계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에 이른다. 기독교의

번영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일본 조상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이미 기독교라고 볼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이러한 주류 기독교단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이 역시 교단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전면 대결이 아닌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 같은 저항으로 나타났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은 일본 최고의 지식인 계층이어서 성서 연구, 문서 전도, 강연 등의 형식으로 국가주의에 포섭된 기독교단을 비판하였다. 즉 주류 교단의 변질에 맞대응을 하기 보다는 기독교 신앙의 지적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和의 형태로 저항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 맺음말

기독교가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 한 근본 원인은 일본인의 사고방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일본인의 사유방식을 ‘정신적 잡거성’이라고 정의한다. ‘정신적 잡거성’의 사유방식을 통하여 상호 원리적으로 모순되는 것까지 무조건 포용하여 평화 공존시키는 사상적 관용의 전통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루야마 마사오는 이런 일본적 사유방식에 유일하게 예외적이었던 경우가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였다고 지적하였다.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는 일본인의 ‘정신적 잡거성’을 원리적으로 부정하는 특성이 있기에 일본인의 정신세계에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36) 이상경(1997) “종교를 알아야 일본을 안다”, 철학과 현실사, p11-12

37) 노성환(1997) “깃가락 사이로 본 일본 문화”, p174, 교보문고

38) 노성환(1989) “비교 관점에서 본 일본 불교와 사회”, p40, 우리얼 우리 문화(6), 우리문화연구원

39)村上重良(1981) “日本宗教事典”, p65, 講談社學術文庫

40) 이상훈(2007) “국가 신도와 기독교-일본인의 삶과 종교” p373, 제이앤씨 출판사

4분과. 문화/예술 발표

복잡계 이론을 활용한 박이도 시인의 언행과 시적 형상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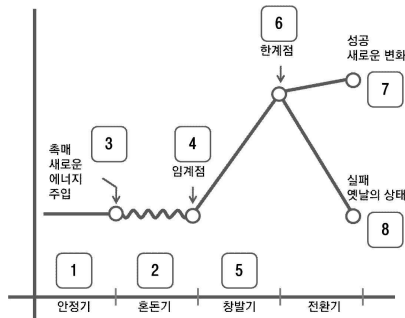
장영창 (경희대학교)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작품을 창조해 내는 작업은 '작가의 다양한 경험과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자신의 내면적 사고와 가치관에 부딪히는 혼돈 속에서, 일정한 미의식으로 창발하여, 자기만의 미학적 취향을 향상시키면서, 문학적으로 자기조직화 하여 표현' 되는 복잡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루어진다.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만난 박이도 시인은 <음성음聲>과 <황제와 나>의 시로 등단한 후,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본능과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을 기독교 가치관과 조화시키며, 시를 창조해 왔다. 그의 시세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고독한 인간의 내면을 감싸주는 아늑함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시세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생명과 자유, 사랑과 구원'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복잡계 이론 중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 를 활용하여 박이도 시인의 언행과 시적 형상화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초기 조건의 민감성 (혼돈 이론)' 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 를 활용한다.



자료 1.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

첫단계에서는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sup>41)</sup>' 를 활용하여, 시 안에서 발생하는 정서의 창발 과정을 분석한다.

41) 윤영수, 채승범,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 연구소.2005, 183쪽.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단계화 한 것이다. 이 도표는 2002년 월드컵 응원 분석 (193쪽), CEO 의사결정 (206쪽), 혁신의 확산 (432쪽)에서도 적용된다.

- ① 안정기 - 기존의 가치관이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 ② 혼돈기 - 새로운 경험이나 내적 갈등이 생기어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상황을 의미한다.
- ③ 축매, 새로운 에너지 주입 - 시인에게 영향을 주는 외부적 영향(섭동)과 내면적 갈등(요동)의 구체적인 소재를 의미한다.
- ④ 임계점 - 시인에게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 ⑥ 한계점(최고점) - 새로운 변화의 자기 조직화가 최고점에 달하여 더 이상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시인의 대답 내용을 기초로 하여, 시인의 철학이 시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자연을 통해 성서의 일반 계시가 어떻게 형상화 되었는지, 박이도 시인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를 살펴보았다. '눈, 돌, 봄비, 안개꽃, 고드름' 의 자연의 소재가 박이도의 시적 언어를 통해 '축복과 기도문으로서의 눈, 태고의 침묵을 깨는 돌, 생명의 봄비, 회중 기도의 안개꽃, 부활하는 고드름' 으로 승화되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내가 시를 쓰지 않으면 신앙적인 나를 알 수 없으므로' 라는 박이도의 신앙고백을 '경험을 통해 삶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신앙,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상황, 거듭남의 기쁨을 노래한 신앙' 등을 살펴보았다.

## “복잡계 이론을 활용한 박이도 시인의 언행과 시적 형상화 분석”에 대한 논찬문

류호열(건국대)

크리스찬인 저로서는 논찬의 기회를 주셔서 작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영광스럽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장영창 선생님의 논문은 최근에 복잡계 이론을 활용하여 문학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갖고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시선으로 평을 하지만, 제 입장에서 신신하게 바라보며 응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본 논문 역시도 복잡계 이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독교 문학과 관련하여 박이도 시인의 작품으로 연구한 바, 2장에서 자연 계시의 시적 형상화와 기독교 신앙의 시적 형상화로 분류하여 분석했습니다. 각기 5편씩의 시를 갖고 분석 했는데, 대표적인 시를 선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적 형상화를 통해서 시인의 삶과 문학적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표자 선생님의 논의에 많은 부분 동의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이 논문을 읽고자 하는 독자들은 단순하게 시에서 나타나는 시어가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구나'라는 정도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작품을 해설 정도로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시 〈설경(雪景)〉을 보면, 눈을 비유한 '신령, 축복, 무반주, 기도문, 언어, 바람, 음악, 생명, 빛' 등 그러한 시어를 선택한 박이도 시인의 즉 기독교 시인으로서의 내밀한 삶이 투영되고 또한 문학적 상관성에 있어서 치절하게 고민 했을텐데...그러한 박이도 시인의 기독교적 사상이 심층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이 논문의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그러한 부분을 깊이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문학의 한 장치로서 복잡계를 활용할진대, 그 중에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활용 했습니다. 안정기-혼돈기-축매, 새로운 에너지 주입-임계점-한계점(최고점)의 과정으로 보았는데, 서사문학인 소설이 아니고 서정문학인 시다보니 전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표자 선생님은 과정에 입각하여 단순하게 내용에 따른 구성처리만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압축,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유연하게 하기는 쉽지 않은 점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될 때는 1번 질문과도 연계성이 있는데, 박이도 시인의 기독교적 삶의 철학이 서사적으로 자기서사가 극명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3. 마지막으로, 아쉽게도 복잡계의 두 번째 단계인 작가의 작품 생성 구조를 후일 연구로 기약했는데, 작가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상황에서 작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외부적 요소로 다양한데 그 다양함이 사실은 박이도 시인의 언행과 시적 형상화 분석에 있어서 훨씬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반 고흐의 <감자먹는 사람들> 연구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필자는 이 논문에서 <감자먹는 사람들>의 출현경위, 그가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 농촌미술, 밀레와의 연관성, 그의 사상에 영향을 준 신학적 배경 등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감자먹는 사람>들은 단순한 인물화이기 전에 그의 예술철학이 농축된 결정체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세가지, 사회적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림이 아니라 허름한 오두막집에서 농부들의 식사하는 장면을 통해 우회적이며,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냈다는 것, 땀을 흘리고 밭을 경작하는 등 노고와 피로움을 매일 반복하고 있지만 그것을 혐오하거나 풍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태도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농촌그림을 개척했다는 것, 기독교미술에 새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을 각각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고흐는 현재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할 필요성을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감자먹는 사람들>은 비록 식탁위에 빵과 포도주가 놓여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단순한 삶과 정직함 속에 이미 초월적인 은혜의 광채가 비추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작품을 해석하는 열쇠는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호롱불에서 찾을 수 있다. 만일 이 호롱불이 없었다면 여기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억지였을지도 모른다. 그에게 불빛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호롱불은 이 그림에서 유일한 '희망'으로 제시된다. 그들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고 비록 한 식탁에 앉아 있지만 서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H.R. 그래츠(Graetz)의 말대로 그들은 서로 시선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 (H.R.Graetz,1934:34) 그런데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호롱불이다. 고흐는 천장에 달려 있어야 할 불을 의도적으로 낮게 끌어내렸다. 고흐는 마치 "교회가 아닌 가정, 그것도 식탁 주위에,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게다가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심" (Jethani,2009:250)을 보여준다. 불빛은 한기가 도는 실내에 따뜻함을 고루 나누어줄 뿐만 아니라 일상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바꾸는 구실을 한다.

고흐가 그린 빛은 이성 혹은 지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계시로서 침묵 가운데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감자로는 육신의 양식을 섭취하지만 빛으로 는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고 있다. 기독교 전 역사에서 볼때 밖으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늘 신비의 베일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것이 바로 <감자먹는 사람들>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 그림은 고흐가 자랑했듯이 기존 농촌그림과 달리 '일하는' 농부를 기용함으로써 진정한 농촌그림을 탄생시켰다. 고흐는 "농촌이나 민중생활을 그리는 것이 -- 파리에서 이국적인 하렘이나 추기경의 연회를 그리는 사람보다 결국에 더 나은 길" (정진국역,2011:394)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고흐가 생각하고 있었던 '농촌그림'은 서양미술사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물론 그전에도 농촌그림은 바르비종의 화가들이나 그 영향으로 생겨난 헤이그의 화가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시도되었다. 고흐는 다른 화가들이 농부를 그릴 때 변죽만 울릴 뿐 정작 핵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화가 자신이 농촌 생활에 깊이 파고들지 못해서" (정진국역,2011:370)라고 하면서 "진정한 농촌화가 로서의 자신감을 나타냈다. 게다가 보리나주에서 광부들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그는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서지 않으면 그들을 알 수도, 그들의 처지를 진심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현실의 안주를 피하고 행동적 실천에 나섰다. 그것이 바로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과 씨부리는 사람, 수확하는 사람, 벼를 돌리는 직조공 등을 선택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고흐는 직설적인 방식을 피하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묘출하였다. 고흐는 기독교 사상속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것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했다. 에릭슨은 "유한한 사물을 통해 무한함을 표현하려는 경향" (Erickson,1998:328)을 반 고흐 예술의 특징이라고 했다. 고흐는 창조세계속에

감추어진 어떤 비밀을 깨내려고 힘썼다. 그 비밀은 무척대고 전수된 것을 받아들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 고희는 고갱의 <올리브 산위의 그리스도>를 보고 공감하지 않았던 것처럼, 경건한 도상을 앞세운 나자렛회파(Nazarenes Movement)나 예술을 예배의 수단으로 이용한 보이론 수도원미술(Beuronese School of Art)에도 흥미가 없었다. 또한 그리스도에게 고대의 옷을 입힐 것인가, 현대식 옷을 입을 것인가, 백인으로 표현할 것인가 흑인으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고흐식으로 풀이하면 기독교미술이란 현실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박제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사랑하라고 뿌리칠 수 없는 권유를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Edwards, 2004:141 재인용) 여기서 고희가 말하는 것은 현존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강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교회를 그리거나 십자가를 형상화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게 기독교미술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고흐는 그러한 신성을 새롭게 상징화하여 자신의 조형체계안에 끌어들이고, 그런 신성을 일상의 사물과 사람들속에서 찾으려고 했다. 물론 이런 시각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종래의 화가들은 성경의 모티프들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는 데만 관심을 두었지 평범한 사람이나 일상의 사물속에서 보는 법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고희는 그들을 통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을 확인하고자 했다. 흔히 고희는 개성파 화가들, 즉 폴 세잔(Paul Cezanne), 폴 고갱(Paul Gauguin), 조르주 쇠라 (Georges Seurat) 등과 함께 후기인상주의 선구로 평가되지만 시야를 약간 넓혀 보면 그는 궁극적으로 실존의 물음에 대한 깊은 해석을 얻기 위해 노력한 화가였으며, “근대의 분해되어 있던 경향들을 새로운 종합” (Nigg, 2003:12)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그가 보여준 관점은 지금까지 어떤 화가들도 예상치 못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에 가까웠다. 그는 자아에서 타자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안전한 지대에서 위협에 노출된 곳으로 ‘이동’ 함으로써 모든 위대한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공허의 삶을 살아야할 위대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모든 인간적인 판단을 넘어선 곳에 나 있는 좁고도 아득한 길, 비록 화가의 길을 갔지만 그는 모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런 까닭에 고희에게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의 영혼의 숨결을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 4분과. 문화/예술 발표

### 뒤러의 요한계시록 판화에 나타난 미학적 의미

안용준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뒤러(Albrecht Duerer: 1471-1528)는 고전 그리스 미학의 전통으로부터 르네상스의 기독교 미학으로의 전환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거대한 고전 문화가 변혁되는 자리에서 일어난 새로운 미술문화 전통의 기초를 놓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뒤러의 이러한 면모는 ‘요한계시록 판화’에 제시된 조형적 요소와 미학적 의미 안에 잘 드러나 있다.

필자가 ‘요한계시록 판화’를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뒤러의 기독교 미학에 관한 자세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에 적당하기 때문이다. 뒤러의 요한계시록 판화에 나타나는 상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에 대한 태도와 상징에 관한 르네상스의 사고방식을 근간으로 구성되었다. 뒤러는 여기서 무엇을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단순히 형상을 모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실감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독특한 예술적 태도는 고전 미학의 장점을 기독교적으로 수용하도록 했으며 나아가 기독교 미학의 전통을 수립하는 중심축이 되었다.

둘째 ‘요한계시록 판화’가 상징에 관한 주제로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타난 내용들이 뒤러의 시대적 안목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요한계시록 판화’는 단지 문헌을 해석하는 미적 방법론을 넘어 16세기 교회의 도덕적 부패와 영적 타락에 대한 방향 제시가 담겨 있다. 뒤러가 고민했던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생소한 것은 아니다. 평화를 가장한 종교 혼합주의나 신비주의의 문제와 지성과 예술의 타락 등이 우리의 주변을 늘 맴돌고 있다. ‘요한계시록 판화’에는 오늘날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해답도 담겨 있다.

뒤러는 당시 교회와 학교 그리고 사회 안팎에서 행해지는 신학적 해석과 예술적 전통들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장단점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는 서양 미학의 두 근간인 고전 그리스 미학과 유대-기독교 미학을 통합하여 새로운 미술 문화의 출현을 준비했다. 고대와 르네상스를 잇는 미학의 연속성을 연구하는 작업은 기독교미학의 미래를 여는 기대할 만한 사건이었으며 그 존재 이유와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이러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뒤러는 고전 그리스 미학의 전통을 간직한 르네상스 이탈리아 미술을 주목한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시기에 있어서 미술은 과학적인 탐구 방법에 치중하고 정확한 묘사가 요구되었다. 미술은 새로운 ‘창안’ (inventio)보다도 자연 가운데 아름다운 비례의 대상을 ‘선택’ (selectio)하고 묘사하였다. 인간의 아름다운 인체 비례와 자연의 아름다움은 르네상스 미술가들에게 중요한 탐구의 원천이었다. 뒤러 역시 이것에 관해 탐구하였고, 그러한 결과들은 그의 미술론의 바탕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그의 미술론의 형성 배경에는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 1404-72)와 레오나르도가 있다. 알베르티는 자연을 조화의 관계로 이해하고 미의 특성을 ‘규범’ (Canon)에 두고 올바른 비율을 강조함으로써, 순수한 수학적 탐구를 의미하는 비율을 통해 자연을 연구하였다. 레오나르도는 자연을 경험과 원리의 장으로 이해했고, 자연 현상의 과학적인 정보, 인간의 기능과 육체, 인간의 감정에 관한 심리적 표현, 사물과 동물의 특징, 대기와 빛에 관한 연구에 몰두했다. 그에 있어서, 미술은 ‘과학’ (Scientia)이었다. 그러나 수학적·기하학적 질서(ordó geometricus)에 의한 과학으로서의 미술은 엄밀히 말해 응용과학에 의지한 미술은 아니었다.

이러한 이탈리아 미학의 원리를 받아들인 뒤러는 미와 진리, 예술과 과학, 하나님과 세계, 신앙과 지식,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이상적으로 결합하여 발전시켰다. 뒤러의 ‘요한계시록 판화’는 이러한 결합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하는지에 대한 미학적 결정체이다. 이제 미는 완전한 비례나 형식만

을 드러내는 단계에 머물지 않았다. 거기에 담긴 성경의 내용과 상징들은 고전 미학의 화려한 유산 위에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생명력 있게 드러냈다. 그것들은 인간의 부패한 요소들을 엄격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이 여전히 우리의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역동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 진리를 드러내는 기독교미학은 고전 그리스미학의 전통과 확연히 구별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뒤러는 상이한 문화적 전통 사이에서 어떻게 기독교미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인체 비례와 자연 해석에 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의 결실이었다. 그는 비례의 수학적 추구를 정신의 형식 속에서 즉 조화로서의 정신의 법칙 속에서 추구했다. 레오나르도의 「회화론」이 이탈리아에 있어서의 비례론의 집합이라면, 뒤러의 「인체 비례 四書」(1528)는 전체 르네상스의 비례 연구의 중심서이다. 따라서 그의 인체 비례 연구는 조형 예술적인 한계를 넘어서, 오히려 생물학, 인류학, 범죄학 연구에 기여할 정도였다. 어쨌든, 질서와 조화, 중용을 원리로 한 미의 비례 규범을 찾으려는 그의 열망은 감탄할 만하다.

또한 뒤러는 자연의 원리이자 미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는 수학과 기하의 정리(定理)라고 믿었다. 이 해석을 기초로 그는 ‘대우주’(macro cosmos)에서 축소된 인체, 즉 ‘소우주’(micro cosmos)로서의 인체의 비례를 측정하였던 것이다. 뒤러의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에도 기독교미학 사상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역동적이며 실천적이라 부를 만하다.

#### 4분과. 문화/예술 발표

### 현대 미술과 창조적 독창성의 기독교적 정의 -독창성 개념의 왜곡과 변형을 중심으로-

심상용(동덕여자대학교)

구원의 대서사인 성경이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형상과 닮게 창조된-재현된- 창조적 존재다. 창조성이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본성이기도 한 것이다. 프랑스로 망명한 러시아의 종교철학자 니콜라이 베르다이예프(Nikolai Berdyaev)가 “인간의 영혼이 행복보다 창조성을 선호하는 걸 막을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창조성이야말로 존재적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창조성을 중요한 기반으로 하는 모든 문명의 영역에서, 정작 그 개념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도로시 셰이어즈(Dorothy L. Sayers)는 오늘날 전형적인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전통과 관습에 안온하게 머물며, 교양있는 대화와 점잖은 제스처와 지나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본성인 창조성이 왜곡된 결과로 설명한다.

독창성 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술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동시에 특히 현대미술에서 독창성의 소멸에 관한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온갖 낯설고 특이한 것들이 여전히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동시대미술 장에서 독창성의 소멸이 뜨거운 논쟁을 야기한다니 역설적인 풍경이다.

이러한 진단이 매우 구체적인 현상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 주류에서는 도덕적 공허의 증가, 높은 이상의 결여, 중심의 감정적 공허가 열하게 확인되었다. 어느덧 독창성이 오락과 기분전환으로의 퇴행에 있어 가속페달 역할을 하고 있음도 목격했다. 이러한 현대미술의 상황이 오늘날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독창성개념에 침습해있는 심대한 왜곡과 변형과 무관하지 않다는게 이 논의의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의 핵심은 독창성의 개념이 오늘날 만연한 상품물신주의와 결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적 창조성과 단절되고, 더 나아가 적대적이기까지 한 것이 되었다는 데 있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현대미술에서 보편화된 ‘차이의 생산’으로서의 창조성은 전형적인 비창조적 독창성이다. 차이의 생산으로서의 독창성은 차이의 생산이라는 상품이데올로기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기존하는 것들과의 차별성이 그 궁극의 가치가 된다. 오늘날 예술에 대해 일반화된 생각은 예술은 목적론적이어선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술 자체 외의 어떤 것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 주변에는 그렇게 되는 순간 설정된 그 목적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그 결과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이데올로기화된 독창성과 긴밀하게 결부되면서, 현대미술이 전통(관습)에 대한 반동이나 저항, 기존 윤리와 질서로부터의 이탈-또는 이탈-, 색다른 것, 특이체질적인 것들의 극단적인 유행에 이르게 된 것은 전혀 놀라운 귀결이 아니다.

하지만 모더니즘과 전위주의 미술이 새로운 주의의 선언과 폐기를 되풀이해 온 지난 한 세기 동안, 새로움은 부단히 화석화된 아카데미즘으로 변질되어 왔다. 새로움의 생산은 도식화되고 법칙화되어 체계의 통제 수단이 되어버렸다. 흥미로운 것은 완전한 차이란 개념적으로 불가하며, 따라서 절대적 가치로서 독창성 개념도 관념의 차원에서나 가능하다는 사실이 자명해졌음에도, 새로움이 이 시대의 미적 시급성으로 여전히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독창성의 왜곡과 변형에 대한 이 논의의 관점은 분명하며, 그 중요한 근거로서 두 가지의 문제에 우선 주목하고자 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적 차원이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도 새로움은 중요한 측면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움은 ‘이미 존재하는 것의 새로운 회복, 향상과 환골탈퇴(換骨脫退, Formgebung)’로서의 새로움, 곧 목표에 대한 관점으로서의 개혁이다. 위르겐 몰트만은 따르면 자연조차 결코 맹목적이지 않다. 자연의 역사 안에는 우연과 필연의 공동 작용 속에는 복잡한 생명 형태와 그물망으로 결합된 공생의 경향성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이 목적적

창조에 대한 적절한 상징으로 그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든다: “모든 아침은 매우 신신하고 새롭다...” 여기서 목적을 확실히하고 단선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선 곤란하다. 그것은 지속적이면서 개혁적이고, 때로는 질적으로 비약하기도 한다. 몰트만은 그것을 ‘자연의 역사 안에서 진행되는, 항상 새로운 전체가 등장하는 생명형태의 본질적인 구축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한다. 이는 상품이데올로기가 정당화하는 차이의 생산으로서의 새로움과는 근본부터 상이한 것으로, 이는 생명과 역사에 대한 어떠한 창조적 지원과도 무관하다.

두 번째는 왜곡된 주관성의 미학으로 인한 감상자의 사전적 배제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작가와 감상자가 분열의 문제다. 이의 오류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는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의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 또는 자크 엘릴의 ‘이웃을 재발견하려는 노력’을 인용했다. 그것이 창조적 독창성이 그것의 왜곡형에 의해 야기되어 온 온 단절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주체성 미학의 맥락 안에서 창작의 맞은편에 있는 소통의 주체는 감상자 또는 관람자로 추상화된다. 이들은 전위미술에서의 시민, 낮은 수준의 지적 정서적 자극을 추구하는 몽매한 이름의 다수 이상이 아니다. 따라서 창작 주체인 작가는 자신의 행위를 이들 타자와 결부지어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의지를 다 해 그들로부터 멀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 주관성의 사도들, 비대화되고 집착적인 합법화된 자이에 기초한 독창성에서 타자의 고통이나 꿈에 가담하는 것은 요구되어선 안 되는 금기사항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단절과 분열을 독창성의 필연적인 귀결로 간주하려 드는 것은 ‘이웃이라는 차원을 없애버리는’, 또는 편을 가르고 이웃을 경쟁자로 간주하는데 급급한 이 시대의 윤리가 깊이 침착된 결과다. 이러한 윤리는 타락한 세계에서 모든 인간은 서로의 희생으로 살며, 모든 결정과 행동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필연적으로 모든 다른 인간들의 삶에 결부되고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창조적인 독창성은 고상한 심미성을 근거로 관람자(觀覽者)의 배제시키고 단절을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 나가는 것과 화해의 소통을 성취하기 위한 줄기차고 끈질긴 다가섬을 허용한다. 그들은 추상화된 관객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독창성이 일하게 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서 지배자와 종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마땅하다면, 유일한 창조적 주체로서 작가와 추상화된 관객, 위대한 창조자와 몽매한 시민 사이의 의고화된 분열도 재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 논의는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성에서 이 시대를 회복하고 도해할 하나님 나라의 선취를 성취하는 원리를 발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논의는 그 큰 그림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의의 중심은 오늘날과 같이 죄와 왜곡된 비창조적 독창성이 만연한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성을 환기하는데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그 큰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성에 내재하는 개혁성과 저항성, 역동적인 운동성을 지닌 사랑을 확인하는 것 또한 이 논의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현대 미술과 창조적 독창성의 기독교적 정의에 대한 토론문

조규희 (서울대)

C. S. Lewis는 낭만주의 시대 이전까지 삶의 부분이었던 예술이 19세기 이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진지하게 여겨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남은 거라곤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고상한’ 작품들과 만드는 사람이나 즐기는 사람 모두 반쯤은 부끄럽게 여기는 ‘대중적’ 작품들뿐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한국 회화사를 전공하는 토론자 역시 C. S. 루이스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때로는 난해한, 때로는 나라 요시토모(Nara Yoshitomo)류의 대중적 성격의 작품들을 바라보면서 현대 미술계의 ‘선진적인’ 조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심상용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막연히 느끼던 문제점과 거부감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분명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 참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심상용 교수님의 논문은 창조성의 개념적 왜곡과 그로 인한 오류의 문제를 기독교의 하나님의 창조성의 맥락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창조성을 집요하게 추구하도록 했던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미학적 입장을 살펴보면 이러한 요구가 이목을 집중시키는 감각적 창조 방식에 치중하게 하여 독창성의 개념을 오히려 오락적 퇴행으로 선회하게 하였음을 설득력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날 보편개념으로 자리한 독창성 개념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성과 무관하며 적대적인가에 대한 현상적 점검을 통해, 독창성이 상품물신주의와 그로 인해 창조의 목적적 차원이 배제된 채 그저 남과 다른 ‘차이의 생산’으로서의 독창성으로 폄하되었음과 모더니즘 미학의 유아독존적 주관성 숭배가 작가와 감상자의 상호성을 배제하고 그 결과 분열적인 독백과 소외를 마치 예술소통의 진수처럼 인식하게 된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발표자의 진지한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토론자는 특히 “차이의 생산으로서의 독창성이 이 시대의 정치, 경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인 반면, 목적지향의 창조성은 그 성취를 어렵게 하거나 적대하는 세상의 조건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충돌한다. 하나님의 본성인 창조성도 그것이 결여된 비창조적인 현실 속에서 다양한 갈등과 소동을 일으키고, 그러한 현실이 순응하지 않기 위한 저항성과 혁신성을 동반하게 된다.”는 언급에 크게 동감합니다. 발표자의 논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문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 발표자께서는 독창성의 왜곡과 관련하여 예술, 문화 뿐 아니라 학문분야에서조차 전통이나 관습과의 단절이 오늘날 주류적 경향이 된 것이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시대 미술사를 연구하는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작가들이나 현대미술사 전공자들이 한국회화사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기독교적 학문의 자세에 있어서 통사적 시각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현대 미술의 독창적 창조성에 전통에 대한 참된 이해가 이바지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통사적 시각과도 관련하여 논문에서 언급하신 대로 창조적 독창성은 ‘미래에 완성되지만, 역동적 힘과 능력으로 현재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에 관여하는가와 관련이 있다는 언급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의 창조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성과 영광이 나의 작품을 통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 시대에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품으로 표출되는 방식은 기존의 기독교 예술가를 표방한 이들의 작품에 종종 보이는 ‘선해보이는’ 관습적 창작의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앞서가며 사회에 반항을 일으키고 화두를 던지는 ‘최선’을 다한 ‘최고’ 수준의 창작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 점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럴 경우 작품이 난해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 예술가들이 지향해야 할 노선이라고 하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창조성’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요?

마지막으로 여담이지만, 시각예술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후시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대성공도 ‘우리 자신을 직면하는 고통을 회피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다 밝게 투영시켜주는’ 오락형 예술의 성행이라는 현대 미술의 조류와 연결될 수 있을지요?

## 제5분과 : 사회복지

5분과, 사회복지 발표

### 태화복지재단 사업기관 지원사업 '섬김과 나눔' 소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중심으로

이근영(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연구소 책임연구원)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하 태화복지재단)은 1921년부터 이 땅에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재단으로 미국 남감리회 여성교부에서 파송된 여성교사가 복음전파, 여성교육, 사회사업의 3대 목적을 달성하고자 세워진 기관이다. 이러한 전통은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하나님의 큰 평화를 실현한다'는 태화복지재단의 소명헌장에 계승되어 왔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명을 기반으로 한 사업수행만을 강조할 뿐 프로그램 계획과 수행, 평가 등의 과정과 접근 방법에 기독교사회복지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태화복지재단에서도 지금까지의 인본주의적 관점의 지식과 기술, 가치에 대해 반성적 고찰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사회복지 사업을 개발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다.

2011년 태화복지재단은 재단의 존립이유가 되는 소명헌장을 재정립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사회복지환경을 반영한 재단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태화 비전 2015'를 수립하여 현재 전략에 따른 사업 추진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의 사명과 정체성을 담은 선도적 사업개발의 목표가 수립되었고 이는 태화복지재단 산하 사업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다. 본 발표에서는 기독교사회복지재단으로 91년간의 실천경험을 가지고 있는 태화복지재단이 2015년까지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섬김과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언급하며 논의하게 된 배경과 추진 과정, 진행하게 될 사업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재단 및 사업기관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구체화해나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구체적으로 '섬김과 나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태화복지재단 사업기관 지원사업의 주제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외 사회복지 지원사업 관련 문헌자료를 분석하였고 사업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업기관 부장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사업기관 기관장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주제를 선정하고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부터 실시할 태화복지재단 사업기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섬김과 나눔' 사업은 '태화 비전 2015'의 첫 번째 목표인 '섬김 역량 강화'의 하위목표 중 '선도적 사업개발 및 시행'에 대한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략에 따라 기획되었으며 재단의 사명과 '태화 비전 2015'의 목적,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기독교사회복지'를 공통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제의 결정은 대내적으로는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큰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태화복지재단의 사명과 부합된 주제이며, 대외적으로는 기독교 배경을 지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실에서, 기독교사회복지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실천 모델을 제시함을 통해 사회복지계에 선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합의를 갖고 있다. 물론 기독교사회복지라는 주제가 공통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내용, 대상,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기관에서 기관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개발, 진행하고자 한다는 점도 함께 명시되었다.

사업비 지원규모와 관련해서는 전체 사업기관을 총 2차에 나누어 각 3년간 매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3년간 3,000만원 한도) 지원하게 되며, 사업지원기간을 3년으로 하여 중장기성과 및 사업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사업 운영의 기본틀로는 논리모델을 활용하며 사업예산에 직역역량강화비 책정을 의무화하고 사업 관련 연구보고서 및 프로그램 매뉴얼 발행을 포함시켰으며, 사업 지원 및 자문을 위해 재단 산하 사회복지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기관 실무자들에게 대한 다양한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역량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향후 3년간 진행하게 될 태화복지재단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사업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기독교 영성에 기반을 둔 저소득가정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 좋은 이웃 만들기 '도담도담' 이 있다. 본 사업은 영성적 사회복지실천에 기반을 두어 저소득가정의 부모-자녀 간 상호이해 증진과 의사소통을 향상하여 가족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을 돕는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서울 수서·일일·세곡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 12세대로 하며,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가족단위의 사례관리와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가족여행, 가족요리활동, 텃밭가꾸기와 같은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가족의 역량을 키워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사랑의 공동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족의 지지체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웃가정과 교의 결연 및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성장을 돕는다. 저소득가정의 문제해결을 넘어, 서비스 수혜 대상이었던 가정 영성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으로 거듭나는 경험은 가족공동체의 회복뿐 아니라 이들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주제로 성장함으로써 관계와 소통이 있는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주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의 지역교회를 기반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만들기 '허브태화'로, 본 사업은 인천시 서구 내 교회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하여 지역사회 기반을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적부조와 민간 사회복지 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면, 좀 더 지역사회 자원(인적/물적)과 우리 이웃이 함께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복지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①지역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 ②교회와의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협력 및 진행, ③교회의 자원 활용을 통한 이웃 관계망 형성을 통해 복지 서비스 체계부터 교회와 함께 구축하고 실천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④지역 내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이용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며, ⑤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관계망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문화정서지원 사업: 'Joyful 하모니'는 1인 1악기 습득을 통해 음악적 재능개발하고, 동아리활동 등을 통한 또래관계기술 습득을 통해 긍정적인 또래생활을 지원하고, 기독교 음악 및 직원과 일대일 멘토 관계 형성을 통해 건강한 기독교세계관을 경험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5분과. 사회복지논찬

### <기독교노인의 삶의 질 연구: 장애변수를 중심으로>에 관한 토론문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은미

먼저 본 연구를 수행해주신 연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의 노인의 삶의 질 연구나 장애인의 삶의 질 연구는 다수 수행되어 왔으나 기독교노인, 특히 장애가 있는 기독교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가 가진 학문적 독창성과 희소성, 사회복지와 교회 선교적 차원에서 의 실천적 함의를 높게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부연설명을 요청하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1. 기독교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배경

연구자들이 이미 언급한대로 교회 내 노인 인구비율의 증가, 즉 고령화 현상은 도시, 농촌을 떠나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노인의 경우 일반적인 인구학적, 사회적 특성 외에도 신앙(종교활동)과 관련한 세부적인 변인들이 삶의 질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연구가 부족해서인지 신앙에 따른 기독교노인과 비기독교노인과의 삶의 질에 관한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선행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첫째, 어떠한 배경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독교' 노인과 전체 노인의 삶의 질을 비교해보고자 하는 연구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둘째, 일반적인 요인들보다는 신앙이라는 요인이 더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2. 삶의 질에 대한 변수별 영향의 원인 분석

기독교노인의 경우에는 전체노인의 경우와 다르게 친목단체, 문화활동단체, 스포츠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이익정치단체, 봉사단체 참여정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또한 종교단체참여정도가 장애가 없는 노인의 삶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노인에게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더불어 장애가 있는 기독교노인의 경우 장애가 없는 기독교노인보다 비동거자녀나 형제, 자매, 친인척과의 왕래빈도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3. 기독교인, 특히 기독교장애노인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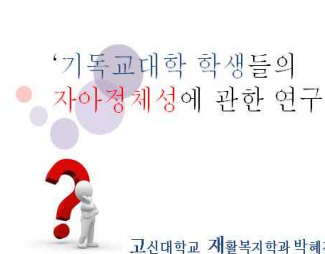
본 연구는 기독교노인이 비기독교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생활(종교활동)이라는 변수를 통해 특별히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변수 등 분석자료 자체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노인과 비기독교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적, 선교적 차원의 접근방법을 차별적으로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노인과 기독교장애노인간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밝히는데에는 기존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들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전제로 교회차원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이들 두 집단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현가능한 제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고에 쓰신 제언들은 다소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내부의 현실적 상황과 사명, 향후의 선교방향을 고려할 때 장애 기독교노인, 비장애 기독교노인, 더 나아가서는 일반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와 선교의 접근방안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 실시해야 할 프로그램을 제안해주시고, 본 주제와 관련해서 향후 더 연구되어야 할 연구주제나 방향에 대해 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6분과 : 상담 / 심리

6분과. 상담심리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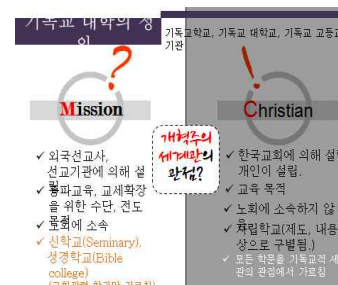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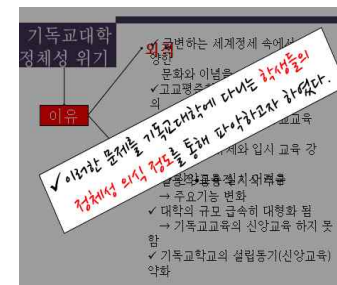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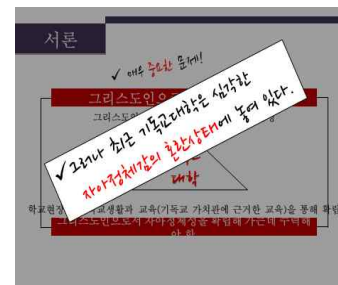
##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자아정체성에 관한 논문

박혜전 (고신대학교 교수)



목차

- I. 서론
- II. 문헌고찰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개척주의 세계관의 관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학문연구를 하며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4 아담스 2006

기독교 대학은 그리스도인 교사와 학생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계관을 형성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기독교 대학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인 교사와 학생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계관을 형성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기독교 대학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인 교사와 학생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계관을 형성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

기독교 세계관에 뿌리를 둔 그리스도 대학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과정을 특징으로 하며 그리스도인 교사와 학생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계관을 형성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스도 중심

대학의 관리책임 맡은 사람들이, 행정부서와 직원들이 그리스도인 교사와 학생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비전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삶과 사역에서 그 비전을 실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성과 관련된 요인

자아 정체성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성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의 자아 정체성

기독교인의 자아 정체성

기독교 대학 교육의 본질은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이다.

자아 정체성 확립

자아 정체성 확립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인 교사와 학생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계관을 형성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성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성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성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연구방법

1. 연구기간 및 방법

2012년 5월 이론적 고찰, 설문지 개발 9월 설문지 배포

부산·경남지역의 기독교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대상으로 실시

비학을 표집으로 임의표집 실시

설문조

연구방법

1. 연구기간 및 방법

2012년 5월 이론적 고찰, 설문지 개발 9월 설문지 배포

부산·경남지역의 기독교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대상으로 실시

비학을 표집으로 임의표집 실시

연구방법

2. 연구도구

정병희(2010) "기독교대학 재학생의 역할모델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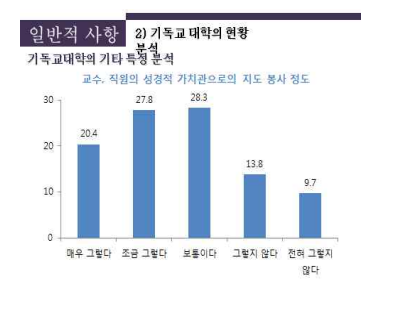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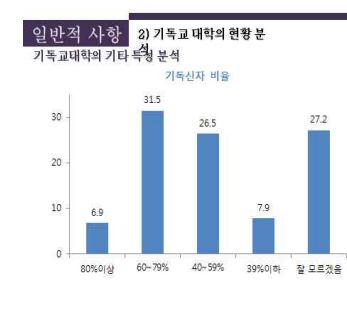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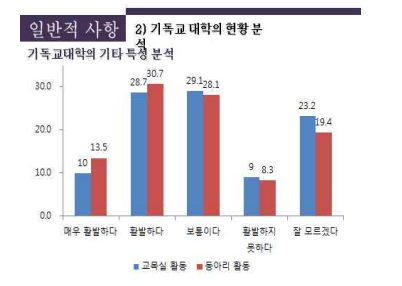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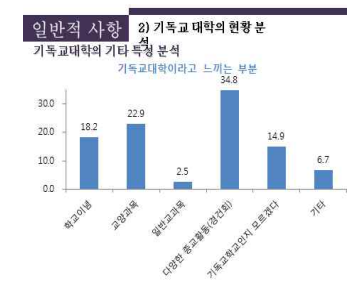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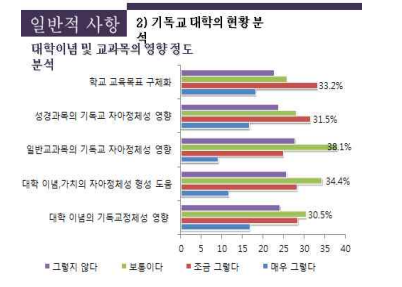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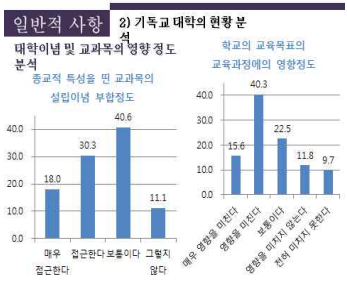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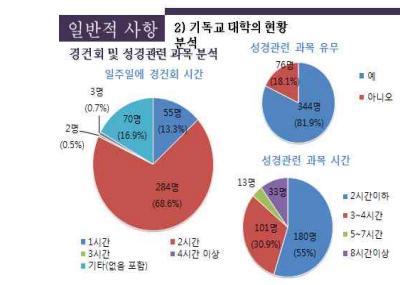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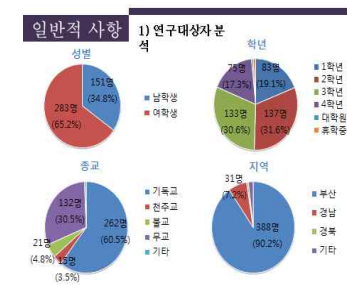
윤성균(2009) "부산 기독교대학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

김호숙(2003) "현대사회와 기독교적 자아정체성"

윤주희(1985) "한국 중등기독교학교에 대한 연구-역사적 고찰 및 종교교육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변재권(2001) "기독교청년회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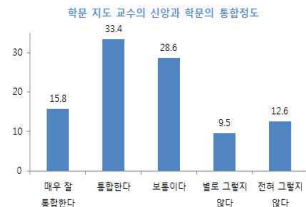
김미경(2003) "기독교대학생의 기독교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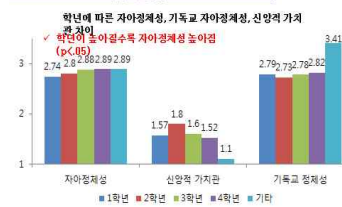
일반적 사항 2) 기독교 대학의 현황 분석  
기독교대학의 기타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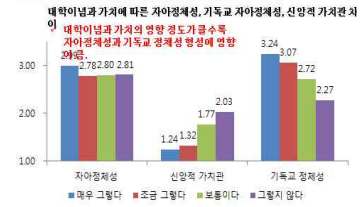
일반적 사항 2) 기독교 대학의 현황  
기독교대학의 기타 특성 분석



조사 응답자의 자아정체성, 신앙적 가치관, 기독교 자아정체성 차이 분석



조사 응답자의 자아정체성, 신앙적 가치관, 기독교 자아정체성 차이 분석



일반적 사항 2) 기독교 대학의 현황 분석  
기독교대학의 기타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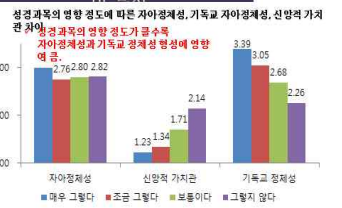
일반적 사항 3) 자아정체성 분석

✓ 총 24문항으로 구성  
✓ 신뢰도: crambach 알파 0.844  
✓ 4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번호	항목	M	SD	신앙적 가치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9	나는 장래 일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있다.	5.24	0.90	99.8	64.2	6.6	0.2
24	후회 없이 인생에서 나는 것 열심히 한다.	5.29	0.90	96.7	66.8	7.2	0.2
12	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5.19	0.90	26.3	82.4	8.8	0.7
17	나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주저 없이 도전한다.	5.14	0.90	24.9	84.8	9.8	0.7

분할계수 신뢰도(Alpha) = 0.844

조사 응답자의 자아정체성, 신앙적 가치관, 기독교 자아정체성 차이 분석



조사 응답자의 자아정체성, 신앙적 가치관, 기독교 자아정체성 차이 분석

3.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독립변수	b	β	t값
성경관련 과목 이수	.192	.103	-1.987*
학교이념보합정도	-.098	-.119	-2.001*
성경과목의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영향 정도	-.189	-.274	-3.931***
일반교과목의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영향 정도	.111	.150	2.549*

대학의 이념과 가치의 차이 정도를 측정하는 독립변수인 성경과목의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학교이념보합도, 성경관련 과목의 이수 수(86)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성경관련 과목의 이수 수(86)가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p<.05, \*\*p<.01, \*\*\*p<.001)

일반적 사항 4) 신앙적 가치관 분석

✓ 분명한 신앙적 가치관 지니고 있는 비율

번호	항목	M	SD	60% 이상		
				인원	비율(%)	
1	나는 하나님께 의해 지음 받았다.	1.89	0.83	597	177	22.6
2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1.80	0.81	606	186	20.8
3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1.59	0.81	825	185	21.0
4	성경의 말씀은 권위적이다.	1.66	0.84	562	175	24.3
5	영간은 모두 죄인이다.	1.61	0.79	565	223	19.2
6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지면 죄를 받는다.	1.62	0.80	582	213	20.6
7	나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	1.69	0.82	539	234	22.7
8	영혼으로 구원 받는다.	1.62	0.82	600	180	22.0
9	천국과 지옥은 있다.	1.59	0.81	675	123	19.8
10	나는 영혼 속에서도 천국에 갈 것이다.	1.89	0.91	511	151	33.8

일반적 사항 5) 기독교 정체성 분석

✓ 총 17문항으로 구성  
✓ 신뢰도: crambach 알파 0.929  
✓ 4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번호	항목	M	SD	기독교 정체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14	영성적인 부딪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다.	3.01	0.92	83.8	42.0	14.9	9.0
8	하나님과 나눌 영의 사랑을 얻는다.	2.80	1.02	89.0	26.7	26.8	16.2
1	성경은 나의 생애의 영혼의 영혼을 준다.	2.84	1.06	82.9	90.8	26.8	12.8
4	말씀, 기도, 사랑의 생활은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사항이다.	2.81	1.00	82.9	91.0	20.1	16.9

분할계수 신뢰도(Alpha) = 0.929

**결론**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자기인식을 지니고 있는가에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검토**  
기독교대학의 기독교적 환경 파악,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신앙적 가치관,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

**나아갈 방향 제시**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임.

**제언**

신앙교육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총괄성 고려

- 기독교 대학의 본질적 역할
-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변수(성경과목, 학교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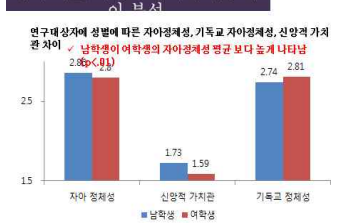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과정

- 번거로 교육과정도 학교교수, 교육방법, 교육목표, 교육과정 마련되어야 함
- 번거로 교수의 신앙심이 드러나야 함(산양과 학문의 통합)
- 교수에 대한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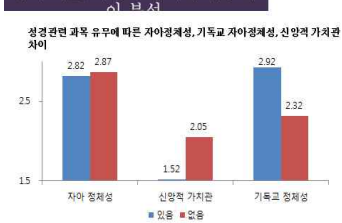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유지(무엇이 기독교인지)

- 기독교 대학의 교육의 본질 회복(하나님의 환생을 받은 인간 체험)

조사 응답자의 자아정체성, 신앙적 가치관, 기독교 자아정체성 차이 분석



조사 응답자의 자아정체성, 신앙적 가치관, 기독교 자아정체성 차이 분석



기독교 대학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방법...

우리의 교육적 소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루터 1517년 10월 31일)

THE END

## 6분과. 상담심리 논찬

##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논찬 : 서울 기독교대학교 기독교 상담학 김영아

우선 고신대학교 재활복지학과 박혜전 교수의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을 맡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아정체성의 변인을 상당히 의미 있는 한 인간의 삶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 본 논찬자로서는 특히 기독교 대학의 학생이 갖는 자아정체성이 어떠한지 궁금하기도 하였고 이것을 심도 깊게 연구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학문적 믿음이 있었기에 본 논문을 대하는 태도 남달랐다. 박혜전 교수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요구되고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공감한다. 본 논찬에 객관적이며 냉철한 입장을 견지하며 임하려고 한다.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이 현재와 같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외적으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무한히 밀려오는 다양한 문화와 이념을 기독교세계관의 독특한 틀을 통해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가치관에 혼란을 겪어 왔고 내적으로는 대학의 규모가 급속히 대형화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설립이념과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독특한 기독교교육의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이명호, 2003: 6). 오늘날 기독교학교가 시대적 과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의 위기와 관계한다.

기독교대학이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과 다양한 측면들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개설분야가 일반대학처럼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몇몇 교회관련 학과만을 가르치는 신학교(seminary)나 성경학교(bible college)와 다르며 기독교대학이라 불리면서도 채플과 같은 소위 종교적인 활동들을 추가하는 외에는 행정과 연구, 가르침을 모든 면에서 일반대학과 다를 바 없는 미션스쿨과도 다르다.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기독교대학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학문의 제 분야는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다양한 법칙과 측면에 대한 연구임을 인식하여 모든 학문을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학을 의미한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이 있지만 그들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지식일변도의 획일화된 문교행정도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적 원리에 따른 학문 연구와 교육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한 박혜전 교수의 지적과 정의는 상당히 농축되고 정제된 표현이다. 이에 본 논찬자는 깊이 공감하며 박교수님이 제시한 예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연세대나 이화여대들은 기독교의 사상을 전파하며 그러면서도 못 배운 대중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한 가운데 세워진 기독교 대학이다. 이 대학들의 설립취지와 목적도 이를 잘 증명해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소위 명문 사학으로 자리 매김한 이 대학들의 일반적인 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육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한 사랑과 치유와 거리가 멀다.

두안 리트핀 교수(2011)는 각 교실에서 가르치는 과목과 커리큘럼 가운데 그리스도의 중심사상이 없기 때문에 세속화 되는 것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더 가치로우면서 지금 기독교 대학들 실태의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대학이라는 곳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박교수님의 문제제기도 공감한다.

자아정체감이 무엇인가? 에릭슨은 사회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개정되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라고 보았다.<sup>42)</sup> 이와 같이 자아정체감은 ‘나는 나다’라는 실존의식을 의미하고 ‘나는 나다’는 존재가 누구로부터의 간섭도 배제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를 지남과 동시에 오직 나 혼자라는 근원적인 소외감과 불안감을 수반하고 있다(문재욱, 2012)고 말하며 결국 “정체성을 갖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깨

닫게 해주고 삶의 본질을 일깨워 주는 교육이며, 학생 스스로가 진자 원하는 것을 찾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자아정체감은 자신과 인생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그에 대한 답변을 확립해가는 힘(동인, 결정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자아정체감이 흔들리고 자신의 주체로서의 삶을 이어가기가 힘들어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며, 우리의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롯된다(빌립보서 3: 8~9)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청소년의 성격적 정체성은 바르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대학생의 자아정체성은 삼위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교양과 전공의 기독교적 가치관, 신앙과 학문의 통합, 졸업 후 사회에서 맡은 자신의 역할 등의 전생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자아정체성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에 대해 박혜전 교수는 몇가지 의미있는 제시를 한다.

우선 기독교대학의 본질적 역할은 기독교적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청소년의 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어떻게 교육과 연결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본 논찬자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성경과목, 학교의 이념과 가치는 학생의 자아정체성 및 신앙 가치관,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노력이 절대시된다. 이때 성경과목이 있다고 해서 제 구실을 다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볼 수 있는 눈과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의 삶으로의 적용이 그대로 배어져 나오게 하는 것이 기독교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며, 기독교대학은 교과목을 통해 이러한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을 이끌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성경전체에서 흐르는 진경을 볼 수 있도록 교육의 목표가 세워지며 각각의 전공은 그것을 우리 일상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는 가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신앙적 가치관은 기독교 정체성이 정확히 확립될 때 바르게 지니게 되는 것이므로 기독교 대학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과정을 바르게 교육하고 지도할 교수, 교육방법, 교육목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무엇보다 교육을 담당하고 가르치는 교수들의 신앙관이 든든히 서야할 것이다.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교수에 대한 지원도 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들의 다양한 학문 활동에 성경적 지식과 성경적 이해를 가지게 해야 하며 자신의 전공과 신앙을 연계할 수 있는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논찬자는 예리하게 지적하면서도 남들이 말하기 꺼려하는 부분을 용감하게 연구자로서 지적한 부분에 진심으로 공감한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분석에 동의하면서 논찬자로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교계의 성숙한 하나됨을 제시하고 싶다. 교계의 하나 되지 못한 분열은 기독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실까? 누구의 하나님이 옳은가? 에 대한 근본부터 잘못된 문제들로 고민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만든다. 기독교대학은 인간과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창출해 내야 할 진정한 인간-문화 공동체여야 한다. 그를 위해 기독교대학에서 올바른 교육과 활동을 통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세워지며 그 가치들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정체감이란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신 것을 고백하며,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성 안에서 이루어진다(최효용, 1999).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이 옳은가를 놓고 갈등을 빚는다면 학생들이 성경의 실체를 만나고, 그 안의 하나님을 대면하고, 더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을까??

진심으로 교계에 바라는 것은 이제 막 대학생으로 발을 내딛는 그들의 그러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정체성의 갈등에 신앙에 대한 근본이 흔들림으로 더욱 나락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문제해결의 방법들과 모습들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42) E. H. Erikson, Insigh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Norton, 1964). 24



# 제7분과 : 세계관

7분과. 세계관 발표

## 종교와 사회갈등: 타보르파 운동과 토마스 뮌처의 난을 중심으로

박 양 식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 I. 서론

인간은 유사 이래로 갈등을 겪어 왔다. 개인을 넘어 집단의 갈등은 국가 형성을 하면서 그 규모는 더욱 커지기도 하였다. 사회 갈등으로 인해 인간은 엄청난 파괴와 파멸을 겪으면서 갈등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갈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195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 와서는 갈등 연구 내지 평화 연구는 하나의 새로운 학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양한 학문적 관심 속에서 본고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갈등의 원인을 묘사하는 것에 있다. 본고는 역사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관한 종교적 신념의 작동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 이전의 천년왕국운동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사회적 갈등에 관련된 역사적 해명을 탐구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사회적 갈등의 역사적 예로서 급진적 후스파(the Hussite)인 타보르파(the Taborite)의 운동과 토마스 뮌처(Thomas Münzer)의 난을 기술할 것이다. 이 두 역사적 사례를 기술한 것을 토대로 사회적 갈등의 산물로서 천년왕국사상이라는 종교사상을 지적하고 그와 관련한 논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본고를 맺기로 한다.

### II. 타보르파의 천년왕국운동

타보르파의 혁명적 천년왕국운동과 토마스 뮌처의 농민동맹군 반란은 종교가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예이다. 첫째는 후스파의 급진파인 타보르파 천년왕국운동(the Millenarian Movement)은 민족적 유대감에 힘입어 성공적인 종교개혁을 추진한 후스파 운동(the Hussite Movement)의 전개 과정에서 분기되어 나왔다. 후스파 개혁이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자 각계 각층의 사회적 욕구가 분출되었다. 각 계층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면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후스파 안의 내부적 갈등 요소들이 표면화되었다. 후스파는 보수파와 급진파로 갈라져 대립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보수파에 밀린 급진파들은 예수가 재림할 타보르(Tabor) 산이라 명명한 곳에 모여 거기서 기존의 봉건질서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타보르파 사회는 신분의 차별없이 모두가 똑같은 형제 자매로 불리는 평등주의 사회이자 내 것 네 것이 따로 없는 공유제 사회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타보르파는 처음에는 예수재림을 단순히 기다리는 수동적·평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타보르파는 이제 천년왕국의 도래를 위해 그리스도의 적들을 향해 분노와 고통을 발하는 교회전사(教會戰士)의 일원으로 변모하였다. 이것들은 새 시대를 열기위한 일종의 종교적 정화작업이었다. 그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직적 투쟁이었다고 하기보다는 악의 세력에 대한 방어적 싸움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타보르 공동체는 비록 수 개월 동안만 유지된 것이기는 하지만 중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다.

### III. 토마스 뮌처와 농민 난

물론 토마스 뮌처가 이끌었던 독일 농민의 난이다. 뮌처는 천년왕국의 도래를 위한 실천의 문제에 집중하여 신민들을 찾아내 각성시키는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였다.

토마스 뮌처는 천년왕국운동의 예언자로서 독일 농민들과 함께 세계를 그리스도교화함으로써 도달할 신사도교회(新使徒教會, the New Apostle Church)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지상에 그 같은 신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신민들에 의해서 신의 정의가 실현되는 신의 왕국을 추구함에 있어 뮌처는 그에 관해 묘사하는 일에 지중하기 보다는 그것의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세계를 그리스도교화시키려는 뮌처의 시도는 신비적 성령주의 신학에서 시작된다. 경험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혼의 심연에 성령을 받으려는 열망을 갖게 된다. 이 때 신과 인간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이것이 바로 뮌처가 추구한 '내적 질서'였다. 여기서 그는 내적 질서를 세속적 사회와 정부의 구조로서 이해되는 '외적 질서'의 변화를 일으킬 전제 조건으로 보았다. 이로써 뮌처는 세계를 완전히 그리스도교화시켜야 한다는 혁명적 발상을 할 수 있었다.

여기서 뮌처가 풀어야 할 신학적 과제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것은 성령의 내적 경험을 어떻게 인간 존재의 외적이고 죄로 가득찬 현실세계를 전환시키느냐는 것이다. 이 과제에 직면하여 뮌처는 점차 과격한 천년왕국주의적 실천으로 이동하였다. 뮌처가 구상한 세계의 그리스도교화라는 신사도교회의 건설은 선민동맹의 창설로 나타났다. 그에게 세계의 목시적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 선민동맹은 하나의 비밀 군사결사조직이었다. 이 동맹의 참여는 성령의 부름을 인지한 사람들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뮌처의 최대 관심사는 세계의 그리스도교화를 이루어갈 신의 선민을 찾아 각성시키는 일이다.

그리하여 뮌처는 먼저 군주에게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는 새 다니엘로서 군주를 설득했으나 끝내 뮌처의 편에 서지 않았다. 군주에게 실망을 느낀 뮌처는 그들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서 평민(gemeiner Mann)에게 기대를 걸었다. 이에 뮌처는 '새 세례요한' (the New John)으로서 거짓 신앙을 폭로하고 백성들을 종말론적 싸움으로 끌어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뮌처에 반응한 농민들은 농민의 난에 가담한 일부였고 전투에 임해서 군주들의 군대에 완전 섬멸당했다. 뮌처는 실패의 원인을 대다수 봉기군들이 이 전투의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구한 것에서 찾았다.

### IV. 사회적 갈등의 산물로서 종교

지금까지 타보르파와 뮌처의 천년왕국운동을 통해 종교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데 적극적인 요소로 작용한 사실을 검토해 보았다.

종교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동인이라는 사실에서 두 가지 논점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종교가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천년왕국신앙은 합리적 이데올로기가 없던 전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로서 사회 갈등의 주요 요인이었다. 다른 하나는 사회 갈등의 상황에서 종교는 누구에게 유리한가에 관한 것이다. 종교가 갈등에 찬 사회적 지배 관계와 관련하여 항상 보수적 기능만 수행한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기도 하나 사회관계의 변혁을 위한 혁명 기능도 한다는 것이 역사에서 발견된다.

7분과. 세계관 논평

박양식 교수의 “종교와 사회갈등”에 관한 논평

이 경 직 (백석대학교 교수)

I. 논문에 대한 이해

박양식 교수는 종교가 사회갈등에서 하는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타보르파의 천년왕국운동과 토마스 뮌처의 농민운동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박 교수는 종교가 사회갈등에서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통념과, 종교는 보수우파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공격하고자 한다. 박 교수에 따르면 때로 종교는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기존 계급을 옹호하는 보수성뿐 아니라 기존 계급에 맞서는 혁명기능도 갖고 있다.

박 교수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우선 타보르파의 천년왕국운동을 분석한다. 박 교수에 따르면 타보르파가 형성한 타보르 사회는 유럽 최초의 혁명적 사회인데, 급진 후스파인 타보르파의 천년왕국 신학이 이러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세워져 이후 1000년 간 유지될 지상낙원을 가리키는데, 타보르파는 그 낙원이 기존의 봉건질서와는 전혀 달리 평등주의와 공유제를 실현하는 사회로 여겼다.

이어서 박 교수는 뮌처의 독일 농민운동을 분석한다. 천년왕국이 오토록 실천하는 역할을 하는 예언자 뮌처의 신사도운동이 그리스도인들뿐만 구성되는 평등한 공유제 사회를 지향한다. 박 교수에 따르면 뮌처의 신비적 성령주의는 인간이 신을 만날 때 내적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가르침으로써 농민들이 사회변혁운동을 할 때 겪는 고난을 정당화하고, 사회변혁운동에 나설 동기와 힘을 불어넣었다.

II. 몇 가지 질문

1. 이 논문은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종교가 사회갈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런데 박 교수는 타보르파의 천년왕국운동이 함께 로마가톨릭에 맞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보수적 후스파와 갈라선 원인을 종교적 요인에서가 아니라 경제적 요인에서 찾는다. 타보르파가 로마 가톨릭에 맞선 이유도 경제적 지위의 상승이라고 언급된다.
2. 가톨릭 교회 체제에서 소외된 성직자들이 타보르파의 천년왕국 운동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산으로 피하라고 명령한 것 때문에 그러한가? 그 성직자들은 그 명령 외에도 타보르파 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3. 시한부 종말론의 예언이 맞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그 운동이 약화되는데, 박 교수는 기존 사회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공동체가 예언 실패를 기점으로 공격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이 좀 더 설명되었으면 한다.
4. 타보르파와 뮌처 운동 모두 폭력 사용을 정당화한다. 20세기 라틴아메리카 교회의 사회변혁운동에서도 폭력 사용이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박 교수는 사회변혁운동과 폭력사용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타보르파와 뮌처의 운동의 폭력사용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5. 박 교수는 타보르파 운동이 “혁명운동의 필수요건인 조직의 결속력과 과감한 실천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직적 투쟁”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 정화작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직적 투쟁”은 언제나 공격적이고, “종교적 정화작업”은 언제나 ‘악의 세력에 대한 방어적 싸움’인가? 종교적 정화작업으로 여겨졌던 십자군 운동도 방어적 싸움이 된다는 말인가?
6. 뮌처의 신사도운동은 오늘날 한국교회 내의 신사도운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7. 뮌처는 무력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성서적,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가?
8. 루터의 ‘고안된 믿음’ 과 뮌처의 ‘경험된 믿음’ 이 대조되는데, ‘고안된’ 과 ‘경험된’ 이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9. 뮌처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신의 두려움’ 은 혹시 ‘신에 대한 두려움’ , 즉 경외심을 가리키는 것인가?
10. 뮌처는 고통을 감수하는 자에게만 신의 직접계시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가? 그렇다면 고통을 즐기는 고통의 신학을 주장하면 될 터인데, 왜 사회변혁을 꾀해야 하는가? 신의 직접계시와 성령의 직접적인 임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1. 신과 인간의 내적 관계가 세속적 사회와 정부라는 외적 질서를 바꾸는 시작점이라는데, 어떻게 그 단계로 넘어가는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성령의 내적 경험이 현실 변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오늘 한국교회에 도움이 될 듯하다. 그가 이해하는 성령 하나님은 그의 성서적 종말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12. 선민을 찾아 각성시키는 방법과 관련하여, 군주에게 먼저 접근한 태도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만일 군주와 귀족들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뮌처의 운동은 농민을 위한 운동이 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의 신학적 입장이 사회변혁을 가져온 동기가 되었다기보다, 농민들의 현실이 사회변혁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경우 종교보다 경제적 상황이 사회갈등의 주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법적, 정치적 요구를 할 때 성서를 근거로 제시한다고 해서 성서가 주원인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지만 경제적 요인과 같은 다른 요인이 주된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뮌처가 프란켄하우젠 전투에 참가한 것은 신학적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뮌처가 실패의 원인을 농민들이 이 전투의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찾는 것처럼, 실제로 그 운동을 주도한 것은 신학적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
13. 종교와 사회갈등의 관계에 대한 이 연구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종교와 사회갈등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해주신 박양식 교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7분과. 세계관 발표

## 사이버 공간의 인간과 성서적 관점

정기목 (장신대 교수)

### I. 서론

인터넷에 의하여 시작된 사이버 공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 개념상의 구분을 떠나 이미 사이버 공간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 낼 수 없는 하나의 실제적인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 II.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

#### 1. 인격과 자아에 대한 이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삶이 우리의 현실 세계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격과 자아는 언제나 같이 있었으므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 2. 사이버 공간의 자아(Cyberself)

물리 세계의 본래 행위자와 더불어 사이버 공간의 대리 행위자인 정보화되고 몸이 없는 행위자가 함께 존재하게 된다. 전자를 본래 자아, 후자를 사이버 자아(cyberself)라고 부를 수 있다.

#### 3. 사이버 자아와 인격의 관계

사이버 공간에서 구성된 사이버 자아의 인격성은 물리 세계의 개별적 몸을 가진 인격(즉 개별 인격)에 대응하지 않는다. 즉 사이버 자아는 물리 세계의 본래 자아와 일대일(一對一)로 대응하지 않으며 일차된 속성을 지닐 필요도 없다.

#### 4. 가언적(假言的) 인격으로서 사이버 자아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자아는 '나' 라는 인격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사이버 자아의 인격적 지위는 본래 자아와 관계 속에서 해명되어야 한다.

### III. 성서적 인간 이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인간 자체의 본질은 바뀐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를 진단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도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 1. 이원론적 인간관과 성서적 인간 이해

육체가 무시된 영혼 차원에서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 인격의 존엄성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 성서에서 '육'은 영혼과 구분된 육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육신성을 내포한 인간의 생명 자체로 보는 통합적 인간관을 보여 준다.

#### 2. 본래 자아의 확장으로서 사이버 자아

기독교는 영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몸의 종교이다. 성서는 몸과 영혼을 불가분리적으로 상호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다룬다. 몸과 영혼의 근본적 분리는 성서의 개념이라 할 수 없다. 현실 세계의 자아는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확장된 자아, 즉 다양한 사이버 자아의 형태로 활동하는 것이다.

### IV. 사이버 공간의 인간과 구원

성서에서 사이버 공간을 직접 지칭하며 서술한 부분은 없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 현실 세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통치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의 사역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죄성을 가진 인간

사이버 공간의 자아가 몸의 참여가 없다고 하여 본성적인 죄와 관계없다고 할 수 없다. 관계성에서 볼 때 사이버 자아는 본래 자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본래 자아의 죄성은 사이버 자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 2. 실존 전체의 구원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구원은 우리의 실존 전체에 대한 구원이다. 그것이 우리 육신과는 소용없고 영혼에만 소용 있는 구원이 아니다. 그것이 이 세상은 관계없고 내세에만 관계되는 구원도 아니다. 우리의 육체로부터 분리된 우리의 영혼만의 구원이나 자아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사이버 자아를 포함한 우리의 실존 전체의 구원이다.

#### 3. 사이버 공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리스도가 되신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선교의 대위임령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4. 사이버 공간에서 절단과 회심

사이버 공간에서의 회심의 결단이 현실 세계에서의 그것과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한 인간의 구체적인 결단이요 돌아섬인 것이다.

#### 5. 사이버 공간에서 선교의 특수성과 보편성

#### 6. 사이버 공간을 선교의 장으로 적극 활용

### V. 결론: 사이버 공간은 새로운 선교 현장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셨다(행 10:19-20),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에게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심을 보여 주셨다. 이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행 10:35).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신다. 사이버 공간이 현실의 생활이 된 사람들에게 이곳은 우리의 선교 현장이다.

## 7분과. 세계관 논찬

## “논찬: 사이버 공간의 인간과 성서적 관점에 대하여”

김근주 (푸른뜻교회/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사이버 공간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뗄 수 없는 공간이 되었으며, 수많은 문제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논자의 글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에 대해 “가언적 인격”이라는 표현을 제시하면서, 사이버 공간의 자아 역시 현실의 인격과 연결되어 있는 자아의 확장으로 풀이하는 논자의 논리 전개는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자아에 대한 좋은 안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자아가 다중적이며, 가면을 쓰고 있지만, 결국 자아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논자의 주장은 타당하며 설득력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이버 공간에 대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논자의 글에 동의와 감사를 표한다. 이 영역의 논의들에 대해 무지한 논찬자가 이 글을 온당하게 논찬하기를 버거웠음을 고백하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 논문이 보다 더 논찬자와 같은 이들을 친절히 안내할 수 있는 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비판적인 제안을 하고 싶다. 아래 내용들은 대부분 논찬자의 무지함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1. 논자는 6쪽에서 사이버 자아를 이해하기 위해 철학의 관점에서 끝나서는 안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논자나 논찬자 그리고 이 학회 모두 기독교인들이기에 기독교적 성서적 이해를 당연히 시도해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왜 철학적 이해만으로 사이버 자아 이해가 부족하지 어느 정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철학의 영역에서 진전되고 있는 사이버 자아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다루어지고 소개되었더라면, 논찬자와 같은 무지한 이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었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2. 6쪽에서 예수께서 아픈 이들을 찾아가셔서 치료하셨음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사이버 공간에서도 사이버 자아를 통하여 복음이 제시되고 그들이 그것을 듣게 될 때 상대 인격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진술이 있다.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사실 제대로 이 글에서 입증해 나가야 하는 진술이라고 여겨진다는 점에서, 결론이 부적절한 곳에 입증없이 선언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어지는 7쪽에서도 사이버 공간에서 복음을 전도하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어디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신앙고백만 있으면, 사실 사이버공간이건 어느 공간이건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 이 논문의 실질적인 결론이 되어 버리는 셈이다. 이러한 내용이 이 단락의 제목인 이원론적 이해와 성서적 인간론과 그리 연관될 없이 너무 평범하고 신앙고백적인 진술일 뿐이다. 결국 ‘사이버 공간에서도 복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따라 열심히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자’가 이 논문의 중반 이후에서부터 계속 주장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면 이러한 결론과 사이버 공간의 인간 이해가 어떻게 연관되며, 성서의 인간 이해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제안이라면, 얼굴을 맞대지 않게 되는 또 다른 상화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신문의 독자 기고란에 전도 글을 쓰는 것과 전도 관련 책을 써서 내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요컨대, 사이버 공간이 또 다른 얼굴을 맞대지 않는 인간 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진술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겨진다. 어디에서건, 어떤 환경에서건 전도에 힘쓰자는 논자라면, 사이버 공간이든, 전화 통화에서 전도하는 것이든, 차이가 없어 보인다.

3. 인간에 대한 이원론적 이해가 지배적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고, 이에 대한

반박도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하나님이 물질 세상을 좋게 지으셨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 찾아가서 고치셨다)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쉽게 반박될 수 있는데, 오늘날까지도 이원론이 기독교의 인간 이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진술은 납득되지 않는다. 7쪽에서 다시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분리될 수 없음을 다루고 있는데, 이 곳의 진술이 6쪽의 진술과 합쳐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적 사고가 지배적인 까닭은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영혼’이니, ‘영과 혼과 육’과 같은 표현들 때문인데, 이에 대해 아무런 검토나 다름 없이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다고 선언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이 이 논문에서 성서가 말하는 인간 이해의 전부라는 점도 아쉽다. 성서의 인간관에 대해 몇 권의 책(김영환, 심상태)을 참고 문헌으로 인용하면서, 다소 일반적으로 선언되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4.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내용들이 더러 있었다. 10쪽에 있는 복음의 현장화라든지, 복음의 메시지는 영감되었으나 표현 양식은 아니라는 내용이라든지는 그 의미하는 바가 좀 더 명료하게 서술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역시 10쪽에서 회심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경우, 이 세계에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단언하는 까닭에 대해 설명이 없다. 나아가 회심은 공동체 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영적 성숙과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는 진술은 바로 위에 있는 이광순을 인용하고 있는 진술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

5. 성령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신다는 진술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고 있는 사람을 통해 활동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6. 사이버 자아가 누리는 온전한 구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이버 자아를 포함한 우리실존 전체의 구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이버 공간에 접근하는 개개의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야 하며,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가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과 사이버 자아가 누리는 구원은 얼마나 다른가? 이렇게 볼 경우, 사이버 공간의 죄론이니 구원론이니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사이버 공간의 죄는 실질적으로 인간 본성의 죄이며, 본성이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일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사이버 공간 말고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은 특별하게 따로 떨어져서 성서적 관점을 묻기에는 부적합해 보인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결국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임하고, 만나게 되는 이웃 - 그가 어려움에 처한 이이든, 사이버 공간에 있는 이이든 - 을 사랑하자뿐이지 않은가?

7. 11쪽에는 편집 과정에서 영긴 문장이 있다.

8. 결론적으로, 이 글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사이버 공간을 선교의 현장으로 활용하며 열심히 선교하자’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이버 공간의 인간 이해와 성서의 인간 이해가 어떻게 다르고 같으며, 각각의 이해가 어떻게 선교와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워 아쉽다. 그리고 논문에서 사이버 공간의 인간에 대해 성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논문은 그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 않다. 사이버 공간과 성서 사이를 메꾸기 위해, 논자는 8쪽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니 사이버 세상도 그 영역에 속한다는 단락을 제시하고 있다.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그럴 경우 사이버 공간은 얼굴을 맞대지 않는 다른 인간 관계들과 아무런 차이나 구별이 없어지게 되며, 사이버 공간만을 다룰 필요도 없지 않나 싶다. 그러다 보니, 다만 사이버 공간이건 어디건 인간은 마찬가지로이다 정도가 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으며, 그것은 사이버 공간의 자아가 실제 인격의 확장이라는 주장의 결론과 연관된 것이다.

# 제8분과 : 철학

8분과. 철학 발표

## 학문과 신앙 그리고 기독교 대학

최용준 (한동대학교 교수)

### 학문과 신앙 그리고 기독교 대학 Science, Faith and Christian University

- 헨드릭 반 리센의 사상을 중심으로 -  
- Focusing on the thought of H. van Riessen -

2012년 11월 10일(토)  
Nov. 10(Sat.), 2012

한동대학교 최용준 교수  
HGJ Prof. Dr. John Choi

###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본론
  - 1. 반 리센의 학문관
  - 2. 반 리센의 학문과 신앙관
  - 3. 반 리센의 철학관
  - 4. 반 리센의 대학관
  - 5. 대학의 변질
  - 6. 대학의 역사
  - 7. 반 리센의 기독교 대학관
- III. 결론

### I. 서론

Hendrik van Riessen (1911-2000)



<http://www.uoffrommed.com/Europe/anti/riessen.html>

### II. 본론

- 1. 반 리센의 학문관
- 2. 반 리센의 학문과 신앙관
- 3. 반 리센의 철학관
- 4. 반 리센의 대학관
- 5. 대학의 변질

### II. 본론

- 6. 대학의 역사
  - 1) 대학의 기원
  - 2) 대학의 주권
  - 3) 대학의 세속화
  - 4) 대학의 배신
  - 5) 대학의 개혁
- 6)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

### II. 본론

- 7. 반 리센의 기독교 대학관
  - 1) 기독교 대학의 기초
  - 2) 기독교 대학의 전제
  - 3) 영적 대립(Antithesis)

### III. 결론

반 리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소명과 그것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기독교 대학의 궁극적인 성패는 결국 각 그리스도인의 마음 중심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기독교 학자의 '순례자'됨을 지적한다. 기독교 학자들은 그 학문 활동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거칠고도 좁은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학문 활동에 진지하게 임할 때 기독교 대학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는 확신한다.

## 8분과. 철학 논평

## 최용준 교수의 &lt;학문과 신앙 그리고 기독교 대학&gt;에 대한 논평

## 최태연 (백석대)

최용준 교수(이하 최교수)는 이 논문에서 일반대학과 기독교대학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기독교대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교수는 네덜란드의 기독교철학자였던 헨드릭 반 리센(Hendrik Van Riessen)의 사상을 정리하고 그 사상에서 기독교대학의 독특성과 토대를 찾고자 한다. 논문의 서두에서 최교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 기독교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속화되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왜 그런가? 그리고 기독교 대학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1)

이 질문을 요약하면 최교수의 문제의식을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최교수는 두 가지를 묻고 있는데, 이 질문은 오늘날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함축한다. 이 두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왜 기독교대학은 그 정체성을 상실해 가는가? 둘째, 기독교대학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최교수는 기독교철학자 반 리센이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독교학문과 대학의 이념을 20세기 중반의 상황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논의를 제공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논평자는 최교수가 서술하는 반 리센의 논의를 따라 가면서 오늘날의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논의에 참여하고자 한다.

먼저 반 리센의 서양문화와 세계관의 비판이다. 그는 “서양 문화가 인간에게 학문과 기술을 통해 엄청난 힘을 가져다주었으나 정작 인간은 폐쇄된 세계관으로 인해 세속화되어 오히려 허무감에 빠졌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러한 세속화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 그리스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철학 및 학문관에 있는데 이를 이어받아 인간의 자율성에 기초한 학문을 강조하던 계몽주의는 처음에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간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어 심지어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까지 선언했으나 결국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인간의 소외를 낳게 되었고 인간을 더 무력하게 만드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왔다” (2-3)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잘 알다시피 그의 스승 가운데 한사람인 법철학자 헤르만 도어베르트(Herman Dooyeweerd)의 사상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리스 철학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측면과 그것을 이은 근대 계몽주의의 인간의 합리적 충족성 주장을 도어베르트는 서양철학에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간의 자율성 주장으로 비판했다. 문제는 이러한 자율성 주장이 처절한 양면성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근대인은 합리주의와 자연주의에 근거하여 세계를 설명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기술력을 개발해 냈지만, 그 결과는 폭력적인 지배와 전쟁과 자연파괴가 확대되는 가운데 인간 공동체성 상실을 통한 개인의 무기력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단지 기독교철학자의 시각만은 아니며,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상당수의 비기독교인 철학자와 문화비평가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그러나 그 대안은 기독교와 비기독교가 현저하게 다르다. 기독교인이자면 대다수가 도어베르트나 반 리센과의 하나님 없는 인간중심주의 비판에 동의할 것이다.

두 번째로 반 리센은 이러한 현대의 모순적 상황이 권위와 자유의 균형과 영적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그 상실이 가장 근본적으로 일러나는 영역을 바로 학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학문이 권위와 자유의 균형을 회복하고 자기 영역의 한계를 벗어나 월권하지 않으려면 철저히 신앙적 전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하나님을 인간 능력의 전 영역, 흔히 말하는 지성의(知性意)의 창조자요,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너무나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상당수의 기독교인조차 하나님은 영적 영역인 신앙의 관계할 뿐, 학문이나 기술과는 관계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신앙과 이성의 분열이라는 근대 이후의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세 번째로 반 리센은 기독교학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 또는 질서를 밝히는 이성적인 작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경험적 관찰과 합리적 추리를 거쳐 비판적 반성을 통해 축적되고 발전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토마스 쿤이나 라카토스 이후의 현대 과학철학의 학문관과 유사하다. 반 리센은 이 과정을 네 단계(심리-감각적, 논리-분석적, 경험적, 실천적-권력적)를 거쳐 통합되고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그는 학문의 세 가지 특성(경험에 개방된 체계, 가설적 설명, 보편적 필연성)을 지닌다고 본다. 반 리센의 이러한 기독교학문관은 큰 틀에서는 도어베르트와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훨씬 합리적 정합성과 동시에 지식형성의 과정적 성격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최교수에 따르면 반 리센은 학문의 발전에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 영혼에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피조계에 숨은 질서들을 발견해 낼 뿐만 아니라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기독교학문은 성령의 인도를 긍정하는 신앙을 전제해야만 한다. 이 점에서 그에게 기독교학문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하나님께 절대존재인 학문으로서 그렇지 않은 세속 학문과 영적 대립(antithesis)의 관계 속에 있다.

네 번째로 반 리센은 이런 전도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학문이 필요하며 그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 기관으로서 기독교대학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기독교대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수와 학생의 협력을 의해서 ‘학문을 훈련하는 곳’이다. 즉 기독교대학은 학문과 신앙의 불가분리적 통합을 추구하는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다. 또한 기독교대학은 보편적 학문의 훈련을 받은 현명한 교양인이면서 동시에 전문 직업인인 크리스천 지도자를 양육하는 곳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주의와 정부의 규정에서 자유로운 대학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기독교대학은 세속적 학문과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학문 사이의 영적 대립을 분명히 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신앙의 원리에 따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이 반 리센이 주장한 기독교학문과 기독교대학에 대한 관점이다. 논평자는 대부분의 논지에 대해 반 리센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이 논문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 내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1. 반 리센은 기독교학문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 또는 질서를 밝히는 이성적인 작업으로 보면서도 기독교학문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이성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그의 이성관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반 리센은 타락 후 이성의 전적 부패(total depravity)를 받아들이면서도 이성의 일반은총론적인 타당성을 인정하는지 궁금하다. 이성 활동이 어디에서 오류를 범하는지, 계시를 거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기독교이성관이 필요한 것 같다.
2. 반 리센은 기독교와 인문주의란 근본 출발점이 다르기에 르네상스 기독교인문주의는 기독교학문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츠빙글리, 부처, 칼빈 등의 종교개혁자들도 기독교인문주의자였고 에라스무스나 부테나 로이힐린, 르페브르의 가르침을 수용했다. 그들은 중세의 스킨라철학을 부정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중심의 인문주의를 추구했다. 기독교인문주의는 이미 모든 지식을 기독교의 성경적 진리 안에서 새롭게 자리 잡게 하는 운동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인문주의를 기독교 50%, 인본주의 50%의 불완전한 합성으로 보면 안된다. 그것은 기독교 안에 수용된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반 리센의 기독교인문주의에 대한 평가는 너무 도식적이고 비통합적인 것 같다.
3. 기독교대학이 학생들의 기독교교양의 형성에 더 힘써야 하는지, 아니면 학생들을 우수한 현장 전문가를 키워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오늘날의 대학은 더 이상 학문 후속세대만을 키우는 곳이 아니다. 실제로는 각 분야에서 일할 미래의 현장 전문가를 키우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두 가지를 모두 잘하는 기독교대학을 지향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가지를 약화시키거나 포기해야만 하는지 고민할 수 밖에 없다. 기독교대학은 어느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할까?
4. 논문의 구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본문 목차는 7개로 되어 있다. (1.학문관 2. 학문과 신앙관 3. 철학관 4. 대학관 5. 대학의 변질 6. 대학의 역사 7. 기독교대학관) 이 목차는 논리적으로도 중복되는 내용도 있으며 불필요하게 많은 나열로 보인다. 차리리 1+2+3을 묶어서 반 리센의 학문관 안에 1) 철학관 2) 학문관 3) 신앙관을 구별하고 4+5+6+7을 모아서 기독교대학관이라는 제목아래 모아서 차례대로 서술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문제제기 내지 질문을 던지면서 부족한 논평을 마친다. 최교수의 기독교대학에 대한 진지한 논문에 감사드리며 논평을 마무리한다.

8분과. 철학 발표

### 전기비트겐슈타인을 통한 기독교철학의 모색

신상형 (안동대 교수)

비트겐슈타인을 통해 20세기의 철학은 그 추세가 달라졌다. 그는 많은 철학적 난제들이 언어 사용의 혼돈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의 전후기 사상은 그 기조가 사뭇 다르다. 여기에서 다루는 전기사상의 핵심은 『논리철학논고』에 나타나 있는데, 언어란 그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언어는 말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다.

종교적 담론은 『논리철학논고』에 따르면 말할 수 없는, 침묵을 권고 받는 언어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요점은 종교적담론이 수없는 발언들을 거침없이 혼동하여 많은 불필요한 논쟁들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에 있다. V장에 언급된 성서의 사태들은 바로 이런 언표와 침묵의 혼동된 사태를 분석하기 위한 용례들로, 이 전기사상의 시각에서 분석한 것 들이다.

이 사태들은 성경의 사태들뿐 아니라, 신앙의 맥락에서 수없이 발견될 수 있는 전형에 불과하다. 물론 이런 사태를 종류별로 나열하면 훨씬 다른 차원의 종교담화의 오류들을 캐내는 부수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관점은 성경 안팎의 오해로 가득한 종교적 담론들을 밝혀 종교적 담론을 제대로 수행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비트겐슈타인, 종교/기독교적담론, 『논리철학논고』, 그림, 언어

8분과. 철학 발표

### 기독교 시민의 공적 담론 참여에 관한 윤리적 탐색

이창호 (장신대)

#### 서론

### 기독교 시민의 공적 담론 참여에 관한 윤리적 탐색

이창호

#### 본론

1. 종교는 대화중단자다: 로티(Richard Rorty)의 실용주의적 접근

- 종교는 '대화중단자(conversation-stopper)'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적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이지, 공적 정치적 정치이 논의되고 또 결정되는 공적 정치적 영역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또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의견을 개진하는 이들이 갖고 있는 전제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공유될 수 없는 어떤 특수한 것이기에 종교인이 특정한 종교적 이유(religious reasons)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비종교인에게 제시한다면 용자는 응답할 근거 혹은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orty 1999: 171).
- 나중에 한 발 물러서지만, 여전히 종교적 이유들을 공적 담론의 장에 허용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는다. 이 입장을 계속 전개해 나가기 위해 로티는 초점을 종교 자체에서 종교 기구들로 옮긴다(Rorty 2003: 141).

문제제기와 논문의 목적 및 전개

- 공적 담론(public discourse)의 장(場)에서는 공공정책과 법률의 제정과 같은 공적 담론이 이루어지는데, 종교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자유라는 두 가지 자유가 이 담론의 장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은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행위를 할 때 헌법적 보호를 제공하는데 대한 사려를 표현하거나 결정하려 할 때 헌법적 보호를 포함하는가? 그러한 허용이 과도한 것인지나, 충돌을 야기한다면? 헌법적 허용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 종교적 신념과 그에 근거한 주장들이 공적 정치적 담론의 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인지에 대해 윤리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허용에 가장 소극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로티(Richard Rorty)로부터 가장 적극적인 입장의 옹호자로 니콜라스 니콜로(Nicholas Wolterstorff), 그리고 그 중간에 롤즈(John Rawls)와 아우디(Robert Audi)를 차례로 다루고자 한다. 각각의 논지와 관련된 윤리 문제를 탐색하고, 이 네 사람의 윤리적으로 비교 평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시민의 공적 담론 참여의 참여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윤리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론

2. 원전통제는 아니다. '공적 이성'에 적합하게 제시하라: 롤즈(John Rawls)의 '정치적 자유주의'

- 정의는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포괄적 교리'(comprehensive doctrines)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가운데서 발견하는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로서 독립적으로(freestanding) 존재한다(Rawls 1996: 144-148).
- '포괄적 견해': 누구든지 신앙적 확신과 같은 자신의 포괄적 신념을 피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 정의를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신념과 그에 근거한 종교적 이유들은 헌법적 가치와 공적 이성(public reason)에 부합되어야 한다(Rawls 1996: 249-151).
- 넓은 견해: 공적 담론의 장에서 개진된 종교적 이유(religious reasons)를 등반한 주장들이 공적 이유들을 충분히 등반한다면, 또 공적 이유들(public reasons)을 충분히 제시하게 되면 확약한다.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 시민의 공적 담론 참여에 관한 윤리적 탐색』에 대한 논찬

이 동 훈 (장신대 강사, 기독교윤리)

본론

- 3. 세속적 정당화와 세속적 동기부여의 원칙을 충족한다면, 들어오라: 아우디(Robert Audi)의 세속주의적(secularist) 자유주의 확장
- 세속적 정당화의 원칙: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이나 공공적 정책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려 할 때 그러한 행위가 옳거나 지지에 대한 충분한 세속적 이유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지지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제1원(Prima facie <프리미 파시에>)의무(Audi and Wolterstorff 1997: 25)에 관한 원칙
- 세속적 동기부여의 원칙: "인간 행동을 규제하는 법이나 공공 정책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려 할 때 규범적으로 세속적인 이유(secular reasons)로 충분히 동기부여 받지 않는다면 그러한 지거나 옹호를 자체해야 한다는 제1원(Prima facie <프리미 파시에>)의무"에 관한 원칙(Audi and Wolterstorff 1997: 28-29).
- 교회론적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사회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교회들은 인간 행동을 규제하는 법이나 공공 정책들과 공적(公)적 출마한 후보자들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것을 자체해야 하는 제1원(Prima facie <프리미 파시에>)의무"(Audi and Wolterstorff 1997: 40)에 관한 것.

본론

- 5. 비교와 평가
- (1) 정당화와 그 근거
- 아우디, 롤즈, 그리고 로티의 비교: 아우디의 세속주의적 접근은 롤즈의 자유주의적 접근과 로티의 종교적 접근을 비교한다. 아우디는 세속적 정당화의 원칙을 옹호하며, 롤즈는 자유주의적 접근을 옹호하며, 로티는 종교적 접근을 옹호한다. 아우디의 접근은 롤즈의 접근과 유사하지만, 로티의 접근은 아우디의 접근과 다르다. 아우디의 접근은 세속적 정당화의 원칙을 옹호하며, 로티의 접근은 종교적 정당화의 원칙을 옹호한다. 아우디의 접근은 롤즈의 접근과 유사하지만, 로티의 접근은 아우디의 접근과 다르다. 아우디의 접근은 세속적 정당화의 원칙을 옹호하며, 로티의 접근은 종교적 정당화의 원칙을 옹호한다.

본론

- 5. 비교와 평가
- (3) 시민적 덕성
- 롤즈와 같은 자유주의자는 상대적으로 덕윤리에 관심이 적다. 시민적 덕성과 같은 덕윤리의 개념은 어떤 것이 풍부하지 않은 덕사관론자에게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윤리적 양상을 전제한다고 보기가 때문이다.
- 아우디의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의 강조는 자유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에서의 덕윤리의 전개라는 관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의 덕윤리는 행위를 규율하고 안내하는 기구로서의 도덕적 규범에 대한 인지(認知)와 구체적인 행위론 구현하게 하는 동기부여에 초점을 둔다.
- 시민의 공적 참여와 행위자로서의 시민적 덕성에 관해 롤리스토프는 그의 덕윤리 담론의 장에 있는 문헌 그대로 설명하면서 옹호하고 있는 바를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롤리스토프는 시민적 덕성에 대한 그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본론

- 4. 종교인의 공적 참여는 자유민주주의의 이성에 부합한다. 참여하라: 윌터스토르프(Nicholas Wolterstorff)의 유신론적 종교적 사회윤리
- 종교적으로서 비합리적인 상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종교적 상을 "사회적으로서 합리적인 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사회적으로서 합리적인 상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종교적 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합리적인 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Audi and Wolterstorff 1997: 105).
- 종교적 상을 통해 있어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것들을 옹호하는 것이 된다(Audi and Wolterstorff 1997: 105).
- 종교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이유들을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고 비종교인도 이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비종교인들이 비종교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반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수한 종교적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이성의 부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략 혹은 방법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적 규범에 따라야 하는 윤리적 차이를 내재한 요구사항은 아니다(Audi and Wolterstorff 1997: 164).

본론

- 5. 비교와 평가
- (2) 영역 이해
- 로티와 롤즈의 영역 구분은 비판의 대상이다. 로티(Ronald Thiemann)는 롤즈의 공적 담론의 영역 구분과 같은 영역 구분의 자유주의적 이해는 롤즈의 자유주의적 접근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롤즈의 자유주의적 접근은 롤즈의 자유주의적 접근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롤즈의 자유주의적 접근은 롤즈의 자유주의적 접근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결론

- 세 가지 윤리적 제안
- 영역 이해와 참여 방식: 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정치적 영역을 포괄하여 모든 합리적인 영역에서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옹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사회적으로서 합리적인 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Audi and Wolterstorff 1997: 105).
- 시민적 덕성: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과정적이고 또한 형식적인 의미에서 정의가 뒷받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수단은 시민적 덕성을 갖추는 것이다. 시민들이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수단은 시민적 덕성을 갖추는 것이다.
- 종교의 정치의 배리: 종교는 정치의 영역에서 안 되며, 어떤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옹호하기 위해 쓰이거나 그것과 동일시되는 것은 옳지 않다. 종교는 정치의 영역에서 안 되며, 어떤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옹호하기 위해 쓰이거나 그것과 동일시되는 것은 옳지 않다.

1. 이창호 박사의 깊이 학습된 발제물을 논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기쁨입니다. 귀한 연구물 덕에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독교 시민의 공적 담론 참여'는 저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 이 박사는 자신의 주된 관심사 기독교 신자들의 공적 정치적 참여의 윤리적 탐색을 위해 네 명의 학자를 다루셨습니다. 로티(Richard Rorty), 롤즈(John Rawls), 아우디(Robert Audi), 그리고 윌터스토르프(Nicholas Wolterstorff)입니다. 물론 발제자가 서론에서 밝힌 대로 이 네 명의 학자를 비교평가하는 과정에서 티만(Ronald Thiemann), 홀렌바흐(David Hollenbach), 샌델(Michael Sandel), 스타우트(Jeffrey Stout) 등의 주장과 통찰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발제자께서는 기독교 시민의 공적 담론 참여 허용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학자에서부터 중간 및 적극적인 허용을 보인 학자를 소개함으로써 균형 잡힌 연구를 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 네 학자 각각의 논지와 장단점을 탐색하고, 이 네 사람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는 연구에 근거하여, 한국 기독교 시민의 공적 담론에의 참여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윤리적 제안을 제시하셨습니다.

3. 이 박사는 '기독교 시민이 공적 정치적 담론의 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역할의 적절한 수준이 어디까지냐?' 에 고민을 하며 발제물에서 네 명의 학자들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소개비교평가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먼저 기독교 시민의 공적 정치적 담론에 대해 부정적-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로티(Richard Rorty)를 소개하면서, 그의 기본 인식이 종교는 사적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이지, 공적 정치적 정책이 논의되고 또 결정되는 공적 정치적 영역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기에 "종교는 대화중단자다!" 라고 정의한다고 발제자는 로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로티가 한 말 몰라나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공적 주장을 펼치면서 기독교 시민의 공적 담론 참여에 부분적 허용을 지지하나, 여전히 종교적 이유들을 공적 담론의 장에 허용하는 것은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발제자께서 두 번째로 소개한 롤즈(John Rawls)는 로티(Richard Rorty)보다는 이 부분에 좀 관대하긴 하지만, 기독교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노예제도 폐지와 킹 목사의 시민권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적 이성'에 적합하게 그 참여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며 정치적 자유주의 주장자로 롤즈를 소개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한 아우디(Robert Audi)에 대해선 "세속적 정당화와 세속적 동기부여의 원칙을 충족한다면, 들어오라!" 그 제한적 허용을 한 학자로 소개하셨습니다. 아우디도 앞의 로티(Richard Rorty), 롤즈(John Rawls)와 다르지 않은 기독교 시민의 공적 담론 참여에 대해 부정적-소극적인 학자임은 분명하나 다른 점은 앞의 두 학자보다는 허용의 정도가 좀 적극적이었던 데 있다고 발제자는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우디의 이런 자세는 세속적 정당화의 원칙과 세속적 동기부여의 원칙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는바, "교회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정치적 힘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데 있지 않고 도덕적 영적 힘을 발휘함을 통해서 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또한 교회가 정치적



힘을 발휘하는 것은 종교적 갈등을 일으키고 또 종교적 지배에의 유혹에도 빠질 수 있다” 는데 있다고 발제자는 밝히셨습니다. 여하튼 아우디는 로터나 몰즈에 비하면 중립적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된 윌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발제자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학자입니다. 윌터스토프는 “종교인의 공적 참여는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에 부합된다” 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고 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신론적 통전적 사회윤리에 기본 입장을 두고 있는 윌터스토프는 국가와 종교를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분리주의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그는 종교적 주장이 공통의 합리성에 근거한 시민들의 협력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덜 분열적이고 좀 더 정돈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교가 공적 영역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도 반대하는데, 정치적 판단과 행동을 위해서는 그 어떤 종교의 영향도 받지 않는 인식론적으로 적절하고 행동의 동기 면에서도 충분한 근거를 갖추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윤리라는 아우디식(式)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발제자는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윌터스토프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교적 주장도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바,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서 정치적·윤리적 의미를 추출해야만 하고 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공적 토론의 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발제자는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발제자는 윌터스토프가 “다만 공적 담론의 장에 들어와서 자유로이 종교적 주장을 펼치되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공공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윌터스토프는 조언할 것이다.” 라며 윌터스토프에 대한 해석을 가미하셨습니다.

4. 이 박사님은 이상의 네 학자들이 기독교 시민의 공적 담론에의 참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소개한 후, 이들을 비교하고 평가하셨습니다.

발제자는 로터의 실증주의적 접근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종교와 종교적 윤리적 실천에 대한 이해는 비판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종교적 삶이 본질적으로 사적 이기에 종교의 공적 영역에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로터의 종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즉 발제자의 입장인 종교를 사적 영역에만 가두어 둘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로터와 유사하게, 몰즈는 이론적으로 정치적 정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또 실제적으로 사회적 안정 등 공공선에 장애가 된다면, 공적 담론의 장에서 종교적 혹은 신학적 정당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발제자의 몰즈에 대한 비교-평가였습니다.

반면 아우디는 몰즈보다 ‘포괄적 교리들(신념들)의 공적 영역 참여’ 에 대해 더 많은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에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이 인식론적 관점에서 도덕적 지식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지점에서 윌터스토프와 만나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는데, 이 주장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러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라는 이해에 기초하고 있는 듯하다는 것이 발제자의 평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몰즈보다 공적 토론에서 종교적 주장의 진입의 여지를 더 허용함으로써 몰즈와 거리를 두지만, 궁극적으로 그도 합리적 이성의 정당화 혹은 세속적인 정당화를 강조함으로써 몰즈의 자유주의적 기초를 따른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비교와 평가는 네 학자들이 각각 이해하는 바의 영역구분, 즉 공적 참여의 정도와 방법에서 차이가 있고, 시민적 덕성이 자유주의의 입장에 의해 개인이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거나 성취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그것을 종교인 비종교인으로 나누어 구분하려는 시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진 입장으로 각기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발제자는 정리하셨습니다.

5. 이 박사님은 결론에서 “신앙의 본질에는 실천적이며 공익지향적(公益指向的)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며 로터의 분석과 진단이 과도하게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필자는 윌터스토프와 함께 신앙인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윤리적 규범에 충실하고자 한다는 전체에 동의하면서, 아우디가 허용하는 정도 보다는 더 많이 또 더 넓은 범위에서 신앙인의 정치적 공적 참여의 여지를 열어두고자 한다. 다만 신앙을 가진 시민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공적 영역에 들어가는 의사를 개진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공적 정책을 수립하고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아우디의 입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다. 몰즈의 영역이해가 협소하며 소극적이라는 평가에 공감하지만, 동시에 그의 신중함이 종교인과 종교 기구의 공적 참여가 공공선의 증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염려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며 지금까지 살펴보고 또 비교·평가했던 바들을 참고로 하여 몇 가지 윤리적 제안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영역 이해와 참여 방식에 관한 것이다. 종교적으로 통합적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은 정치적 영역을 포함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들의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종교적 기구들과 그 대표자들이 정치 영역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아우디의 조언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어떤 성직자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또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서 도덕적 통찰을 제공하는 것과 구성원들에게 특정 정책이나 특정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들은 아주 다른 문제이다. 그렇다고 아우디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종교가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시민적 덕성에 관한 것이다. 종교적 기반을 가진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사적 동기나 의도에서 특수한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공적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역사적 실례가 있어 왔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배적 현상이라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 반대 경우도 있으며 또 더 많은 평가도 있다. 다시 말해, 공공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의견을 개진하고 또 실천하는 종교적 시민들과 단체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관한 것이다. 몰즈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우려와 달리, 종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적 영역에 참여해 공공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저런 제한을 두어 종교의 진입을 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에 반할 수도 있고 또 공공선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장려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에서 윌터스토프, 피만, 샌넬 등의 제안과 조언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교의 참여를 격려하고 그러한 참여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참으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종교는 정치와 섞어서는 안 되며, 정치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증진하기 위해 쓰이거나 그것과 동일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종교가 정치적 목적에 종속됨으로 부패에 이르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로 종교가 정치 영역이 고유하게 견지해야 할 선(線)을 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종교가 정치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고 하셨습니다.

발제자는 모두 결론에서 “교회는 그 영향력의 세속적 사용을 억제하고 국가권력은 정치적 목적을 교회의 영적 교리적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회와 국가의 구분은 신중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6. 논찬자는 발제자이신 이창호 박사의 학문적 성실함 덕에 로티(Richard Rorty), 롤즈(John Rawls), 아우디(Robert Audi), 그리고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띠만(Ronald Thiemann), 홀렌바흐(David Hollenbach), 샌델(Michael Sandel), 스타우트(Jeffrey Stout)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논찬자는 발제자께서 오랜 숙고 끝에 내놓은 발제에 대해 공부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결론의 앞 부분에서 “어떤 성직자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또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서 도덕적 통찰을 제공하는 것과 구성원들에게 특정 정책이나 특정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 둘은 아주 다른 문제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는 발제자 개인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정리된 입장인지, 우리 모두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 정리된 입장인지가 궁금합니다.

둘째, 결론의 셋째 부분인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종교가 정치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고 단정하셨습니다. 과연 이렇게 단정하여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치가 바르게 가지 못할 때, 종교는 얼마든지 정치를 바로 잡기 위해 적극 개입에 적극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당에 대해서건, 야당에 대해서건 말입니다.

셋째, 결론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는 그 영향력의 세속적 사용을 억제하고 국가권력은 정치적 목적을 교회의 영적 교리적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회와 국가의 구분은 신중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고 하셨는데 이는 정교분리가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른 문제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일반 언어가 종교 언어를 차용하고, 종교 언어에도 일반 언어가 차용되어 공유되고 있는 시대의 입장에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원칙에 입각해 이원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역(逆)시대적 태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궁금증입니다.

넷째, 발제자께서는 종교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효과를 설명할 수는 없었는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시민사회의 약자처럼 보이거나, 해로운 존재로 비치게 하는 해석들에 고개를 숙인 듯한 것은 우주적 하나님을 믿는 신앙고백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드리는 궁금합니다.

다섯째, 이 궁금증은 제안을 포함한 것으로, 종교를 신앙한다는 이유로 시민으로서 받아야 할 마땅한 대우를 편파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인권적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하여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인데, 혹시 그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7. 이창호 박사의 발제 『기독교 시민의 공적 담론 참여에 관한 윤리적 탐색』 은 감정적으로 분산된 종교와 정치 사이의 관계이해를 이론적으로 명쾌히 해주셨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소위 좌우중간의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함으로써 기독교 시민의 공적 담론 참여여부와 참여정도 및 범위에 대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안내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귀한 발제를 하신 노고에 깊은 박수를 보내며 논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대학원생 분과 제1분과 : 교육1

## 공립학교 기독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분석 및 요구분석

변우진 (ACTS 박사과정)

공립학교기독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분석 및 요구분석

ACTS 기독교교육학관 박사과정 변우진

### 연구 목적 및 방법

**목적**

- 2011년 원도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의 88.4%, 전체 학생 수의 86.8%, 전체 교원 수의 89%의 경우(경인 수) 공립학교에 해당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기독교사들을 위한 고교교육은 잘지 않다.
-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고교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성인 학습자인 기독교사들의 요구를 조사함으로써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기독교사들을 위한 고교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방법**

실태분석 → 요구분석 → 방향성 탐색

실태분석: 기독교학교 9곳, 교사 관련단체 4곳, 교육대학원 6곳

요구분석: 인문, 초, 중, 고교사 150명 (회수율 65.3%), 교사 관련단체 4곳

방향성 탐색: 공립학교 환경, 성인학습자 특성, 기독교사 역량

→ 현황, 내용

### 실태분석

시기, 방법, 내용

공립학교의 현상 및 정책 관련원장을 고려

인문학습자로서의 자질상 다양한 경험을 고려

기독교사로서의 영성, 전문성, 공동체성 고려

· 학기 중 주1회→월2회→매월

· 방학 중 연1회→연2회→각년

· 워크숍(45.4%)

· 강의(39.3%)

· 수련회(7.5%)

· 경건모임(4.5%)

· 컨설팅(1.5%)

· 기독교학교 경인분원→세종대→고교교원

· 교사단체 교육실용→교육진흥원→교육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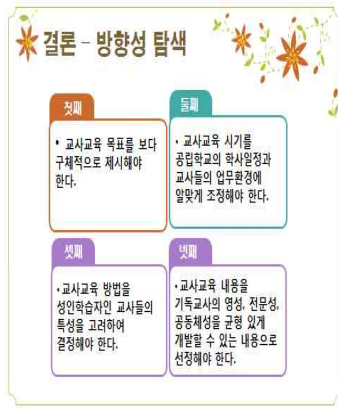
· 교육대학원 교원교육→기독교교육진흥원

### 요구분석(1) - 인식조사, 취향조사

구분	인식조사	취향조사
2012	2%	3%
2013	7%	1%
2014	5%	2%
2015	4%	3%
2016	1%	1%
2017	1%	1%
2018	1%	1%
2019	1%	1%
2020	1%	1%
2021	1%	1%
2022	1%	1%

공공기관 기독교교육진흥원

인문 20%, 전문성 40%, 공동체성 40%



## X세대와 N세대의 크리스천 SNS(CNS) 인식 및 활용에 대한 연구

유희진 (홍신대학교 기독교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현대인은 '세계는 하나' 라는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은 컴퓨터와 핸드폰이라는 공간을 뛰어넘는 통신매체의 발달로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공간의 제약이 뛰어넘어 세계를 손 안에 들어오게 한 것은 핸드폰의 발전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080만명 정도이고 이동통신 이용자는 5250만명을 넘었다(프레시안기사, 2012). 이것은 핸드폰이 이미 보편화를 넘어 우리 삶의 중요 부분을 차지함을 시사한다. 오늘날 핸드폰은 전화 통화의 기능을 넘어서 인터넷과 사진, 동영상 기능, 네트워크 친구들과의 정보교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의 공유와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에 있어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런 소통의 수단인 SNS이상에 대한 미국 퓨리서치 센터 22개국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은 미국, 폴란드, 영국에 이어 4위에 해당하며 10명 중 4명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연령대별로 18~29세가 응답자의 81%, 50세 이상은 6%만이 이용한다고 하였다.(강용훈, 2012) 이런 제반의 상황을 볼 때, 한국교회의 부흥을 다시 꿈꾸는 기독교계에서 복음과 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핸드폰과 인터넷을 통한 Network Service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독교계는 대형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크리스천 SNS를 구축,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학계에서는 선교와 목회분야에서 SNS를 활용한 연구가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대적 특성을 간파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시대적 상황과(가이사라 시대에 세금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 개인의 형편(수가성의 여인의 예화)을 고려한 모습 속에서 현대인들의 소통의 대표적 서비스인 SNS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확장하는데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당면의 과제가 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독교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실제로 성도들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흔히 스마트폰을 장난감 다루듯 하는 신세대에 해당하는 N세대와 구체대로 일컬어지는 교회의 중추라 할 수 있는 X세대 간 크리스천 SN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 연구하여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위한 교회 내 세대 간 통합 방법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크리스천 SNS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파악하여 어떻게 인식을 고취시키고 크리스천 SNS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한국 교회의 새로운 복음전략의 도구로 그리고 크리스천의 신앙 성숙의 도구로서, 공동체의 하나 됨을 이끄는 소통의 통로로서 크리스천 SNS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X세대와 N세대의 크리스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식 및 활용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인천 계산동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소속된 계산교회 성도 21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 수거 된 설문지 중 유용한 180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다양한 성도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에서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와 청년1, 2, 3부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도구는 『통계로 본 한국교회』에서 소셜 네트워크 시대, 한국 교회 현주소는(2011)에 사용되어진 전화통한 설문조사를 수정, 보완하여 개인사항에 관한 일반질문 5문항, 크리스천 SNS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 3문항, 그리고 크리스천 SNS의 활용 방법과 목적에 관한 질문 8문항으로 총16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것은 교수 1인과 박사과정 4인의 교육 전문가에 의하여 타당성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사항의 질문에 관한 문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응답자의 특성을 알아보고, X세대와 N세대의 크리스천 SNS에 대한 인식의 차이, 활용 목적과 방법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인  $\chi^2$  (카이스퀘어) 검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X세대와 N세대의 크리스천 SNS에 대한 인식이 있어 크리스천 SNS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활용하니까의 문항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문항들에 있어서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chi^2$  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인 분석결과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논의에 있어 첫째, 크리스천 SNS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 N세대는 모른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X세대는 모른다와 알지만 활용하지 않는다가 비슷한 비율로 나왔다. N세대는 현 시대에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이다(강용훈, 2012).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크리스천 SNS에 대해 모른다고 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것은 현 시대의 트렌드를 기독교계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그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혹 노력을 한다 해도 N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닐 확률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X세대가 알지만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크리스천 SNS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추후 크리스천

SNS활용에 대해서 N세대와 X세대 모두 대부분이 지켜보겠다고 사용하겠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활성화 시킨다면 크리스천 SNS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크리스천 SNS에 대한 활용목적으로 N세대는 주로 의사소통, 신앙성숙, 정보교류의 순서로 사용하며 X세대는 신앙성숙, 의사소통과 정보교류 순서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 교회의 위기현상이 출석을 저하 등으로 나타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초래된다(최성수, 2008)고 본다면 크리스천 SNS의 활성화를 통하여 현대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셋째, 기존에 크리스천 SNS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N세대와 X세대 모두 관심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것은 스마트폰과 SNS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는 현대의 시류와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정치, 경제적 활동을 비롯하여 수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등 사람들 관심의 핵이라 말할 수 있는 현실에서 크리스천 SNS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크리스천들의 게으름과 자신들의 소명에 대한 자각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이에 결론적으로 첫째, 현대 크리스천들의 문화적 소명에 대한 자각과 재인식이 필요하다. 즉, 크리스천 SNS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현대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수단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크리스천의 삶은 거룩해야 한다는 일관적(一貫之)적인 사고가 하나님이 주신 현대 크리스천의 문화적 소명에의 인식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이것은 과학과 신앙이라는 이분법적 접근대적 사고방식에 의해 과학문명이 주는 이기를 터무니없는 경향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으셔서 현대를 사는 우리의 문화적 소명에 대한 물음과 자각을 통하여 이분법적인 시각은 재조정될 수 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심을 알아야 한다. 결국 사람들이 누리는 과학문명의 이기 또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는 SNS(소셜 네트워크)는 현대의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유저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무형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크리스천들 또한 SNS가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총적 소통의 수단임을 알고 교회 공동체를 견고히 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제적인 크리스천 SNS에 대한 개발과 아울러 크리스천들에게 크리스천 SNS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를 높이는 홍보가 필요하다. 일반인들의 SNS에 대한 인식과 사용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일례로 2010년 DMC 보고서인 SNS에 대한 사용자 의식 조사 에서 응답자의 83.6%가 SNS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크리스천 SNS를 알고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180명 중에서 17명으로 단 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회나 기독교 기관, 단체들이 크리스천들에게 기존의 크리스천 SNS들을 활용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즉, 기독교 기업이나 교회, 그리고 복자나 성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트위터들을 소개해 주고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앞장을 서야 한다.

셋째, 크리스천 SNS를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활용하여 크리스천들의 신앙 성숙과 신앙의 전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하고 확장하는 수단으로 확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의 SNS 활용의 목적은 짧은 층은 소통의 수단으로, 업무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30대는 정보교류, 그리고 40대는 인맥관리를 위해 사용(김민희, 2012)하는데 있다. 크리스천 SNS는 그런 기본적인 목적에 덧붙여 신앙성숙과 신앙전수의 목적으로 확대하여 활용해야 한다. 크리스천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성도들 지체 하나하나가 모여 한 몸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이다. 그것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공동체이기에 신앙성장에 있어서도 각 지체가 같은 성장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이다. 또한 이전에는 절기교육이나 가정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다음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어졌었다. 이에 반해 바쁜 현대 시대에는 세대 간의 사·공간적 단절로 신앙의 전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크리스천 SNS라는 통로를 통하여 신앙 선배들의 신앙 경험을 나누고, 사·공을 뛰어넘는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가르침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세대 간 신앙전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크리스천은 성과 속을 구별하는 이분법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통합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 안에서 능하지 못한 것이 없으며, 로마서 8장 22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어진 세상의 것들을 도외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의 또 다른 사명일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기간이 짧은 관계로 인천의 계산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청년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크리스천 SNS에 대한 인식과 여러 의견들이 일반화되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직 연구될 여지가 많은 크리스천 SNS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지역과 규모의 교회들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의 연구가 나올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학문의 한 분야가 되길 소망한다.

##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 그림책으로 바라보기

박현경<sup>43)</sup>, 김현경<sup>44)</sup>, 연혜민<sup>45)</sup>

모든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자아정체성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성(性)이다(Egan & Perry, 2001). 그러나 1960년대 북미와 서유럽에서 시작된 일명 '성혁명' 이 일어난 후 성에 대한 가치와 성구분은 급격히 변화되었다. 세속화되고 왜곡된 성 개념 속의 현대에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남성과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바람직한 성 지식을 기반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 개념, 성 가치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상호보완작용을 하면서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고유한 도서장르로 (현은자, 강은진, 변윤희, 심향분, 2004) 성교육의 매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그림책은 살아감의 체험을 들려주고 보여줌으로서 과학적인 설명과 다른 방식으로 실제의 본질을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그림책에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성가치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그림책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그림책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인간, 공동체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각각의 그림책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남자와 여자는 구별된 성으로 접근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공통되면서도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남자이기 때문에 혹은 여자이기 때문에 관계에서의 우열이 가려진대거나 부르심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한편,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고유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지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를 향해서 열린 체계로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다름과 차이가 서로를 배격하는 도구가 아니며 남자와 여자는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차원에서 지으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의 공통된 정체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림책, 남자와 여자가 진정한 공동체로 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그림책을 통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성경의 진리에 대한 감수성을 갖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그림책에는 비기독교적인 관점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정형성, 성정체성이 외모중심이나 특정 영역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 성역할의 고정화와 나와 내몸의 주인이 나라는 인본주의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남자는 울면 안되고 씩씩해야 하며, 여자는 다소곳하며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가치를 전수하고 있거나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외모 중심이 되거나 몸의 일부에 대한 우열을 가리는 것이 될 경우 아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킨다. 성역할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남성과 여성의 우열에 따라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남자의 할 일과 여자의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필요하다. 성교육의 차원에서, 자아의 존귀함과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돌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안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와 교사들은 그림책 속에 녹아 있는 남자와 여자의

43)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수료

44)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수료

45)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수료

여자다움의 모습을 잘 분별하여 아이들에게 제시해줄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함께 토론하며 그림책을 읽음으로써 아이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성가치의 왜곡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성경의 눈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어야 한다.

남성다움, 여성다움 또는 동성애 등에 대해 그리스도인들도 매우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세속화되고 왜곡된 성개념과 성행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판단과 정죄로 또다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려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 8:7)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그들이 돌이켜 돌아올 공동체를 만들어주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선포한 우리 존재의 한 측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성과 여성으로의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성은 대치되거나 대체되거나 부정될 수 없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으로 인해 성의 뒤틀림은 시작되었다. 서로 보완해주기 위하여 지음받은 상호성은 경쟁으로 빚나갔다. 그러면서 성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기적으로 착취하는 인간의 무시무시한 능력이기도 하다(Grenz, 1990). 여성이기에 또는 남성이기에 차별하는 것, 세속적인 관점에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규정화하는 것, 특정성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즉 성은 타락의 영역이며 구속(창조)의 영역인 것이다.

1960년대 이후의 성혁명으로 시작된 주제 중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장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 정직성(Sexual honesty)이다. 누구나 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 미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정직성은 성이 인간의 삶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교만하지 않은 자세로 참을성있게 논의하려는 마음가짐을 뜻한다(Mouw, 1992). 이제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자녀와 부모, 학생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되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왜곡된 성의 양태를 직시하고,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 논의하여야 한다.

## 현대 한국 기독교학교 정체성의 역사적 고찰

김태영(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현대에 들어와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신앙교육이 목적인지 아니면 학교교육이 우선인지 정체성의 혼란이 있다. 그 이유는 기독교학교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일반학교처럼 학교기능에만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개화기 기독교학교는 근대역사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나타냈다. 기독교학교는 조선에서 직접적인 선교의 길이 막혔던 선교사들에 의해 교육과 병원을 통한 간접 복음전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다. 조선 최초의 근대학교인 배재학당을 시작으로 기독교학교는 동양적 사고 한학중심의 사회에서 서양식 지식중심의 사회로의 변혁을 이끌어 냈다. 특히 일제 식민시대를 맞아 일제에 항거하는 민족운동과 이화학을 중심으로 한 여성교육운동으로 그 정체성이 나타났다.

근대역사에 특별한 영향을 주었던 기독교학교의 역할은 일반역사에서도 검증되었고, 이에 대한 방대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현대사에 들어와서 기독교학교는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화된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세속화된 기독교학교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시대별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변천과정을 각 시대마다 정치사회적 배경과 교육정책 안에서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연구하였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그러나 사회발전으로 인하여 학교가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전가 받았고, 특별히 기독교학교는 가정, 교회, 학교와의 긴밀한 삼각관계가 중요시됨으로 연합관계에서 운영되어지는 원형으로서의 기독교학교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으로 ① 기독교학교의 비전과 설립목적, 인간상 ② 기독교 예배 ③ 기독교 신앙교육 ④ 기독교세계관 형성의 교육과정 운영 여부 ⑤ 기독교 문화 활동으로 설정하였다.

기독교학교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학교의 비전이다. 기독교학교는 학생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해석하여 모든 환경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의 두드러진 특징이 채플이다. 왜냐하면 중세와 종교개혁시대 뿐 아니라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기독교학교에서도 채플은 기독교학교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기독교학교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구성원들은 기독교학교의 설립비전을 공유하게 되고, 죄인 된 인간으로서 기독교학교로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 기독교학교의 구성원들은 채플을 통해서 상한 심령을 치유 받고 회복되어 전인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

기독교신앙교육은 교직원들로 하여금 기독교학교에서 사역하게 된 이유를 알게 해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기독교학교 신앙교육은 성경수업 외에도 다양한 모임의 기도회나 반별 찬양경연대회, 성경퀴즈대회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기독교 세계관 형성의 교육과정은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과정 전반에 적용하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학교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기독교학교는 교육의 전체 맥락과 구조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나이트(Knight)의 삼각형모형을 통해 성경은 다른 과목과 병행하는 과목으로 분리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과목의 기초로서 전 과목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교육과정 전반에 적용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이다.

기독교 문화 활동은 기독교학교의 종교성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신앙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 문화 창달의 정체성을 이룩하기 위해 단지 종교 활동이나 성경과목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일반학교와 확실히 구별되는 기독교학교만의 정체성이다.

이러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은 해방 직후 교수요목 시기에서부터 불안하게 출발했다. 항일운동과 해방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기독교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학교는 교육법을 제정할 때나, 제1공화국에서 교육법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이 인정되는 교육정책 입안에는 적극적으로 없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한 고교평준화 정책이 실시되기 전까지 기독교학교는 비교적 자유롭게 기독교학교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 무상교육과 고교평준화에 따른 국가주도의 교육과정이 실행되면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배움에 대한 열기는 교육과정 현상을 가져왔고,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을 가져왔다. 또한 197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성장주의와 현대교육을 지배했던 인본주의 교육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게다가 정치적 영향에 의한 7차에 걸친 교육과정개정은 기독교학교로 하여금 정체성을 상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반교육사조에 의해 세속화되었다.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세속화는 1990년대 이후부터 대안학교를 등장하게 했다.

특별히 본 연구는 기독교학교연맹 요람을 통하여 밝혀진 현존하는 기독교학교의 설립연대를 분석, 비교하면서 1969년 후반부터 시작된 국가 주도의 전체주의 교육이 각 시대와 정권별로 기독교학교 정체성을 어떻게 위협했는지, 그때 기독교학교들은 현대의 주된 흐름인 입시위주의 교육과 출세를 지향하는 교육과 타협하여 세속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왜냐하면 20세기와 21세기의 다양한 가치변화에 대해서 기독교학교가 적절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대교육에서 기독교학교가 정체성의 위기에 처한 것은 기독교학교만의 독특성, 예컨대 기독교학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철저히 고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제언에서 기독교학교는 건학이념인 기독교학교의 다섯 가지 정체성으로 회귀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네덜란드 기독교학교운동 역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제시하였고, 한국에서 1990년 이후 일어난 기독교대안학교운동을 통해서 제시하였다.

초기 기독교학교가 성경적 건학이념으로 근대교육에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미래를 살아갈 기독교학교는 국가 주도의 고교평준화에 위한 전체주의 교육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려는 인본주의 교육에 의해 상실했던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의 운영 주체는 기독교 비전을 확고히 하여 기독교 예배를 통하여 건학이념을 전수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그리스도인 양성의 교육목적을 실현하며, 다양한 기독교 문화 활동들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양성을 위한 신앙교육을 실행함으로써 다시금 미래 세대의 한국교육을 주도하는 기독교 학교가 되길 기대한다.

## 대학원생 분과 제2분과 : 교육2

### God, You, and Me: The Communal and Communicative Nature and Purpose of Language

By Deolito Vender Vistar, Jr.

I once asked a Korean middle school student: "Do you try to speak English at school, say, to your classmates and friends?" He confessed "no," saying that he is afraid of making mistakes and eventually losing face in front of his peers. I assured him that it is alright to make mistakes because, after all, he is not a native speaker of that language. But I do understand this boy's plight, which is commonplace here in Korea. His fear is not self-inflicted; it is caused by a society that has missed the purpose of language learning and acquisition. There is no doubt that the best way to acquire English is by immersion—the learner should live in an English speaking community, where the drive for verbal *accuracy* is not as highly emphasized and where English is spoken for the primary purpos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to understand and be understood.

This observation leads us to the question of the nature of language understood from the biblical perspective. This paper argues that language is a communicative enterprise among three parties: God, you, and me. The vertical aspect of it is that God employs language to commune with us humans, and He has done so first through His messengers—prophets and apostles whose God-inspired words (2 Tim. 3:16 & 2 Pet 1:20-21) are now inscribed in the Bible, and ultimately through Jesus Christ. This fact presupposes that God has gifted humans with the capacity to communicate via language. The God-human community is a two-way street in that humans respond to God in the unspoken word of the heart and the spoken words of the mouth (Romans 10:9, 10). The horizontal aspect of it is the communication and community that God has intended for human beings. In this paper, language is seen as God's gift for humanity and that it must be exercised with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This paper seeks to advance three crucial points about language: (1) the *telos* of language is communion through communication; (2) there is the vertical communion between God and mankind; and (3) there is also the horizontal communion between and among human beings. This paper will conclude with a call to a responsible use of language.

#### 1. Language's *telos*: Communion through Communication

What is the intended end or purpose for language? To this question, the evolutionary worldview has no meaningful answer. This is exemplified in *The seeds of speech: Language origin and evolution* where the author, evolutionist Jean Aitchison, argues that humans and human language are products of evolution.

This paper argues that language is a creation of God, supported by the biblical claim that God speaks. That God speaks is very plainly shown throughout the Bible. God speaks in many ways, including linguistic speaking, and the latter is the scope of this paper. God is limitless and



he can surely engage humans in our very language if he so chooses. And he did, like when he spoke with Adam in the Garden of Eden, to Moses on Mount Sinai, to the prophets, and to many other personalities. God engaged the Israelites in their own human language when God gave the Ten Commandments to them. God does the same for us nowadays through his written Word, the Bible. Because God speaks, we too speak. We reflect him.

It is now easy to see that there is a design plan for language, and that design is for language to serve as a communicative tool for communion between God and humans, and among humans ourselves.

## 2. God-Human Communication and Community

The *imago Dei* in which humans were created refers to the whole human person, with all the faculties, including the ability to engage in intelligible speech via human language. That language is constituted in the *imago Dei* is proven by the fact that only humans speak, while “animals remain silent” (Harrub et al., 2003, p. 93).

God is presented in Scriptures as seeking out, addressing, and communicating with humans. He addressed Adam before and after the Fall. The Fall in fact calls forth radical ways of God’s speaking (acting) if humans were to hear God’s voice, for they because of sin have become unable to see and hear. He addressed the Israelites through his prophets. Eschatologically, God spoke to us through his Son, who is the radiance of his glory and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Heb. 1:2-3). John calls the Son the eternal Word (John 1:1) who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v. 14a).

The church—the community of the saints—is where real communion takes place between God and humans. The church is where language performs to its ideals—where God speaks and believers listen, where believers respond to God’s Word through confession, praise, and prayers. The church is also where the God-intended communicative *telos* of language happens in the sphere of human community, the subject of the ensuing section.

## 3. Human Communication and Community

The *Atlas of Languages* declares: “No languageless community has ever been found” (cited in Harrub et al., 2003, p. 93). Fromkin et al. (2011, p. 34) write: “Wherever humans exist, language exists.” Why is this so? Stated above, this linguistic ability is ineradicable part of humanity, of the *imago Dei*. Two things should be noted. First, language is meant for the nurture of human relationships and community.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acquisition best happens in the context of human relationships and community.

That language is designed to foster community and best acquired in the context of that same community is the reason why a deprivation of that community results in the failure of language acquisition. Fromkin et al. (2011, p. 63) cite Genie’s case in scientific reports in 1970.

“She had been confined to a small room under conditions of physical restraint and had received only minimal human contact from the age of eighteen months until nearly fourteen years.” She did not know any language by the time she was reintroduced into society. Though subsequently exposed to language for many years, Genie failed to acquire grammar, despite having learned many words. The UCLA linguist Susan Curtiss, who worked with Genie for several years, reported that many of Genie’s utterances when she was 15 and older were like those of two-year old children, “the stringing together of content words, often with rich and clear meaning, but with little grammatical structure.” quote Fromkin et al.

Language is a communal need. Only linguistic communication (in the case of the mute, sign-linguistic) allows humans to fully engage with each other.

## 4. Responsible use of language

The state of language is that same state where humans find ourselves—fallen, distorted, darkened, and in need of radical repair. Language has been the most useful tool by those in politics and mass media advertising to manipulate people and advance their purely materialistic interests. The American film producer Joseph Levine commented: “You can fool all the people all of the time if the advertising is right and the budget is big enough” (cited in Aitchison, p. 23). In the political arena, language “is designed to make lies sound truthful and murder respectable, and to give an appearance of solidity to pure wind,” according to George Orwell (cited in Aitchison, p. 23). These are not surprising, for the Bible itself tells us about it already.

But the Bible does not stop with only the dark picture; it tells us that the eternal Word took on human flesh. There was no deceit in his mouth; rather he spoke “gracious words” (Luke 4:22) and “words of eternal life” (John 6:68). God has purposed that his saints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Rom. 8:29). Christ by his life showed us the untainted *imago Dei* and by his death and resurrection made it possible to kick-start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at shattered image in fallen mankind. Based on this indicative, Paul lays out the imperative for the redeemed community, in terms of human speech: “Therefore each of you must put off falsehood and speak the truth to his neighbor” (Eph. 4:25).

What can perhaps be the greatest incentive for responsible human speech is Jesus’ warning in Matthew 12:36-37, “But I tell you that men will have to give account on the day of judgment for every careless word they have spoken. For by your words you will be acquitted, and by your words you will be condemned.” The words we speak “will not be treated as nothing,” contends the *Jamieson-Fausset-Brown Bible Commentary*. “Words as the index of the heart, however idle they may seem, will be taken account of, whether good or bad, in estimating character in the day of judgment.”

## Conclusion

Seen from the biblical perspective, language is beautiful, meaningful, hopeful, personal, social, communal, and covenantal. We need to thank God for this gift, celebrate it, and use it according to his purposes.

Yes teachers should stress verbal accuracy in their language instruction. Yes, language learners should strive for perfection in their use of whatever language. But the moral imperative lies not in linguistic perfection but in the divine purpose with which language is endowed—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deed, for communion with God and with one another! It is precisely this desire for communication that motivates us to use language correctly and responsibly.

## 'God, You, and Me: The Communal and Communicative Nature and Purpose of Language'에 대한 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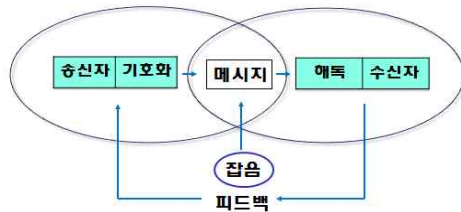
정한호 (충신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서의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God, You, and Me'와 같은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를 하나님의 선물에 비유하면서 반드시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본 논문은 언어의 본질적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한 의미있는 연구라고 사료됩니다.

발표자는 언어를 아름답고 의미심장하며 희망적이고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이며, 공동의 소유이고 계약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발표자는 하나님의 의도된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소인 교회에서 언어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됨을 언급하였다.

본 논문에 의하면, 언어는 타인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독특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과 소통할 때 비로소 타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언어는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 보다는 소통의 도구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발표자는 우리의 정확한 언어사용과 이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책무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발표자는 학습자도 보다 정확한 언어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교육학분야, 특히 교육공학분야에서도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언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수업 실행과정을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보는 교육공학 영역에서 자주 소개되는 모형 중의 하나가 Communication Model 이다. 이 Model에서는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의사소통을 언어가 전달되는 단순한 과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경험의 장이 서로 공유되는 가운데서 송신자가 언어의 형태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수신자에 의해 해독되고 이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다.



상기 Model에서는 피드백, 잡음 등을 의사소통과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피드백은 수신자가 송신자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며, 송신자는 이를 기반으로 메시지를 보낸다. 잡음은 이 같은 의사소통과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물리적 잡음과 심리적 잡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교육학에서 의미하는 의사소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이끌어가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Christian Network Service(CNS)라는 이 시대의 의사소통 산물을 기독교적인 '관계회복'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Luke's theology of missions: commissioned to witness

A paper presentation by Wolo Lasuh [Th.M (Missiology), Kosin University]

At the 29th Annual Society of Christian Scholarship, Myongji University, School of Humanities Campus (Seoul Campus) on November 10, 2012.

### A Summary

#### Introduction

In today's post-modern world it is not easy to talk of mission. People have been brought up with secular worldview and hence tend to find "religion" irrelevant in the world. The importance of Christian missions is therefore being pushed to the sidelines and Christians today seem to be lacking the zeal that was prevalent in the early Church. In order to see the relevance of missions today, this paper focuses on Luke's theology of missions. Luke's uniqueness in writing a Gospel and also the book of Acts, Luke's identity as an historian, a theologian, a doctor and an evangelist makes him an ideal choice for study.

#### Body

The key word that we find in Luke's theology of missions is 'witnesses'. Luke himself is a witness. Luke is a witness because he has seen, experienced and searched for the truth about the things that he has described (Luke 1:3). Jesus commissions his disciples because they have also been with him and have seen and experienced the truth in their lives. Without having witnessed what Christ had done, the disciples would not be qualified to be witnesses. Furthermore, it is the empowering of the Holy Spirit that emboldens them to witness to other people. Both Matthew and Luke imply that the commission is to be for all. No one is to be left out, the Jew, the Gentile, the rich, the poor, men and women, old or young, slave or free, the able and those differently able, whoever or wherever one may be, God is able to reach into their situation and bless them. All are to be witnessed to and discipled so that they in turn become witnesses and disciplers. Witnessing involves suffering and hence it requires empowerment of the Holy Spirit. We may note that witnessing is not with words alone but with one's whole life. As Bonhoeffer has said, one must preach the Gospel at all times and speak only when necessary. The Christian lifestyle is one of the most powerful witnesses that one can put forward.

Missions is aimed at making salvation known and experienced by the people. It is a continuation of what Christ's ministry had dawned. To study Luke, Conzelmann used the key word "*Heilsgeschichte*", variously rendered in English as "the history of Salvation," "redemptive history" or "salvation-history" (Marshall 1992, 77). For Luke, salvation in its holistic aspect is a fulfillment of the Jubilee.

Jesus and Paul serve as important models for witnessing today. Jesus had a specific mission to carry out on the earth which can be summed up in the Nazareth Manifesto (Luke 4:18-19). He healed the sick, cleansed the lepers, and set people free from the captivity of demons. He liberated people from all kinds of bondages be it physical bondage or mental bondage or diseases and even from the bondage of tradition and human laws, such as the Sabbath laws. Jesus also came to save even the worst sinner, the Gentiles and the poor. In Paul we find the expansion of missions to the Gentiles. Luke also portrays Paul as seeking the approval and blessings of the Church in his missionary journeys. It was during his ministry in the Antioch Church that his task was revealed to him and it was the Church that commissioned him (Acts 11:25).

Throughout Luke-Acts we find many different people who represent the cross-section of the cities during those days. The frequent use of the word *polis* also shows the urban concern of Luke-Acts. Jesus and Paul's missions are excellent examples of urban missions. The temptations that Jesus faced as he was about to begin his ministry are temptations that

fill the city today, Jesus' victory can teach us a lot about living a victorious Christian life in the urban setting, Paul' s witness was centered on the cities and hence he reached out to many Gentile nations, He was able to set up many churches as seen in his successful journeys and his epistles to the churches that he ministered to, Through his awareness of the scriptures and the philosophies of his times he witnessed effectively as the Spirit led him from city to city.

For witness to grow, the clergy are called to follow the model of Jesus' incarnation and carry forth the ministry of healing and setting the people free,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heir sheep, the church can grow and bring about transformation in the society that they live in, There is ample support for the laity to be involved in spreading the Gospel, This is particularly found in the growth of the Church in Acts as we see the Holy Spirit moving people and congregations to establish new congregations of believers, In this regard Conn and Ortiz (2001) says, "Involving laypeople in community outreach has proven a powerful influence on cities ever since the church of Jesus Christ began" (253).

#### Evaluation

David J. Bosch, in *Transforming Mission*, (2010) points out that the Nazareth Manifesto found in Luke 4:16-21 has "replaced Matthew' s "Great Commission" as the key text not only for understanding Christ' s own mission but also that of the church" (84). He sees that witnessing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s the theme of Luke, In Luke we also see the progress from Jews to Gentiles and the aspect of suffering as an expression of being a Christian, The spread of missions to the Gentiles in Luke-Acts is not to form a new community but to become a part of the chosen community through their acceptance of the redeeming work of Christ, Similarly, the siding with the poor and the oppressed is not to oppose the rich and powerful, but to bring about equality, Like Paul who strategically chose the cities and "boldly and without hindrance [he] preached the kingdom of God and taught about the Lord Jesus Christ" (Acts 28:31), the missions have to move towards the cities towards the culmination of the Kingdom of God in the New Jerusalem,

#### Conclusion

In conclusion, Luke' s theology of missions implies: *Firstly*, being "faithful witnesses" wherever one has been placed as we participate in witnessing "to the ends of the earth" . *Secondly*, Luke' s theology is inclusive, It includes the Jews and the Gentiles, the rich and the poor, male and female and in fact the whole of creation, *Thirdly*, missions in Luke-Acts, is not human initiative but rather the initiative of God, *Fourthly*, urban missions is a strategic place from which the ends of the earth can be reached,

Thus, we may sum up that Luke' s theology of missions begins from God and has been passed to man through the empowering of the Holy Spirit, This mission aims at salvation for all who would believe: the Jews, the Gentiles,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varied urban population, This mission calls Christians to be witnesses wherever they are and to reach out to the ends of the earth, We are now in the generation that has to reach out to the ends of the earth, We have to witness and affirm the love of God in whichever place on earth God leads us to, be it among the Jews or the Gentiles, the rich or the poor or in the melting pot of cultures in the cities, We need to "...recognize that wherever it exists, the Church of Jesus Christ always lives in a missionary situation" (Pierson 2009, 59). The mission is therefore to always be witnesses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as this is what the world needs and more so as it is what Jesus commands,

Prof. Doo Young Chung in his class lectures suggests that the commission is not just about *discipleship*, but rather *disciplership*. This implies that a Disciple should be able to disciple people who in turn continue this process of *disciplership*.

## 'Luke's theology of missions: commissioned to witness'에 대한 논평

정한호(충신대학교)

본 연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서의 누가에 대한 개관과 더불어 그의 선교신학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탐색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연구는, 본 학회의 주제인 'Social Network Service & Christian Network Service'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본 논문을 통해, 발표자는 'Luke' s theology of missions' 을 'faithfulness witnesses' , 'inclusive' , 'initiative of God' , 'important for urban missions' 이라고 기술하였다. 발표자는 언급하고 있는 누가는 성경에 단 세 번(골4:14, 딤후4:11, 몬1:24) 기술되고 있는 인물로, 바울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역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앙성경 유일의 이방인 저자인 동시에 전도자인 누가는 세리, 창녀, 거지와 같은 이 땅의 소외된 이들을 언급하면서 복음 전파 대상에 차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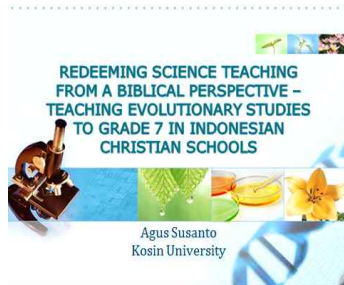
이 같은 발표자의 언급을 통해,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통신의 발달과 함께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Social Network Service를 세상의 소외되고 차별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한 Christian Network Service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면대면 중심으로 수행되었던 의사소통이 직접적 대면없는 온라인 상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Christian Network Service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 교육현장에서는 면대면 중심의 교실수업을 벗어나 방과 후에도 장소 및 시간에 구애없이 원하는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에서 탈피하여 Online LMS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교육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운영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자녀들의 교육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의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시간과 장소의 구애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효율적인 도구로서 Christian Network Service를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시간적으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공간의 제약없이 실시간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Christian Network Service의 확대는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발표자가 본 논문을 통해 강조하고자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학자들이 주장을 거의 여과없이 인용하고 있어, 'Luke' s theology of missions' 를 통해 발표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이 같은 점을 보완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바란다.

## 'Redeeming Science Teaching from a Biblical Perspective - Teaching Evolutionary Studies to Grade 7 in Indonesian Christian Schools'



### Rationale

- † Scholarship is not and cannot be, philosophically neutral.
- † Bartholomew (2000, p. 12) contends, "To claim to be free of philosophical presuppositions is simply to be unaware of them."
- † Science teaching: Modern or Postmodern way?
- † Indonesian Christian schools context.



### The Appropriateness of the Topic

- † Reformational perspective: All men should celebrate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over all of creation, including science teaching.
- † How can we develop strategies and resources for Christian school teachers to reflect reformed worldview in science teaching?



### Ev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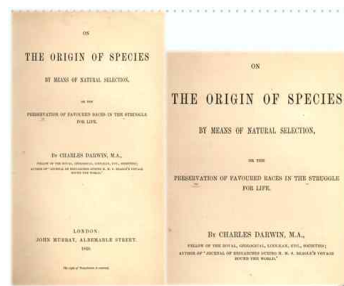
A theory popularized by Charles Darwin in 1859 which tried to explai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 The Meanings of Evolution

By Meyer & Keas (2010)

- ✳ Change over time
- ✳ Gene frequency change
- ✳ Limited common descent
- ✳ The mechanisms responsible for the change required to produce limited descent with modification, chiefly natural selection acting on random variations or mutations
- ✳ Universal common descent
- ✳ "Blind watchmaker"



### Historical Sketch of Theory of Evolution by Charles Darwin

- † There were some scientists and their works which influence Darwin strongly, such as von Humboldt, Herschel, Lyell, Malthus, Lamarck, Wallace.
- † In the preface of his 6<sup>th</sup> edition, he acknowledged 34 authors who influenced him in developing the theory.
- † The theory was not new. The concept of evolution had its beginnings about 700 B. C. in Ionia, Greece from Thales of Miletus (640-546 B. C.) (Rusch, 1959).



### Some examples

- † Aristotle (384-322 B. C.) thought that a purposeful force created a primordial mass of living matter from which all the forms of life from the simplest plants to the most complex animals evolved. Aristotle was believed to be the father of modern science and a man who influenced the world immensely (Blakesley, 1839).



### Some examples

- † Saint Augustine (A. D. 354-430) was one of the early church fathers. He speculated that the seven days of the creation week were not days as we know them. In other words, he favored an allegorical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Genesis (Davidheiser, 1969). However, when we read his works carefully, we may not conclude that he is a contributor to the development of evolutionary thought (Rusch, 1959).



### Indonesian Context

Table 1. Evolution in the National Curriculum Textbooks—Grade 1 to 12 (Subject of Natural Science)

Grade	Level	Subject	Chapter	Sub-Chapter
5	Elementary	Natural Science	Adaptation of Living Things (Tim Bina Karya Guru, 2008, pp. 61-71).	
11	Middle School	Natural Science—Biology	Survival Existence of Organism (Nurhayati, 2007, pp. 164-184).	Adaptation Natural Selection
12	High School	Biology	Theory of Evolution (Nurhayati, 2009, pp. 237-277).	



### Indonesian Context

Table 2. Evolution in the National Curriculum Textbooks—Grade 1 to 12 (Non-Subject of Natural Science)

Grade	Level	Subject	Chapter	Sub-Chapter
7	Middle School	Social Studies—History	"Prehistoric" Human (Materai, 2006, pp. 9-23).	
11	High School	Geography	Biosphere and Aspects of Animal and Plant Distribution (Vardiyatmoko, 2007, pp. 1-22).	Identification of Animal and Plant Distribution on Earth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animals and plants in Indonesia Impairment of Animal and Plant and Impact on Life History

Note. \*) Frelivatory means the time during the development of human culture before the appearance of the written word (Lewis, 2010)



### Christian World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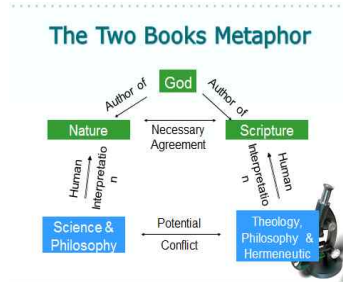
- † There is no neutrality.
- † Science cannot answer everything and be the ultimate truth.



### Christian Worldview: Definition of Science

A human's comprehension of how God, the Creator created the world, and taking care of it by His word of power.

NATURAL SCIENCE	SOCIAL SCIENCE
Astronomy, Biology, Chemistry, Ecology, Geology, Physics	Anthropology, Economics, Linguistics, Political science, Psychology, Sociology

## 'Redeeming Science Teaching from a Biblical Perspective - Teaching Evolutionary Studies to Grade 7 in Indonesian Christian Schools'에 대한 논평

정한호(충신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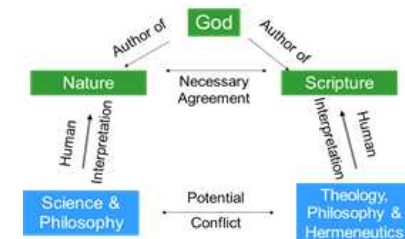
본 연구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과학수업에서 나타나는 진화론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과학교과서가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다윈의 진화론적인 맥락에 기초하여 개발된 인도네시아 과학교육의 패러다임 및 교실수업을 살펴보고 과학교육의 본질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탐색한 의미있는 연구라고 사료됩니다.

발표자가 Harrama과 Harrama(2007)의 저서 'Origins' 에서 인용한 자연과 성경 간의 관계에 대한 그림은, 독자들이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Conclusions (1/3)

- † The theory of evolution was accepted as one of the greatest findings in the Nineteenth Century and was categorized *neutral* to any beliefs.
- † From a Christian worldview, we discover that Darwin's evolution was based on humanist naturalist philosophy which did not acknowledge God as the source and the cause of nature.
- † Darwin proposed a Natural Selection replacing God's position and made it as the ultimate cause for the appearance of new species/lives.


### Conclusions (2/3)

- † Indonesian curricula development which depends on Western society produces no difference to the West. It has been affected by the new age of secularization for more than two hundred and fifty years (Jones, 1998).
- † Since the Indonesian government reformed the educational system and made the 2004 curriculum, there is a wide opportunity for Christianity in Indonesia to establish her identity and to become salt and light for the others.



### Conclusions (3/3)

- † This thesis recommends relocating evolution's discussion from the government's designation of grade 12 to grade 7.
- † It is necessary for Christian teenagers to begin their encounter with the philosophy of science, especially on evolutionary theory, before their brains have developed completely.
- † This thesis recommends changing the title of discussion in Indonesian science textbook from "The Theory of Evolution" to "The Origins Education" which will give students a horizon of the issues more clearly.



발표자는 자연의 존재 및 근거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적 자연주의 철학에 기초한 다윈의 진화론이 인도네시아 과학교과서 내용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자연 도태 (Natural Selection)' 와 같은 비창조적인 현상이 인도네시아 과학교과서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 을 대체하는 것으로 지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표자는 뉴에이지 문화에 영향을 받은 서구사회의 세속주의가 인도네시아 교육과정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해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같은 발표자의 우려는 국내의 교육현실에서도 탐색되고 있다.

한국창조과학회 교과서위원회와 한국진화론실상연구회가 하나로 통합하여 출범된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과 2012년 3월에 '시조새' 와 '말의 진화' 와 관련된 과학교과서 내용의 삭제와 수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물론 이 같은 움직임은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창조론적 교과서 출판에 대한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창조론의 내용을 담은 고교 생물 교과서의 출판을 위한 몸부림은 1988년 4월로 거슬러올라 간다. 그 해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는 1990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용할 고교 2종교과서용 도서 검정공고를 냈었다. 이에 따라 한국창조과학회의 주선으로 이화여대 이양림 교수(동물발생학)와 당시 서울과학고 이광원 교사(현 개포고 교감) 등이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주계몽사가 출판을 맡았다. 집필진은 창조론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야 할 단원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직접 소개하지 않고 진화론을 먼저 소개하되 진화론의 긍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병행 소개, 교육학적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 -중략-

이처럼 창조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창조론과 진화론을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짜여진 예비 고교 생물교과서는 1, 2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최종심사에서 1차 심사 때 아무런 문제가 없던 부분에서 무려 12군데를 삭제하라는 수정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수정 지시는 1차 심사 결과를 무색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문교부의 수정 지시를 따를 경우 앞뒤 단원과 내용을 도저히 연결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집필진은 심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집필을 포기했다. 지금까지 2차 심사에 합격한 후 최종심사에서 불합격된 경우는 거의 없어 교과서 검정사상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지적되고 있다. 당시 언론은 “창조설은 패했고 진화설이 승리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행정절차상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었는데도 마치 창조와 진화의 진위가 법원에 의해 결정된 것처럼 빗나간 보도가 잇따랐다. 창조론적 교과서 출판에 대한 도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공주대 생물학과 윤의수 교수가 2001년 4월 집필진을 구성, 고려문화사(대표 권영석)와 함께 그해 8월 원고 교정을 마친 후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교육부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윤교수는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회고했다. “교육부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때 내 생애에 가장 큰 도전을 받았다. 나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2003.2.9 남병곤기자)

본 연구는 이 같은 국내 현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다윈의 진화론적인 맥락에 기초한 과학교육의 패러다임과 현행 과학수업의 문제점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 탐색한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허스트의 사회적 실체에 기반을 둔 교육에서 '종교'의 의미

정문선(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본 논문의 목적은 허스트의 '사회적 실체에 기반을 둔 교육'에 나타난 '종교'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다음의 논의들을 차례로 검토했다. 첫째 '지식과 이해의 추구'로 대변되는 자유교육에서 '사회적 실체에 기반을 둔 교육' 아이디어로 변화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인 '좋은 삶'의 개념을 검토하고, 둘째, 허스트의 '사회적 실체에 기반을 둔 교육'의 단초를 제공한 맥킨타이어의 '사회적 실제' 개념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실체에 기반을 둔 교육' 아이디어를 개관하고, 그것에 나타난 '종교'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다. 허스트의 자유교육론은 적어도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육에 관한 표준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져 왔다. 허스트의 자유교육론은 피터스의 그것과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자유교육의 출발점, 정당화 방식, 자유교육과 교육의 관련성 면에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합리성의 추구 내지는 지식의 형식의 추구라는 합리주의적 특성을 공유한다. 이들의 자유교육론 속에는 '좋은 삶은 합리주의적 삶, 즉 학문 내지 지식의 형식에 입문함으로써 이론적 이성을 발달하는 삶이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정되어 있다. 이 전체가 타당할 때, 그들의 이론은 타당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피터스와 허스트의 자유교육론은 여러 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놀랍게도 허스트는 그러한 비판에 대해 자신의 종전 입장을 반박하며, 그 대안으로 '사회적 실체에 기반을 둔 교육' 아이디어를 주장한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바꾼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유교육론의 전제인 '좋은 삶' 개념의 변화 때문이다. 허스트는 더 이상 이론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좋은 삶이 인간의 전반적인 면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좋은 삶을 영위하도록 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좋은 삶'을 인간의 전반적인 욕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만족시키는 것으로 재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영위하는 데는 이론적 이성 아닌 사회적 실체에서 길러지는 실천적 이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허스트는 맥킨타이어의 '사회적 실제' 개념의 영향을 받았다. 본래 맥킨타이어는 덕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실제' (a social practice)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허스트는 맥킨타이어의 '사회적 실제' 개념을 교육적인 맥락에서 발전시켜 '사회적 실제'의 입문으로서의 교육(education as initiation into social practices)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유재봉, 2002: 202). 맥킨타이어에 의하면, '사회적 실제' 개념은 '인간행위 혹은 활동', '사회', '전통'이라는 세 가지 차원 혹은 측면을 포함한다. 사회적 실체는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인 행위의 모종의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내적인 가치나 선의 성취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탁월성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규칙을 따르는 활동이어야 하며, 사회적 실제 자체가 그에 종사하는 실천가의 논의의 전통에 의해 진보되어야 한다는 다섯 가지 준거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맥킨타이어의 사회적 실제 개념은 교육을 보는 관점에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사회적 실제 개념은 교육에서의 이론과 실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다루는 데 통합이나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허스트의 '사회적 실체에 기반을 둔 교육'에서의 '종교'는 어떤 의미인가? 사실, 허스트의 논문들에 '종교'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성격을 띠는 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가 없다. 다만 사회적 실체에 기반을 둔 교육에서 '종교'는 도덕적인 삶, 도덕교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된다. 허스트에 의하면, 성공적인 도덕적 삶의 형식은 사회적으로 발달된 일련의 사고, 감정(feeling)과 행위 패턴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곧 개인적, 사회적 관계에서의 매일의 삶의 실체이다. 매일의 삶의 실체는 근면의 추구(the pursuits of industry), 상업(commerce), 교육, 법, 정치, 종교, 예술, 등 인간의 만족과 성취들 속에서 발견된



다(Hirst, 1999: 113-114). 그에게 있어, 종교는 매일의 삶의 실제 중 하나이며, 성공적인 도덕적 삶 혹은 도덕적으로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입문해야 하는 사회적 실제이다.

허스트의 모호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사람으로는 크리텐덴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크리텐덴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필요, 환경 등은 도덕적으로 진공상태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도덕적 선을 형성해주는 이상과 성향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그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든 학교는 우리 사회 안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광범위한 도덕적 실제와 가치들을 수용하여 반영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범위한 도덕적 실제와 가치에는 정의, 진실말하기, 정직,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 기초적인 사회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것, 그리고 다원주의가 의존하고 있는 가치들,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것, 다양한 신념과 실제들을 관용해주는 것, 비폭력적인 설득 수단을 사용할 것에 대한 약속 등이 포함된다.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허스트와 크리텐덴의 아이디어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실제에 기반을 둔 교육'에서 '종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는 도덕성의 체계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서로 다른 종교적 관점은 서로 다른 도덕성을 만들어낸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사회적 실제에 기반을 둔 도덕교육에서는 도덕적 의무의 본질을 이해하고, 도덕적 실제들을 정당화하는데 종교적 신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크리텐덴은 근본적으로 종교의 특징이 도덕성의 기본적 특징과 양립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그동안 도덕성을 단순한 지식의 문제로 취급하고, 논리적 규칙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여겨 왔던 것이 심각한 실수라고 지적한다. 그가 보기에, 도덕성의 요소들은 지식의 온전한 이해를 넘어서는 인간 삶의 조건들과 관련되는 것이다(Crittenden, 1993: 148).

# 대학원생 분과

## 제3분과 : 복지 / 체육

###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범죄의 심리적 메커니즘분석 -가정폭력에서의 소통방식과 폭력 양상을 중심으로

박민선(46)

비행과 범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류와 함께 존속되어 왔으며, 범죄퇴치를 위한 인류의 노력 또한 다양한 제도 및 실천 기술의 발달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 기독교 영성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전문적 실천체계와 이론구축을 시도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통전적 이해와 근본적 대책마련을 도모하려는 반가운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 효과 혹은 역할에 대한 관심의 급증은 연구자들이 「개인적 가진 종교성(spirituality)의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종교기관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Johnson, 2011). 최근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종교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의 도덕성을 높임으로써 범죄경향성을 줄이는 것은 물론, 범죄인에게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를 줌으로써 범죄인을 교화시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 범죄감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민선, 2012).

비행과 범죄에 대한 교정복지 영역은 기독교 영성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실천체계와 개념, 용어의 정의를 통합하는 작업을 어느 분야보다도 시급히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서, 최근의 연구들이 인간행동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력에 대하여 실증적 근거를 밝혀냈다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보다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범죄와 비행분석이 미흡하였고, 또한 이것이 기독교 영성을 근거로 한 고유의 전문적 이론 및 실천체계 구축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복음적 시각에서 비행과 범죄영역을 조명하고 그 원인과 구체적 메커니즘을 해석하는 한편, 이를 인간의 본질적 변화의 문제로 확대하여 전인격에 걸친 인간성 회복에 대한 통합적 대안을 찾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성경적 시각에 근거한 교정복지의 일반화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원론적 의의와 당위성 제시 외에도 구체적으로 범죄와 비행의 발단, 발전, 회복과 치유의 메커니즘(mechanism)에 대한 이론 및 실천체계로서의 각론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범죄의 심리 및 행동적 메커니즘을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일은 범죄의 문제를 일부 범죄자의 특이하고 파렴치한 특성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속성, 즉 죄성(罪性)으로 일반화하여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는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범죄에의 접근이 기존의 행위중심, 사법체계 중심의 범죄행동 분석 흐름에서 동기중심, 본질적 속성 중심으로 분석의 초점이 옮겨진 접근임을 뜻한다. 또한 단편적이고 범주화된 접근이나 처벌 위주, 사후처리 중심의 분석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분석으로 관심의 초점이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음적 시각을 적용한 교정복지의 비행 및 범죄접근은 그 대상을 전통적 가해자에서 가해자 가족, 피해자, 피해자 가족, 지역사회, 전 사회구성원으로 확장한다. 가해자의 범죄의도와 범죄행위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되는 한편,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가해자의 상처와 왜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해자의 가족과 주변 환경, 사회적 맥락까지도 심층적으로 살펴본

46)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교정복지연구소 연구원, kacwc@hanmail.net

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죄성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인간이라는 전제하에 피해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손상이나 파괴를 간과하거나 부추기는 경우 이에 대한 통전적 분석과 대응을 통해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먼저 교정복지의 일반화 근거 및 범죄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주요 원리들을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가정폭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가정폭력에 관련된 문헌 및 논문 20여 편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의 구체적 양상과 가정 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소통을 범죄 심리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및 결론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성경에 근거한 교정복지 일반화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가정이라는 구체적 영역 안에서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은밀한 범죄인 가정폭력으로 드러나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각론적 시도였다. 연구결과 범죄의 근본 원인이 되는 인간의 죄성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대로 인격체를 통제하고, 가해사실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여 피해자의 감정과 사고를 조종하고, 피해자보다 높은 위치에서 지시, 명령, 판단하며 자신에게 절대적 지위를 부여하는 자기 절대화하는 통제-조종-자격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비인격적 동기는 보이는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 언어적 폭언 및 협박에서부터 경제적 제한이나 관계의 통제와 같은 교묘한 폭력,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죄책감과 혼돈을 주고 폭력적 관계를 공고화시키는 심리적, 영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결국 다른 제 범죄행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의 문제역시 개인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며 상대와도 인격적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존재인가와 관련된 본질적 정체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인간의 본질적 죄성(罪性)인 비인격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현실적 제안을 몇 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를 중심으로 개체에 대한 독립성과 존엄성과 인격성이 회복되도록 부부중심의 건강한 가정체계에 대한 교육 및 각성의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부 각자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상담, 개입 서비스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둘째, 범죄 심리의 통제, 조종, 자격의 기체에 따른 폭력방식이 교육되고 홍보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먼저 자신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일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폐쇄성을 열고 하나님의 인격성 앞에 자신을 조명하여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체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도울 수 있는 영적 개입이 가장 중요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더불어 실질적 관계 형성과 유지, 발전에 대한 현실적 시도와 지속적인 개입 및 상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필요에 대한 복지적 개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대상들에게는 초기-중기-말기에 따른 다양한 현실적인 대안과 정보를 제시해 주는 통합적 프로그램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의해 먼저 시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구속적 시각을 통한 가정폭력을 포함한 범죄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단순히 기독교용어를 사용하여 형식적인 설득을 시도하려는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도모에서는 안 되며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바탕이 된 도모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 연구자 및 실천자들이 먼저 기독교적 원리가 체득된 복음적 삶을 실제로 살아냄으로써 삶 속에서의 제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 톨스토이 예술관을 통한 무용예술의 이해<sup>47)</sup>

이 주 회<sup>48)</sup>

현대사회는 교육의 대중화 및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예술을 향유하는 계층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많은 예술장르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예술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진 에드워드 비이스(Veith, Gene Edward, Jr, 1994: 13)에 의하면, “예술은 우리의 삶과 문화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다. 우리 주변의 장식물들,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가 책이나 TV나 영화에서 즐기는 오락들은 모두 예술의 한 발현(發現)이다. 이들은 우리가 의식하든 안하든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시대의 관념과 관심사와 상상력은 예술을 통해 문화 전체에서 표현되고 전달된다.” 라고 하였다. 곧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접하는 다양한 문화는 어느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의 관념과 관심사와 상상력을 반영한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작품들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예술이란 어느 특별한 계층에게만 수용되거나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는 고급한 것이 아닌, 인간생활의 한 조건으로 존재하며 누구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예술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갖는 것은 우리의 선택적 요소가 아닌 필수적 요소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예술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사회적 지위나 지적(知的) 세련미의 상징, 인간의 삶과는 무관(無關)한 것이 아닌, 인간 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적 요소라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의 발전은 예술을 향유하는 계층을 확대시키고 많은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물질적 풍요 속에 있지만, 아직도 관객의 이해와 소통을 거부하는 자기중심적인 예술 또한 많이 존재하고 있다. 관객과의 소통을 통한 이해를 도모하기 보단, 예술작품은 무조건 좋고 위대한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하에 많은 노동력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논하기 어려운 난해한 예술작품들도 많아지고 있다. 무용예술에서도 그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초기의 무용예술은 언어이전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수단을 담당해 온 것으로 인간의 삶과 함께 시작된 가장 원초적인 예술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용예술 또한 급변하는 시대 현상에 따라 다양한 무용예술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과거의 무용예술은 고전주의, 사실주의, 낭만주의, 유태주의, 표현주의를 거쳐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신표현주의 등 특정한 시대사조를 반영하며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예술은 문화산업과 인터넷 및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수많은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무분별한 세계관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과학의 발전이 가져온 표현 및 안무기법의 등의 발전은 점점 더 비언어적이고 추상적인 예술의 형태로 무용예술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작품의 생산과 창조 작업은 많아졌지만, 관객과의 소통은 어려워졌으며 결국 대중과의 의사소통보다는 무용인들끼리 소통하는 전문예술분야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톨스토이의 중심사상과 예술관을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무용예술의 본질에서부터 21세기를 대표하는 예술사조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연구자료 및 그와 관련된 논문들을 분석하여 톨스토이 예술관이 주는 의미와 필요성을 연구하였다.

톨스토이의 예술관을 통해 무용예술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용예술의 본질과 개념 및 흐름을 살펴본 결과, 무용은 생명 그 자체로서 모체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인간이 가진 움직임의 본능적인 감각이 진화되어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무용예술 형태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진화과정에서 있기 전, 초기 무용의 기능은 신과 인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인 되기도 했으며 언어의 발명 이전에 이웃과 상호간의 대화를 나누는 언어의 기능을 담당한 것

47) 본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12)을 수정·보완한 것임.

48) 숙명여자대학교 체육학박사과정

로 드러났다. 따라서 무용예술의 본질에는 미(美), 곧 쾌락을 그 목적으로 두는 현대의 현상과는 달리 인간과 함께 일상생활의 중요한 조건적인 부분으로서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예술에 대한 의의를 알기 위해서는 쾌락의 수단이 아닌 인간생활의 한 조건으로 예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톨스토이의 주장과 무용의 본질적 기능의 역할이 일치한다.

현대 무용예술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장르를 초월한 무용형식의 등장, 장르별 주제 선택의 다양화, 복합된 스타일의 추구, 연극적 요소의 도입 등 다양한 발전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은 실제로 대중의 정서와 유리된 개인적인 사고체계의 표출, 방임의 태도, 매너리즘으로 인한 관객과의 괴리감 등의 문제로 인해 일반 대중과의 소통에 관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톨스토이가 지적한 현대예술의 문제점(엘리트주의의식, 예술의 개인주의, 유의의식, 쾌락의 욕망에 의한 무분별한 창작 등)과 일치하여 예술은 만민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때 훌륭한 예술이 되어질 수 있다는 톨스토이의 예술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톨스토이가 예술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 종교적 자각심을 살펴본 결과, 무용예술에 있어 종교적 자각심의 확립은 무용예술계의 선한 영향력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에 대한 분별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랑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상위의 목적이며 세상 모든 이들이 감염되어있는 기본적인 진리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자각성을 지닌다는 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한 복음적 사고관의 실현으로 예술가들에게 방임이 아닌 책임감을 주며, 근본적인 선한 양심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무분별한 무용예술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무용예술을 바로 이해하기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종교적 자각을 통한 동포적 자각심이며, 쾌락을 바탕으로 한 현행 미학의 잘못된 미학이론을 개선하여 새로운 미(美)의 기준과 예술관을 가지고 무용예술을 마주해야 한다.

# 대학원생 분과

## 제4분과 : 세계관/신학/문화

### 기술주의와 기독교 세계관

박관수(도서출판 동연 편집자)

한스 요나스는 “오늘날, 기술은 인간에 관한 모든 문제에—삶과 죽음, 사고와 감정, 행위와 고통, 환경과 사물, 욕구와 운명, 현재와 미래—침투해 있다”고 지적한다(Hans Jonas, 1987: 17). 그러나 기술과 인간의 삶의 밀접한 관계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다.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구분하는 것은 기술이 시대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사회적 현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근대 이전에도 사회적 변화는 기술과 도구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을 중심으로 사회가 형성되는 것은 비단 현대 사회의 특징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근대 이전과 이후의 기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근대 이전에는 기술주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근대 이후에 와서 기술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개의 물음에 대한 답을 추구하고면서 기술주의 극복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적 전략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 기술의 특징을 살펴보자.

#### I 현대 기술의 특징

##### 1. 기술적 선택의 자동성(Automatism)

-기술이 기술 그 자체를 스스로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 선택의 자동성은 2개의 측면이 있다(논문 참고)

-인간은 더 이상 기술 발전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Jacques Ellul, 1967: 95). 어떤 수단들 중에서 선택을 할 경우 그것은 인간의 계산이 아닌 기계적인 과정에 의해 진행된다. 그래서 기술 진보는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된다(Jacques Ellul, 1967: 95).

##### 2. 기술의 자기 확장성(Self-augmentation)

-기술이 스스로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재생산한다.

-기술의 자기 확장성은 2개의 법칙이 있다.

첫째, 기술발전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 주어진 문화에서 기술 발전을 뒤집을 수 없다

둘째, 기술의 발전은 그 기술과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어 기술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난다(Jacques Ellul, 1967: 106)

##### 3. 보편성(Universalism)

-지리적 보편성: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이 국가의 장벽을 허물었다

-질적인 보편성: 지역, 민족, 국가에 따른 문화적 차이도 제거한다는 것이다(Jacques Ellul, 1967: 133). -지역적 경계와 문화적 경계를 효과적으로 붕괴시켜 결국 문화적 일치를 가져온다(Egbert Schuurman, 1995: 34).

## 4. 자율성(Autonomy)

-기술의 발전은 경제와 정치에 대해 자율적이다.

-기술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국가나 정치적인 제도가 기술 발전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Jacques Ellul, 1967: 149).

## 5. 신성한 기술

-기술은 신성한 것을 파괴하고 그 자체가 다시 신성한 것이 된다.

-기술은 아무 것도 숭배하거나 경외하지 않는다. 즉 기술에 있어서 궁극적인 신비한 영역이나, 미지의 영역은 없기에 어떤 대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자신이 숭배의 대상이 된다.

## II 유일하게 신성한 종교로서의 기술주의

-엘롤은 기술이 우리에게 성스러운 것(聖, Sacredness)<sup>49)</sup>이 되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우상적 종교가 되었다고 한다(양명수, 1995: 67-68).

-기술은 사물을 대상화 하면서 그 대상을 탈은폐(脫隱蔽, Entbergens)시킨다(Martin Heidegger, 1962: 35).<sup>50)</sup> 즉 기술은 대상화를 통해 모든 신비적인 영역, 거룩한 영역을 백일하에 들추어내고 이를 통해 모든 신성한 것들을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기술주의 시대 속에서 종교성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술은 그 이전의 종교성과는 다른 새로운 종교성을 제시한다(양명수, 1995: 66 재인용).

-기술은 성스러운 것을 비신성화 하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재신성화 한다(양명수, 1995: 68).

-이렇게 재신성화 하는 과정에서 기술은 비기술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자기에게 맞는 국가, 경제, 문화, 인간을 만든다. 즉 기술은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체계의 심미적, 인격적, 영적인 측면을 숫자와 효율성으로 환원하여 비신성화하고, 그 후 숫자와 효율성 자체를 재신성화 한다.

## III 기술주의의 탄생 배경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를 구분했다.

-정신: 인격적, 가치적

-육체: 비인격적, 비가치적

-자연: 육체처럼 비인격적, 비가치적

-사실의 세계인 자연이 가치를 지니는 것은 오직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즉 인간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한에서 가치가 있다.

-이것은 곧 인간이 자연을 객체화, 대상화 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오직 합리적, 이성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자연은 인간 이성의 “합리적 파악에 종속” 된다는 것이다.

-이 이성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전혀 의존적이지 않는 자율적인 이성이었다. 이러한 이성이 근대 기술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것이 근대적 기술 이성이다.

-기술 이성은 인간의 이성에만 배타적인 권위를 부여하며 하나님과 자연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된 이성으로서, 대상을 인식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합리성과 이성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근대적 기술이 시작하게 되었다.

## IV 기독교 세계관적 대응

1. 인간은 영육합일체임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을 영육합일체로 보는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신체만을 강조하는 이원론적 인식을 철저하게 거부한다.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육체는 더 이상 존재가 아니고 비존재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인간은 사유하는 능력을 가진 정신적인 존재일 뿐이었다.<sup>51)</sup>

-사유하는 이성은 몸을 대상화하고 지배하게 되는데, 이러한 몸에 대한 지배적인 태도는 자연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을 제공해 주었다(임흥빈, 1995: 103).

## 2. 타자성의 회복

-근대적 기술 이성은 자신의 육체성, 자연, 하나님을 객체화하고 이러한 타자를 이성의 논리로 환원한 것이다. 따라서 근대의 자율적 이성을 모티브로 한 기술주의를 극복하고 기독교 문화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육체성의 복원을 통한 영육 합일체로서의 인간론의 회복과 더불어 나름대로 존재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의 자연, 창조와 구속과 심판의 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타자성의 회복이 동시에 수반되지 않으면 기술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핵심적인 문제로 삼아 왔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의 왜곡된 관계’로 시작된 기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은 기존에 잘 주목하지 않았던 타자인 자연을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가치 있는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객체화해서 획득한 근대적 주제 개념을 전환하고, 타자로서의 자연을 고려하는 “생태적 기독교 세계관”이 요청된다. 이러한 세계관적 변혁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으며, 인간이 타인과 자연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섬김의 관계 속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V. 섬김을 통한 주체됨의 회복

-그렇다면 근대적 이성의 자율성의 세계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윤리적 범주에 포함하는 “생태적 기독교 세계관”이 요구된다.

-자신(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이성) 이외에 모든 타자를 객체화함으로 획득했던 근대적 인간됨으로부터 이제는 타자에 대한 섬김을 통한 주체로서의 인간됨으로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타자는 자기 자신과 인간, 그리고 자연이다. 기술주의를 극복하는 “생태적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주체는 다른 사람의 지배자가 아니라 중으로서의 주체이다(Emmanuel Levinas, 1984: 127). 즉 다른 사람에 대해 자신이 종이 됨으로 자신의 주체가 성립되는 것이다. 남을 섬길 때 참된 주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타인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타인을 무엇으로 간주하거나 규정하기 전에 섬김이 있는 것이고, 이 섬김을 통해 진정한 “주체성이 탄생” 하게 된다(Emmanuel Levinas, 1984: 126).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핵심적인 문제로 삼아 왔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의 왜곡된 관계’로 시작된 기술주의 이데올로기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개입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배제한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관으로서 기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은 기존에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타자인 자연을 레비나스가 말하는 진정한 책임 있는 주체됨에 있어서, 타자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생태적 기독교 세계관”이다.

49) 성이란 원시시대의 종교성이요,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우상적 종교로서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인 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은 사회 속에서 전체주의적으로, 질서유지를 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작용한다(양명수, 1995: 67-68).

50) 하이데거는 탈은폐의 어원을 알레테이아(α λ η θ ε ι α)로 설명한다. 기술의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탈은폐의 의미는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 놓음”이다(Martin Heidegger, 1962: 33). 이러한 탈은폐는 본질적으로 대상을 자신 앞에 세우는 즉 표상(vor-stellen)하는 작용을 수반하게 된다(Martin Heidegger, 1962: 57). 따라서 탈은폐는 표상작용을 통해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51) 이렇게 인간의 신체를 부정했지만 점차 기술주의 사회 속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육체적인 존재로 인식될 뿐이다. 즉 인간은 효율성과 감정, 욕망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기술주의 속에서 인간의 정신은 소멸되었고, 인간은 기술주의의 가치관에 순응하고 기술주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들뢰즈(G. Deleuze)의 표현대로 욕망하는 기계가 되었다. 즉 인간은 단지 기술주의 시스템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자 내지는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가 된 것이다. “생각 한다 고로 존재 한다”로 시작된 근대적 인간은 결국 “소평 한다 고로 존재”하는 소비자가 되었다.

## 동성애 관련 사회 갈등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조인숙(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 유정철(경희대학교 이과대학 생물학과)

### 1. 서론

동성애는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사회 갈등 중 하나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시민사회에서 용납되어 야 하는 정상 행위”라고 강조하지만 교계를 비롯한 반(反)동성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죄스럽고, 비정상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갈등은 기독교계에서 특히 심하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종교적인 죄로 여겨왔다. 동성애는 이 세상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뜻에 어긋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부도덕한 것으로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개신교는 그 입장이 다양하여 동성애와 동성결혼, 심지어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도 허용하는 교단들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교계 내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주제영역 내에서 장기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며, 교섭되는 사회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는 뉴스 프레임이 무엇인지에 따라 수용자의 해석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 언론 보도는 취재기사와 취재 시스템의 속성상 본질적으로 언론사의 특정한 시각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프레임임을 통해 전달된다(Entman, 1993; Pan & Kosicki, 1993). 이를 통해 보도되는 사회적 현실은 언론이 지닌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선택, 강조, 배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속적으로 재해석된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다(Gitlin, 1980). 특히 동성애처럼 사회 갈등으로 부각된 이슈는, 프레임에 따라 특정 쟁점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부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쟁점에 대한 수용자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계, 진보계 기독교계 신문이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프레임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뉴스 프레임 분석 연구를 하였다. 동성애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영역의 확장성, 갈등주체의 다양성에 기인한다. 사회 갈등을 주제로 다른 연구 모두 국내 이슈에 국한하고 있어, 동성애처럼 국내를 포함한 세계적 갈등으로 확장된 이슈를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분석을 통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갈등주체가 국가 권력(정부)과 대항세력이었다면, 동성애는 종교권력(교회)과 대항세력(동성애 단체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종교의 영향력이 점차 공적 영역에서 가시화되면서 언론을 통한 교계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연구는 미비하다. 그러므로 동성애 갈등 연구는 교계를 포함한 다차원적인 프레임 제시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연구가 될 수 있다.

### 2. 방법론

동성애를 보도한 기사에서 사용한 프레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를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보수와 진보라는 상반된 이념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신문으로서 동성애와 관련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는 창간부터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온 만큼 성경교리에 어긋나는 동성애 보도에 있어 다른 신문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선택하였다. 『국민일보』, 『한겨레』의 기사는 뉴스기사 데이터베이스인 카인즈(KINDS)를 통해 확보했고, 『조선일보』의 기사는 조선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보했다. 총 분석 시기는 카인즈에서 분석 가능한 1990년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로 선정했고, 검색범위는 기사 제목에 ‘동성애’라는 주제어를 통해 추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사는 조선일보 183건, 한겨레 153건, 국민일보 125건으로 총 461건이었다.

### 3. 연구결과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오랫동안 침묵에 갇힌 사회적 금기어였다. 그러나 성에 대한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다양한 성담론이 자연스럽게 논의되면서 우리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 점차 관용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동성애 관련 기사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00년과 2010년에는 기사 건수가 확연히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의 연평균 기사건수는 2.1개였으나 홍석천의 커밍아웃 이후 2000년에는 20개로 약 95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드라마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시청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런 파장으로 2010년 조선일보는 기사건수가 전년 대비 약 100배 증가했다. 신문사 구분에 따른 기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461건의 기사 중 348건(75.5%)이 스트레이트 기사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획/연재 67건(14.5%), 칼럼 및 논단 24건(5.2%), 인터뷰 12건(2.6%), 사설 7건(1.5%), 통계/설문조사 3건(0.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국민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모두 기사유형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스트레이트 기사에 치우쳐 있을 뿐 언론사간 보도성향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칼럼 및 논단, 기획 연재, 사설 등 보도량의 빈도 차이는 거의 없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분석에 사용된 기사건수는 183건으로 한겨레 153개, 국민일보 125개 보다 그 수가 많았으나 스트레이트 기사가 88%로 단순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 이것은 동성애가 사회적 논의의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지 못한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신문사 구분에 따른 프레임 유형의 차이를 Chi-square로 분석한 결과, 총 409건의 기사 중 186건(45.5%)이 ‘사회통합’ 프레임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뒤를 이어 ‘사회약자’ 프레임 67건(16.4%), ‘청소년 위해’ 프레임 57건(13.9%), ‘성경교리’ 프레임 56건(13.7%), ‘갈등/내분’ 프레임 34건(8.3%), ‘과학’ 프레임 9건(2.2%)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는 동성애를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에서 가족과 사회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근거까지 사회윤리 및 청소년 정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시선, 즉 ‘성경교리’, ‘청소년 위해’, ‘갈등/내분’ 프레임이 우세했고,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 교육의 필요성에서부터 동성애가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근거까지 동성애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통합’과 ‘사회약자’ 프레임이 우세했다. 등장주체 유형을 살펴보면, 국민일보는 ‘교계’가 62건(50.0%), 한겨레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진보 성향의 ‘인권단체’가 58건(38.4%), 조선일보는 ‘정치인’이 49건(27.1%)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동성애가 후천적(환경적) 요인과 선천적(유전적) 요인에 의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언론은 깊이 있는 정보와 정확한 팩트를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프레임 형식별로 비교해보았을 때 모두 일화프레임 빈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대의 유풀을 앞세워 사회적 변화로 인한 동성애자 끌어안기, 혹은 치유 받을 대상으로 동성애자 끌어안기 등 현상만을 보도하기에 급급할 뿐, 동성애자에 대한 독자들의 실질적 판단에 도움을 줄만한 정보 제공은 3개 신문사 모두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언론은 사회적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 수도 있지만,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국내 신문사들은 각 신문사에서 의도하는 등장주체를 빈번하게 노출시키며 동성애 찬반여론에 앞서 독자들이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역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언론사 등은 향후 동성애 관련 사회 갈등을 줄여나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독교 단체 및 연구자들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 떠오르는 동성애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사회 갈등에 대한 입장 정리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최단체 소개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전화 : 02-754-8004, 02-3272-4967, 070-8285-4967  
 \* E-mail : [info@worldview.or.kr](mailto:info@worldview.or.kr) / [gihakyun@daum.net](mailto:gihakyun@daum.net)  
 \* 홈페이지 :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Fax : 0303-0272-4967  
 \* 주소 : 서울 용산구 이촌 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1. 기독교학문연구회(기학연)

기독교학문 연마를 위해 학회인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기학연)’를 둔다. 기학연은 아래의 활동을 한다.

- 각 학문분야별로 신학과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여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추구한다.
- 연구 발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연 2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한국과학재단 등재 학술지 <신앙과 학문>을 연간 4회 발행한다.
- 기금을 조성하여 기독교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 각 전공별 기독교 학회들의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 각 기독교대학들의 기독교학문 활동을 지원 및 협력한다.
- 장기적으로 기독교학문연구를 진흥할 수 있는 “한국기독교학술진흥재단(가칭)”을 설립한다.

2. 세계관 운동(DEW)

기독교자들이 제시한 기독교적 대안을 교회에 알리고, 기독교적 대안이 사회에 실천되도록 아래의 운동을 펼친다.

- 신문, 방송, TV, 인터넷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한다.
- 월간 <월드뷰>의 발행을 통해서 교계의 지식인 계층 및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대안을 제시한다.
- 본 회의 출판부인 CUP를 통하여 세계관 관련 도서를 출판·보급한다.
- 회원 교회들과 협력하여 기독교적 대안이 확산되도록 한다.
- 본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전국적 조직을 운영한다.

3. 교육

- VIEW와 같이 기독교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기독교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국내에 설립하여 운영한다.
- 교수, 교사, 목회자, 언론인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집단에 적합한 전문 직종별 아카데미나 프로그램인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를 운영한다.
-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제3세계 국가에 기독교세계관 대학 및 대학원 설립을 지원한다.
- 기존의 기독교대학들과 협력하여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실시한다.
- 각 신학교 안에 기독교세계관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실시한다.
-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교재를 개발한다.

-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역사, 과학 등 제 학문 분야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 교재를 개발한다.

4. 도서출판 CUP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함 2:14)  
 도서출판 CUP는 바른 성경적 가치관 위에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전인적으로 조화된 균형 잡힌 도서를 출판하며,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생각과 학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문화를 재창조한다.

- 전인적인 삶의 틀을 제공하며, 성경적 비전을 확장시키는 나눔터의 출판을 지향한다.
- 치우치기 쉬운 신앙과 생각과 삶에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는 책들을 출간한다.
-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과 문화를 꿈꾸는 저자들을 발굴한다.
- 성경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영성, 소명외식, 리더십 등 삶의 제자도를 담은 책을 출간한다.
- 대안학교를 위한 지침서가 될 만한 책들을 발굴하고 기획, 출간한다.
- 기독교 세계관 제자 양성을 위한 교재로 사용할 만한 책들을 출간함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적 문화 및 사고를 개발하는 데 일조한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 청소부아줌마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입니다!

학생들이 교내 환경미화원을 모시고 매년 동반여행을 떠나고  
대신 캠퍼스 청소에 나서는 GCC캠페인은 한남대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 GCC 캠페인이란?

한남대학교 총학생회가 2009년부터 시작한 GCC(Green & Clean Campus) 캠페인은 아름다운 캠퍼스와 깨끗한 대학문화를 만드는 도덕성 회복 운동입니다. 한남대 학생들의 GCC 캠페인은 친환경 캠퍼스 만들기와 무감독 시험, 사회적 약자 돕기 등을 통해 대학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이 수 증

성명 :

소속 :

직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본 학회가 주관한 제29회 기독교문학회에 참석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제 : SNS & CNS (크리스천의 SNS)

일 시 : 2012년 11월 10일(토) 10:00-18:00

장 소 :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2012년 11월 10일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 정희영



제29회 기독교학문학회 자료집

---

발행일 : 2012년 11월 10일

발행인 : 정희영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인 쇄 : 진흥인쇄 (02-812-3694)

발행처 : 기독교학문연구회(학회)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촌 2동 212-4번지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140-032)

Tel : 02-754-8004, 02-3272-4967

Fax : 0303-0272-4967

E-mail : gihakyun@daum.net,  
info@worldview.or.kr

홈페이지 : www.worldview.or.kr